

문화예술 기획 · 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연기획 · 제작자를 위한 기술행정

공연기획 · 제작자를 위한 기술행정
영정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예술경영지원센터
Center for Arts Management Servic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예술경영지원센터
Center for Arts Management Service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0 보생빌딩 2·4·5층
전화 02-745-3045 팩스 02-745-2071
www.gokams.or.kr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예술경영지원센터
Center for Arts Management Service

공연기획 · 제작자를 위한
기술행정

Contents

기술행정

I. 프로덕션과 스태프

프로덕션과 스태프	9
팀워크	10
스태프의 구분	11

II. 기술 스태프의 역할

무대제작	17
소품	18
의상	19
분장	19
조명	20
음향	21
영상	21
무대감독	22

III. 기술 스태프의 작업

1. 제작 일정

공연기획 단계	28
연습 단계	31
공연	44
공연 후	45

2. 구성과 작업

1) 단일 공연의 경우	48
일반적인 기술 스태프의 구성	49
기술팀별 업무의 흐름	51
2) 공연예술축제의 경우	56
축제 기술 스태프의 구성	56
축제 기술팀별 역할	58

3. 테크니컬 라이더

테크니컬 라이더란?	60
테크니컬 라이더 작성법	62

IV. 극장의 이해

1. 극장의 기본 구조

좋은 극장	71
극장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	73
극장 기술 정보	76

2. 극장의 장비들

무대시설의 구분	81
상부설비	82
하부설비	85
조명 장비	87
음향 장비	93
영상 장비	96
기타 장비	97

3. 안전

무대에서의 안전	100
관련 법규	108
무대예술전문인제도	114

V. 기술관련 예산항목

기술관련 예산항목	119
-----------------	-----

VI. 극장용어 해설

125

기술행정

들어가며

어떤 공연예술축제에서 야외무대를 기획하고 있다. 야외무대에 올릴 공연 프로그램도 정해졌다. 야외무대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짜야한다.

공연할 작품들을 검토하면 필요한 무대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조명장비 물량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음향장비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전기는 어떻게 충당하며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지, 예산을 짜려면 답이 필요하다. 예산을 짜는 것은 기획자의 업무이고, 야외무대에 들어가는 무대기술 관련 전적을 산출하는 건 기술 스태프들의 몫이다. 프로덕션은 각자의 전문성으로 이뤄지며 그 전문성들이 서로 소통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공연예술에서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공연 첫 날은 불변의 데드라인(Deadline)이며, 그 데드라인은 그 앞의 데드라인들이 연속되어 합쳐진 결과의 전체라 할 수 있다. 모든 스태프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러한 때 순간을 헤쳐 나간다. 어떤 순간을 맞닥뜨려 헤치고 앞으로 나아간 하나의 역할은 다른 한 역할과 만나 둘 이상의 무엇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공연예술이다.

기술행정은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중요한 목적인 업무이다. 기술 스태프만큼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이해가 아니다.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것이 핵심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은 그러한 인정과 이해에서 출발한다.

이 매뉴얼은 1~3년차의 공연기획·제작 스태프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선배들이 힘들게 혹은 우스꽝스럽게 지나온 경험들이 거름이 되어 현재의 그들을 만들었다. 후배들이 자신들보다 수월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선배의 마음이다. 이 매뉴얼을 통해 기술 스태프들과 그들의 작업들, 그리고 극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자가 조금이라도 이해의 바탕이 되기를, 그래서 기획제작 스태프와 기술 스태프 사이에 이야기가 '소통'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연예술이란 워낙 관객에게 말을 거는 '소통'의 예술이지 않은가. 하늘을 향해 이야기 하는 데서 기원했듯이 말이다.

I. 프로덕션과 스태프

프로덕션과 스태프
팀워크
스태프의 구분

공기제 씨는 몇 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마치고 이제 공연제작부서에 배치된 지 이주일째다. 공기제 씨가 속한 OO뮤지컬 제작사는 오랜 고민 끝에 국내 소설을 원작으로 뮤지컬을 제작하기로 했다. 제작PD님이 뮤지컬 △△△에 참여했던 크리에이티브 스태프와 제작 콘셉트 점검 회의를 해야 하니,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들의 일정을 확인해서 1주일 내에 회의를 소집하라고 하신다. 공기제 씨, 뮤지컬 △△△ 전체 주소를 보면서 과연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는 어느 선까지 참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데, 주변 선배님들은 너무 바쁘고, 또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들을까봐 전전긍긍한다.

크리에이티브 스태프 회의가 끝나고 제작PD님의 짜증 섞인 핀잔을 받았다. “너 아직 무대디자이너 하고 무대감독을 구별 못하냐? 여기가 무슨 학교 연극반이야? 왜 무대디자이너한테는 연락 안했어?”

‘이건 뭐지? 무대디자이너는 무대감독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냐? 무대를 감독하는 사람인데...’ 공기제 씨는 죽 나열되어있는 기술 스태프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들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한다.

!!

명단을 훑어 갈수록 나타나는 비슷한 역할의 서로 다른 이름들. 공기제 씨는 프로덕션 연락처와 여타 대형 공연의 프로그램 북의 스태프 명단을 보면서 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모였는지 고민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공연제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어떤 접점에서 그 다양한 스태프들과 만나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대체 이 다양한 ‘스태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

프로덕션 스태프(Production Staff). 우리말로로는 제작스태프라고 하는데 공연제작에 참가하는 스태프들, 그 중에서도 제작회의에 참가하는 주요 스태프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술감독, 연출가,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제작무대감독, 안무가, 작곡가, 음악감독, 제작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영상의 활용이 빈번한 요즘에는 영상디자이너가 포함되기도 하고, 라이선스(Licence) 공연일 경우에는 디자이너보다는 수퍼바이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대개 연출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주어지고 제작회의에 어떤 스태프가 참여하는지도 그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프로덕션이 기획자와 제작자의 몫으로 꾸러지는 경우, 그들의 의견도 작품의 콘셉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연출가나

디자이너들만큼 제작회의에서 도드라지지는 않겠지만, 기획자와 제작자, 홍보와 마케팅 담당자도 당연히 제작회의에 포함된다. 제작회의의 주선과 산출될 결과는 기획제작 스태프가 담당해야 할 여러 일들의 하나이고, 이를 통해 결정할 작품의 제작 콘셉트 역시 그들이 진행할 프로덕션의 바탕이 될 것이다.

프로덕션과 스태프

하나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우선 연극의 3요소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희곡과 배우, 관객은 공연예술을 이루는 필수 요소인 셈이다.

각 요소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나름의 중요성을 드러내왔는데, 공연이 산업화되는 이즈음에는 ‘관객’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더 주목을 받는 듯하다. 관객을 의식하고 분석하고 층을 나누는데 무엇보다 관객의 양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그렇게 관객과의 관계 속에서 공연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여 제작하는 방식을 프로덕션 시스템(Production System)이라고 한다. 물론 이는 사전적 정의일 뿐 모든 프로덕션 시스템이 공연에서 예술성을 배제하고 상품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공연을 제작하는 다양한 시스템들 중에서, 제작자나 기획자를 중심으로 공연이나 행사를 기획한 후 그 프로그램에 적합한 공연자를 섭외해 계약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제작 방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여기서 관객과 정반대의 입장에 놓인 대상이 바로 ‘스태프(Staff)’이다. 스태프는 관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을 통칭한다. 사전적 의미에서 ‘스태프’는 연극이나 영화의 제작진(製作陣)을 뜻한다. 제작진이란 연기자를 제외한 연극, 영화, 방송의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따라서 프로덕션은 배우와 스태프라는 인적 구성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이들 사이는 스태프가 배우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이다. 그렇다면 앞서 스태프가 관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은 아주 궁극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사실 관객들이 마주보는 대상은 무대 위의 배우인데, 배우가 관객을 맞이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지만 드러나지 않게끔 숨겨져 있는 이들이 바로 스태프이기 때문이다. 다시 연극의 3요소를 빌어 말하자면, 배우가 관객 앞에서 희곡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만드는 게 스태프의 일이다. 결국 스태프는 희곡과 배우, 관객 사이를 잇고 채우는 역할을 한다.

팀워크

공연예술 스태프들은 프로덕션에서 각자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프로덕션 내에서는 각자의 업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데 큰 틀에서의 업무와 책임은 대략적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프로덕션마다 고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은 스태프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 거대한 기계의 부속들처럼 저마다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만으로는 공연예술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덕션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특히 스태프와 스태프의 관계에는 유기적인 협동이 필요하다. 공연은 프로덕션의 결과물이며, 프로덕션을 구성하는 수많은 팀들의 협업으로 이뤄지고, 각 팀들은 팀원들의 창조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헌신에 의해 유지된다. 이를 프로덕션의 팀워크라고 한다.

스태프들은 거의 모두가 계약을 맺고 프로덕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결합한다. 각자의 전문적인 역할을 두고 맺은 계약에는 프로덕션 안에서의 구체적인 책임이 명시된 동시에 팀워크를 위한 노력이 내재되어 있다. 팀워크가 잘 갖춰진 프로덕션의 비결은 소통이다. 구성원들 사이에 각 팀들 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모두가 바란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스태프에게도 서로를 존중하며 원활하게 의견을 나누어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은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라도 의사소통이 수월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라도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프로덕션의 각 팀은 진행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한 팀처럼 함께 일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얼굴 한 번 마주칠 기회가 없기도 하다. 혹은 안면은 있지만 무슨 일을 하는 스태프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다. 맡은 일의 책임에 따라 프로덕션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전체 구성원과 소통해야 하는 스태프가 있는 반면에 한두 명과의 작업으로도 프로덕션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스태프가 존재한다.

스태프의 전문 분야는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게 하는데, 이렇게 구별되는 지점에서 의사소통의 문제 역시 생겨난다. 같은 스태프지만 나와 하는 일이 다르고 같은 팀이 아니라는 점이 때로 문제의 시발점이 된다. 여기에는 서로 다르다는 데 바탕이 적혀 있는데, 대다수의 스태프들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책임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커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하고 미묘한 부분은 책임에 대한 방어에 있을 수 있다. 만일 어떤 스태프가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책임을 쫓긴다면 많은 경우에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프로덕션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다른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역시 분명하게 인

지해야 한다. 이것은 프로덕션의 메커니즘(Mechanism)을 파악하는 첫걸음이다. 특히 스태프로써 자신이 만들고 있는 공연의 프로덕션이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다면, 경험이 적거나 아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은 각자의 역할을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관계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배우들의 연기를 빌어 말하자면, 상대 배우와 적절한 리액션(Reaction)을 위한 여지를 주고받아야 하는 것과 같다. 상대방으로부터 건네진 리액션을 통해 자신의 역할은 비로소 완성된다.

스태프의 구분

스태프는 때로는 말 그대로 배우나 관객과 다른 하나의 무리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일에 따라 많은 갈래로 나뉘고 각자의 전문적인 분야에 따라 팀으로 갈라진다. 프로덕션의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기획제작 스태프와 예술(Creative) 스태프, 기술(Technical) 스태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구분은 편의적인 것으로 명칭 또한 고정적이지는 않다.

구분된 각 스태프들을 살펴보면 기획제작 스태프에는 기획자와 제작자를 중심으로 행정과 인사, 재정, 그리고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이 포함된다. 예술 스태프는 연출가를 비롯해 예술감독, 극작가, 작곡가와 무대, 소품, 의상, 분장, 조명, 음향, 영상의 디자이너 등을 말한다. 기술 스태프에는 기술감독과 무대감독, 조명과 음향, 영상의 엔지니어와 오퍼레이터 등이 포함된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러한 구분은 통상적인 것으로 일의 성격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한정된 시간에서 단계별로 이뤄내야 하는 성과는 각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한 무수한 협업을 통해 완성된다. 중요한 것은 구별이 아니라 구별된 기준에 따라 서로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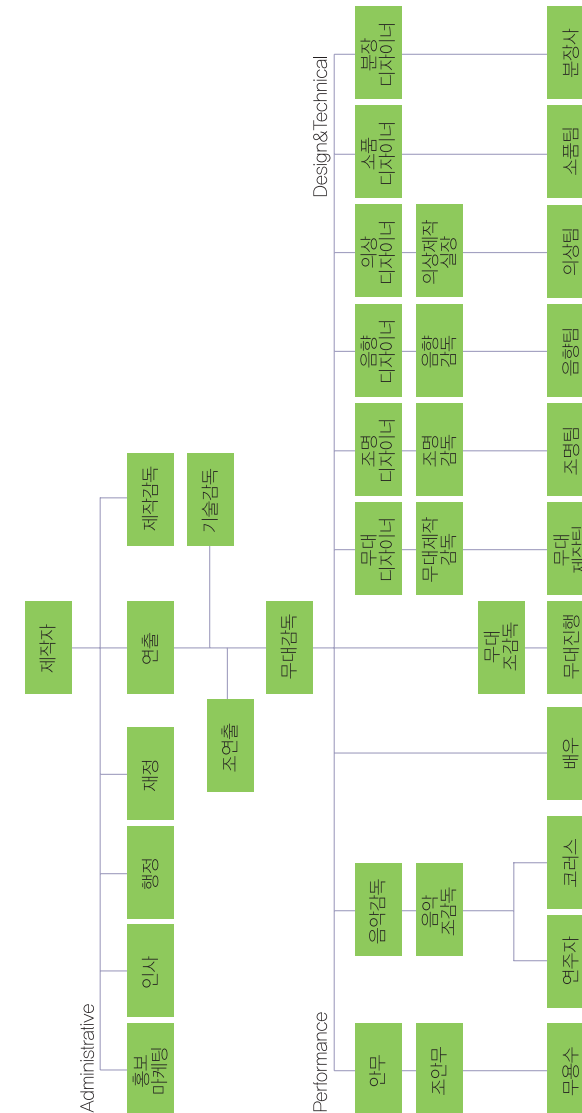
창의성은 기술에 의해 충족될 수 있고, 기획에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기술적 구현에는 경제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예술적 성취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랜 시간 예술 스태프와 기술 스태프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서로의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예술 스태프와 기술 스태프는 각자의 분야에 따라 서로 섞여 일하기 때문에 분야를 기준으로 나뉘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한 분야의 디자이너와 기술 스태프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조명팀은 조명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조명감독과 조명 스태프들, 조명 오퍼레이터, 팔로우 스포트 오퍼레이터 등으로 구성되는 식이다. 이밖에 무대디자이너는 무대제작팀, 소품이나 의상, 분장디자

이너는 각각 소프팀, 의상팀, 분장팀, 음향디자이너는 음향팀, 영상디자이너는 영상팀과 함께 일한다. 예외적으로 무대감독팀은 디자이너와 묶이지는 않지만 기술감독 혹은 무대감독을 중심으로 공연의 진행을 책임진다.

이렇게 나뉜 팀들은 구성의 측면에서 대개 비슷해 보이지만, 일을 하는 방식이나 팀 내부에서의 관계들은 판이하게 다르다. 각 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각 팀의 스태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한다면 이해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IP 프로덕션 시스템의 구성 - 단일 공연



Ⅱ. 기술 스태프의 역할

무대제작
소품
의상
분장
조명
음향
영상
무대감독

오늘도 공기제 씨는 위촉된 마음을 달래려 휴연 공간으로 나가려는데, 지나가던 대표님께서 “공기제 씨, 지금 공연할 극장이 변경되어서 디자인 논의가 다시 되어야 하니까 스태프 파트 각 책임자 분들 연락해서 회의 일정 잡아보세요” 하고는 급하게 출타하신다.

스태프 연락처에는 조명과 분장은 한명씩인데, 무대 쪽은 디자인, 감독, 제작 다 다르고 음향 파트에는 사운드 디자인과 시스템 디자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기술감독님과 무대 감독님을 다 오시라고 해야 하나? 공기제씨는 어디까지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한편, 공기제 씨 입사 동기인 홍보팀의 마기홍 씨는 팀 선배로부터 곧 진행될 예정인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프로그램 작업을 해야 하니 같은 규모의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을 참고해서 기본 제작 계획을 구상해보라고 했다. 몇 페이지 넘지 않아서 마기홍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대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란 말인가? 수퍼바이저는 무엇이며, RF엔지니어는 무엇이며, 무빙프로그래머는 또 무엇인가? 마기홍 씨는 기가 질려 그만 프로그램을 접고 말았다.

!!

입사동기인 공기제 씨와 마기홍 씨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덕션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려면 그 곳의 지형 파악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기술 스태프 영역에도 발을 들여놓아야만 한다. 덜컥 겁이 나는 것은 “기술 스태프들은 영역이 확실하고 자존심과 고집이 세서,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 전하는 몇몇 선배들의 수다였다.

예를 들어, 무대디자이너를 영어로 번역하면 ‘Set Designer’가 되고 무대미술가는 ‘Scenographer’라고 한다. 두 역할은 비슷해 보이지만 일의 범위와 책임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자가 무대장치의 디자인을 담당한다면, 후자는 무대의 시각적 환경 전체를 책임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의상이나 분장, 조명의 디자인 개념 도출에도 관여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적 정의일 뿐, 공연은 협업의 과정이어서 그 역할은 조금씩 조정되고 매번 달라진다. 프로덕션의 구성원들은 무대장치가 만들어지고 무대의 시각적 환경이 갖춰지는 과정에서 무대디자이너와 작업을 한 건지, 무대미술가와 일을 한 것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 스태프들의 역할도 협업과 전문성을 전제로 파악해야 한다. 프로덕션이 진행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역할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기술 스태프의 구성은 팀 단위의 협업을 위해 이뤄지는데, 프로덕션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팀 내에서의 역할은 나눠지거나 강조될 것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이용 가능하도록 주어진 자원들 내에서, 최선의 결정으로 프로덕션을 충족시켜야만 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 스태프들의 조직은 도제식 시스템과 유사하다. 현장 경험을 통해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판단력을 축적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경험과 기술 수준에 따라 기술 스태프들은 단계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역할을 맡게 된다.

제작 시스템이나 프로덕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거나 겹치기도 하겠지만, 분야별로 구분한 기술 스태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무대제작(Set)

무대제작팀은 무대장치의 제작과 작화를 하고, 그것들을 무대에 설치하는 역할을 한다. 크게 무대장치를 제작하여 반출하는 장치제작팀과 무대장치를 반입하여 설치, 공연하는 무대장치팀으로 나눌 수 있다.

장치제작감독(Master Carpenter/Head Carpenter) 공연의 장치제작 인력과 업무 내용을 관리 감독하는 스태프. 주로 장치제작소에 속해 있다.

무대장치감독(Stage Carpenter) 제작된 장치를 공연장에 설치하고 전환 및 수선, 철거하는 활동과 인력을 관리 감독하는 스태프로 무대장치팀의 팀장이다.

장치팀원(Carpenter/Building Carpenter/Construction Carpenter) 무대장치를 만들고 다루고 수선하는 스태프. 주로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하는 목수에서 나온 명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책임목수나 보조목수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장치팀원으로 통칭한다. 장치스태프, 장치제작원, 무대장치전문인 등을 모두 같은 명칭으로 봐도 무방하다

작화가(Scenic Artist) 움직이는 대상인 캐릭터를 제외한 배경을 그리고 채색하며 완성된 세트에 시각적인 특수효과를 주는 사람.

작화팀(Paint Crew) 장치를 작화하는 작업자들. 오려내기 장치의 외곽선 지정, 입체 질감 작업, 바닥 장치에 장치 설치 위치의 표시 등도 작화팀의 작업에 포함된다. 작화팀의 인력과 업무를 감독하는 작화팀장(Master Painter)과 무대 배경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작화스태프(Painter, Scenery Painter)로 이뤄진다.

장치전환수(Shift Crew) 극의 내용에 따라 다른 공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트나 대소도구를 바꾸는 장치전환 일을 맡은 스태프.

리거(Rigger) 무대에서 안전한 매달기 작업을 책임지는 스태프. 밧줄이나 와이어로프(Wire Ropes) 또는 도르레(Pulley)나 윈치(Winch)와 같은 도르레 장치와, 여러 가지의 매달기 방식(Rigging Systems)에 정통한 매달기 작업 전문가이다.

상부전환수(Flyman) 공연 중 매달리는 장치를 조작하거나 전환하는 책임이 주어진 스태프.

특수 효과팀(Special Effects Crew) 공연에서 일반적인 위험 수준을 넘어서는 부가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불꽃놀이나 레이저 및 기타의 장치나 효과를 담당하는 스태프. 특수 효과를 디자인하여 제작하는 테크니션과 공연 중 조작을 맡은 오퍼레이터로 구성된다.

소품(Props)

소품은 설치와 처리상 무대제작팀이 책임져야 하는 장치소품(Set Props)을 제외한, 배우가 무대 안팎에서 연기를 하면서 들고 다니는 작은 물건들을 말한다.(소도구는 일본의 가부키 용어이다.) 소품팀(Prop Team)은 공연의 소품을 다루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스태프들을 말한다.

소품팀장(Prop Mistress/Properties Master/Property Master/Prop Master) 한 공연의 소품 제작과 취급, 보관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스태프.

소품제작원(Property Builder/Property Maker) 소품을 만드는 스태프.

소품스태프(Prop Man/Prop Woman/Props Man/Property Crew) 소품의 반출입, 수선 등 관련 소품을 관리하는 스태프. 소품수, 소품관리원이라고도 한다.

의상(Costume)

의상디자이너(Costume Designer)가 한 공연의 제작을 위해 의상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디자인을 완성하면, 그에 따른 제작과 공연 중 관리, 그리고 의상전환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무대의 상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

의상제작실장(Costume Shop Manager) 의상제작실과 제작팀원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사람. (=의상제작팀장)

재단사(Cutter) 옷감을 의상디자인에 맞게 자르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사람.

재봉사(Seamstress/Stitcher) 의상 바느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의상제작팀(Costume Construction Crew/Costume Team) 의상을 만드는 제작 스태프들.

의상팀장(Wardrobe Master/Wardrobe Mistress) 공연기간 중 의상의 운용을 관리하는 사람.

의상전환수(Dresser) 공연 중 연기자의 의상 전환을 돕고, 의상을 관리하는 사람.

의상관리팀장(Head Of Wardrobe) 공연이나 예술단체에서 의상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

의상담당자(Costumer) 보관의상 중에서 공연에 적합한 의상을 찾아내는 사람. 의상을 디자인하지는 않는다.

분장(Make-up & Hair)

분장은 관객들에게 연기자의 표정과 느낌을 잘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상과 조명 등 공연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기자의 얼굴 및 머리의 분장을 담당한다.

분장사(Make-up Artist/Make-up Man/Make-up Woman) 분장디자인에 따라 연기자의 얼굴과 몸에 분장을 해주는 사람.

미용사(Hairdresser) 연기자의 머리를 공연에 맞게 손질하는 이.

조명(Lighting)

조명팀(Lighting Production Team)의 일은 보통 조명장비의 수급과 설치, 공연 중 진행, 그리고 철수까지의 과정이다. 기본적으로 조명장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전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스태프들로 이뤄진다.

조명감독(Lighting Director) 디자인된 조명계획을 실현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조명팀장(Chief Electrician/Head Electrician/Master Electrician) 조명기의 설치 및 확보, 회로 연결, 초점 맞추기부터 모든 조명장비의 보관 및 유지, 다른 조명스태프들의 작업, 공연 중 조명장비의 운용 등을 책임지는 사람. 극장에 소속되어 조명장비의 설치, 공연, 철거, 전기를 담당하는 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조명스태프(Electrician/Lighting Technician) 전기적인 장비와 조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스태프. 공연 중 무대바닥에서 조명기 위치를 바꾼다거나(Floor Electrician) 장치 전환에 따라 전선을 관리하거나 포그머신의 조작을 담당하기도 한다.

조명 오퍼레이터(Board Operator/Light Board Operator) 공연 중 조명 콘솔(Console)을 조작하는 사람. (=콘솔 오퍼레이터)

무빙 프로그래머/오퍼레이터(Moving Programmer/Operator) 자동화 조명기기, 일명 무빙 라이트(Moving Light/Automated Light) 장비의 프로그래밍과 전용 콘솔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명 스태프.

팔로우 스포트 오퍼레이터(Follow Spot Operator) 공연 중 팔로우 스포트 조명기로 공연자의 동선을 따라 비추는 사람. (=핀조명수/핀잡이)

조명기사(Lighting Technician) 조명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음향(Sound)

음향팀(Sound Production Team)은 음향장비의 수급과 설치, 공연 중 진행, 철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이다. 음향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기본이거니와 소리와 공간, 음악, 전기 등에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음향감독(Sound Director) 디자인된 음향 계획을 실현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시스템 디자이너(System Designer) 디자인된 음향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음향장비의 선택과 배치 등 시스템의 설계를 맡은 사람.

시스템 엔지니어(System Engineer) 시스템 디자이너에 의해 설계된 디자인에 따라 음향장비의 설치와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음향 오퍼레이터(Sound Board Operator) (=음향 콘솔 오퍼레이터) 공연 중 음향 콘솔(Console)을 조작하고 진행하는 사람.

RF 엔지니어(RF Engineer) 뮤지컬에서 많이 쓰이는 무선 마이크 등 공연 중 사용되는 무선(Radio Frequency) 장비의 설치 운영을 책임지는 엔지니어.

레코딩 엔지니어(Recording Engineer) 녹음기사. 공연용 음향을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거나 공연 실황을 녹음하는 엔지니어.

음향스태프(Sound Technician) 음향기사. 음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장비를 다루는 스태프.

영상(Image/Media)

무대에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영상팀은 주로 프로젝터(Projector)와 영상막(Screen)으로 구성되는 영상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또한 LED(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Display)가 쓰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문적인 엔지니어를 필요로 한다.

영상기사(Projectionist) 공연장에서 영상투사 장비의 조작을 전문으로 맡아 작업하는 사람.

미디어 프로그래머(Media Programmer) 타임라인 기반의 영상 관련 소프트웨어와 미디어 서버 같은 하드웨어를 다루는 전문 스태프.

LED 테크니션(LED Technician) LED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 스태프.

영상 엔지니어(Media/Video/Projection Engineer) 영상장비의 설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스태프.

무대감독(Stage Management)

무대감독(Stage Management)이라는 업무는 감독(Director)이라는 우리 표현과 다르게 영문 표기에서 보듯 공연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 따라서 무대감독의 영문 표기도 'Stage Director'가 아니라 'Stage Manager'이다. 무대감독은 프로덕션이 공연장에 들어와 세팅업과 연습을 하고 공연을 거쳐 철수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책임이 있다.

제작감독/제작무대감독(Production Manager/Production Stage Manager) 프로덕션의 제작 일정이 시작됨과 동시에 참가하여 제작일정의 관리, 연습관리, 장치의 공연장 반입 관리, 공연 중의 진행스태프 관리, 공연 큐 내기, 공연 철수의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책임진 무대감독이다. 주로 큰 공연을 새롭게 제작하는 경우에 필요하며, 무대감독팀의 책임자를 일컫는 말로 무대감독팀을 구성한다.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 공연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 전통적으로 무대장치의 제작과 설치에 대한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했으나, 공연의 전 분야로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무대장치, 조명, 음향, 특효 등의 기술적 사항을 파악하여, 상호 충돌함이 없도록 조절하며, 장치설치 및 공연운영, 해체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계획된 기술내용을 극장여건에 따라 재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국내에서는 제작감독과 기술감독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수퍼바이저(Supervisor) 주로 라이선스(License) 공연에 필요한 스태프로 무대, 조명, 음향, 의상, 분장 등의 라이선스 내용과 범위에 따라 제작과 실행을 감독하는 사람. 각 분야 별로 디자이너 수준의 스태프가 담당하게 된다.

기술조감독(Deputy Technical Director) 기술감독을 보조하는 사람.

무대감독(Stage Manager) 최종 연습 이후 연출에게 공연을 넘겨받아 무대에 올리는 책임자. 공연을 위한 연습을 진행하고, 조명과 음향, 무대장치의 전환 등에 대한 큐(Cue)를 부른다. 또 공연 중 등·퇴장을 점검하고 공연의 질을 유지하는 책임이 있다. 전문극단의 무대감독은 모든 연습과정과 제작회의에 참가하여 연기 동선과 무대행동, 무대전환, 기술적인 부분 등 공연의 전체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점검한다.

부무대감독(Deputy Stage Manager) 여러 명의 어시스턴트가 참여하는 경우, 수석조감독을 칭한다. 무대감독을 대신하여 큐를 내기도 하며, 연습장에서 모든 기록을 관장한다. 프롬프트(Prompt) 대본을 책임지며, 연습을 진행시킨다.

무대조감독(Assistant Stage Manager) 무대감독의 보조로, 연습장과 공연장 내에서 무대감독의 지시를 받아 진행을 책임지는 이. 연습 소품을 관장하며, 필요에 따라 큐를 내기도 한다.

무대진행(Stage Crew/Stage Hand) 공연 중 무대 뒤(Backstage)에서 무대감독의 지시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주로 무대 전환을 맡는다. 무대에서 필요한 공구들을 언제나 휴대하고, 무대감독이 알고 있는 위치에 대기한다.

무대기계감독(Chief Mechanics) 주로 공연장에 소속되어 해당 공연장의 상하부 무대기계 시스템의 조작과 유지, 관리 및 보수 등을 담당하는 사람.

TIP 극장의 기본적인 조직 구성

공연 프로덕션 시스템과 더불어 극장의 조직은 공연예술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극장의 스태프들은 공연 프로덕션의 스태프들과 유사하면서도 극장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이는 하나의 공연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대관을 통해 어떤 공연이 들어오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기본으로 한다. 요즘에는 지역사회와 더욱 밀착하거나, 자체 제작 활동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극장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6년 기준, 전국에는 637개 시설에 847개의 공연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7 공연예술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일반 관리 분야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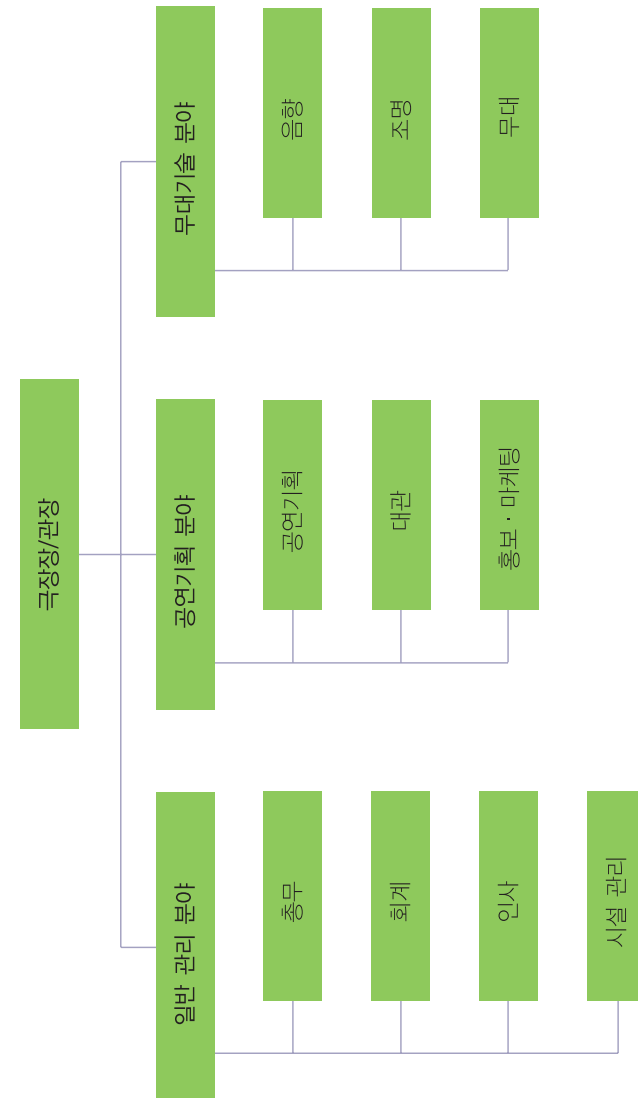
- 보안 및 관인관수
- 문서의 수발·통제·발간 및 보전 인사
-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감사 및 사정 업무
- 예산·회계 및 결산
- 물품 및 재산과 특별회계 운영·관리

공연기획 분야의 업무

- 공연의 제작 및 실행
- 문예회관 및 공연의 홍보
- 관객 개발·유치와 공연 마케팅에 관한 사항
- 공연기록물 및 자료의 제작·수집·배포 및 관리
- 문예회관 대관 및 매·수표 등 문예회관 운영 업무

무대기술 분야의 업무

- 무대미술·장치·의상·소품·장신구 등의 제작·운용 및 관리
- 공연 및 행사 등의 무대설치와 무대감독에 관한 사항
- 문예회관의 조명·음향 시설의 조작 및 유지 관리
- 무대운영관리
- 대관 공연·행사에 대한 무대기술의 지원 및 지도·감독
- 각종 무대시설 및 무대 관련 기자재·장비의 운영·관리
- 공연의 녹화 및 녹음



Ⅲ. 기술 스태프의 작업

1. 제작 일정

공연기획 단계

연습 단계

공연

공연 후

2. 구성과 작업

1) 단일 공연의 경우

일반적인 기술 스태프의 구성

기술팀별 업무의 흐름

2) 공연예술축제의 경우

축제 기술 스태프의 구성

축제 기술팀별 역할

3. 테크니컬 라이더

테크니컬 라이더란?

테크니컬 라이더 작성법

1. 제작 일정

제작PD님이 차기공연의 공연장 일정이 잡혔다면서 공연의 기본 제작 일정을 짜보라고 하신다. 이번 공연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연이니 모든 스태프들이 공연 콘셉트를 잘 공유하고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일정을 잡으라고 덧붙이신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일정부터 잡아야 할지 공가 제씨는 참 막막하다. 특히, 기술 스태프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하니 그들의 세세한 작업 일정을 파악해 두어야 할 텐데... 기본 제작 과정이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교과서가 어디 있을까?

!!

기본 일정의 세부적인 작업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순서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원활한 소통은 이 기본 일정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소위 말하는 '펍크'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제 막 현장에 투입된 공가제 씨의 뒤를 쫓아보자.

공연의 제작 일정은 크게 공연기획 단계로부터 연습 단계, 공연 단계, 공연 후 단계로 이어진다. 단계별 각 팀의 기본적인 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 정리된 일정은 대략적인 것일 뿐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

공연기획 단계(Pre-production Period)

기획, 제작

- 공연 대본 또는 악보의 검토와 선정
- 시장세분화, 타깃시장 선택, 포지셔닝
- 경쟁 및 협력 대상의 파악 및 분석
-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 작품에 맞는 공연장 선정 (공연장 정보 수집이 전제)

- 공연가격 책정(대상별 할인율 포함)
- 저작권료 협상
- 연출가, 디자이너와 사전 제작 회의
-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점검(화약 및 총기류)
- 프로그램 자료 수집
- 마케팅, 홍보 실행 계획 수립
- 오디션 공고
- 예산 확정

연출

- 사전 제작회의
- 오디션의 진행(제작감독, 안무가, 음악감독 등과 함께)
- 배역의 발표
- 연습 일정 공고

제작감독/기술감독

- 기획제작자와의 예산 회의
- 연출가, 디자이너, 무대감독과 함께 디자인 미팅
- 무대감독과 기술 스태프 구성

무대감독

- 디자인 미팅 참석
- 오디션 진행
- 연습 장소 마련
- 무대감독 대본과 임시 목록의 작성
- 디자이너와 자료 조사
- 연습용 소품과 장치 준비하기

무대디자이너와 제작

- 사전 제작회의
-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모형(Miniature) 제작
- 소품 및 무대 도면 준비

- 연출가의 승인
- 제작 인력과 작업 계획 마련

조명

- 사전 제작회의
- 대본의 분석
- 무대 의상과 세트에 대해 자료 조사 및 계획

음향

- 사전 제작회의
- 대본의 분석
- 임시로 사용할 음원 선별 준비
- 연출가의 승인

음악

- 악보의 준비(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음악이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연습에 들어 가서도 아직 악보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연출가와 함께 연습 일정 협의
- 연습 피아니스트 섭외
- 가수 오디션
- 오케스트라 준비

안무

- 연습 장소 점검
- 연출가와 함께 연습 일정 협의
- 연습 피아니스트 섭외
- 댄서 오디션

의상디자인과 제작

- 사전 제작회의
- 의상 자료 조사 및 스케치
- 가발, 모자, 신발 등의 실질적인 스케치

- 견본 천 준비
- 가격 선정과 계획

연습 단계(Rehearsal Period) 대략 공연 8주 전부터 2주 전까지

기획, 제작

- ▷ 8~6주 전
 - 효과적 광고와 판촉활동 개발
 - 티켓 유통 체계의 관리
 - 프로그램 자료 수집
 - 홍보자료 배포, 배치 홍보물 전시
 - 필요시 사전 예매 오픈

- ▷ 5주 전
 - 보도자료 배포 시작
 - 홍보 상황 및 예매 현황 모니터
 - 연습 참관

- ▷ 4주 전
 - 객석 스태프 모집 공고(필요한 경우)
 - 비평가 초청

- ▷ 3주 전
 - 매표

- ▷ 2주 전
 - 프레스 리허설과 포토콜(Photo Call)을 위한 언론사 초청 시작

연출

- ▷ 8~6주 전
 - 제작회의: 각 디자이너들과의 토의, 대본 수정, 공연시간(Running Time) 확인
- ▷ 5주 전
 - 동작선 연습(Blocking Rehearsal)
- ▷ 4주 전
 - 동작 연습(Business Rehearsal)
 - 연습용 소품
 - 제작회의 및 디자인 미팅
 - 음향 소스 확인
 - 조명 미팅
- ▷ 3주 전
 - 필요한 경우 가수 및 코러스, 무용수와 동작선 연습(연습 피아니스트 포함)
 - 오케스트라 연습
- ▷ 2주 전
 - 연습 마무리(구체화된 특수 장면, 격투 장면 등 집중 연습)
 - 조명 미팅과 토의
 - 음향효과 확정을 위한 음향 미팅

제작감독/기술감독

- ▷ 8~6주 전
 - 무대장치, 소품, 의상 제작자와의 견적회의
 - 제작회의
 - 예산 협의와 결정
- ▷ 5~4주 전

- 각 기술팀의 진행 상황 조율과 예산 조정

- ▷ 3주 전
 - 진행 상황 점검
 - 장비 수급의 준비
 - 공연장과 접촉
- ▷ 2주 전
 - 제작 일정의 마름질
 - 장비 운송과 반입, 설치 그리고 공연 진행의 준비(인력 중심)

무대감독

- ▷ 8~6주 전
 - 연습 공간 정비와 마킹(Marking)
 - 대본 수정 기록
 - 제작회의와 소품미팅 참가
- ▷ 5~4주 전
 - 연습 진행
 - 연습 소품, 세트, 의상의 조사와 제작
 - 모든 파트와 수시로 접촉
- ▷ 3주 전
 - 기술감독의 진행 상황 점검 회의 참석
 - 연출가와의 음향, 조명 미팅 준비(4주 전부터)
- ▷ 2주 전
 - 초기 런 스루(Run Through)를 조명디자이너가 볼 수 있도록 준비
 - 연출가가 음향 소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장치목록과 큐시트 작성

무대디자인과 제작

- ▷ 8~6주 전
 - 기술감독과 협의하여 제작 계획 수립(대본읽기 연습에 참가)
 - 배우, 스태프와의 워크숍
 - 무대장치와 소품의 제작 개시
- ▷ 5주 전
 - 무대감독과 연락 주고받기, 워크숍(천, 소품류 구매)
- ▷ 4주 전
 - 빌려야 할 장치소품 선택
 - 작화
- ▷ 3주 전
 - 제작해야 할 소품의 스케치와 도면 작성
 - 필요한 경우에는 개조 작업
- ▷ 2주 전
 - 모든 소품류 확인을 위한 미팅
 - 조명미팅 참석

의상디자인과 제작

- ▷ 8~6주 전
 - 첫 연습 참가
- ▷ 5주 전
 - 재고 확인
 - 배우들의 치수 재기
 - 원단 구매
 - 가발 주문

- ▷ 4주 전
 - 1차 재단, 가봉 및 피팅(Fitting)

- ▷ 3주 전
 - 새로운 의상 아이디어를 위해 연습 상황을 수시로 확인
 - 신발 분류

- ▷ 2주 전
 - 액세서리 구하기 또는 구매
 - 2차 혹은 최종 피팅

조명

- ▷ 8~6주 전
 - 제작회의 참석
 - 연습과 연출가, 디자이너, 무대감독과의 긴밀한 협의
 - 프로젝션을 위한 영상 이미지나 사진 작업(특수 조명효과 작업)
- ▷ 4주 전
 - 보유 조명기의 점검
- ▷ 3주 전
 - 연습과 런 스루 참가

음향

- ▷ 8~6주 전
 - 제작회의 참석
 - 연습용 임시 음향소스 준비
- ▷ 5주 전
 - 자료 조사와 계획(보유 장비 확인과 필요한 음향 소스, 소모품류 구매)

- ▷ 4주 전
 - 효과음 준비
 - 연출가와의 미팅

- ▷ 3주 전
 - 효과음 녹음
 - 배우와 함께 녹음
 - 사운드 시스템 디자인
 - 장비 수급

- ▷ 2주 전
 - 공연용 최종 사운드 소스 준비
 - 라이브 사운드의 믹싱(Mixing) 연습
 - 연출가의 소스 확인

음악

- ▷ 8~4주 전
 - 노래 연습 시작
 - 연주 연습 시작

- ▷ 3주 전
 - 연습에 가수 합류

- ▷ 2주 전
 - 연주자들 음향장비 설치하여 연습하기(필요한 경우)

안무

- ▷ 8~6주
 - 무용 연습 시작
 - 격투 장면을 위한 무술 연습 시작

- ▷ 4주 전
 - 무대감독과 무기류 대여

- ▷ 3주 전
 - 무술장면 안무
 - 무용수 연습에 합류

- ▷ 2주 전
 - 무술 격투 장면, 연습에 끼워 넣기

연습 단계 공연 1주일 전

기획, 제작

- ▷ 7일 전
 - 매표구 점검
 - 객석 스태프(FOH Staff) 고용: 어셔(Usher), 판매, 매표

- ▷ 6일 전
 - 객석 스태프 교육
 - 로비 디스플레이
 - 프로그램 인쇄

- ▷ 2일 전
 - 프레스 리허설 & 포토콜

연출

- ▷ 7일 전
 - 공연 소품으로 연습 시작

- ▷ 5일 전
- 런 스루

- ▷ 4일 전
- 조명과 음향 메모리 작업 확인

- ▷ 3일 전
- 테크니컬 리허설(Technical Rehearsal) 참관 후 수정사항 작성하여 무대감독에게 전달

- ▷ 2일 전
- 드레스 리허설(Dress Rehearsal)과 포토콜 참관 후 수정사항 작성하여 무대감독에게 전달

- ▷ 1일 전
- 최종 드레스 리허설 참관 후 무대감독에게 수정사항 전달

제작감독/기술감독

- ▷ 7일 전
- 반입과 설치 등 프로덕션 일정에 대한 관리 감독

- ▷ 6일 전
- 무대설치 진행(조명 매달기 포함)

- ▷ 5일 전
- 일정 진행
- 방염 및 화재 예방 점검

- ▷ 4일 전
- 조명과 음향 세트업 일정 진행에 대한 관리 감독

- ▷ 3일 전
- 테크니컬 리허설 참석

- ▷ 2일 전
- 무대에서의 기술 작업 관리 감독
- 드레스 리허설 참석

- ▷ 1일 전
- 무대에서의 기술 작업 관리 감독
- 최종 드레스 리허설 참석

무대감독

- ▷ 7일 전
- 연습 진행
- 무대감독팀 런 스루 참관
- 장치목록과 큐시트의 정리

- ▷ 6일 전
- 장치 설치나 작화 등등에 대한 협력
- 소품을 배우들이 사용하기에 최적화하도록 위한 점검

- ▷ 5일 전
- 연습실에서 공연장으로의 이동하기(연습실 정리, 분장실 정리 및 배치)
- 큐시트 확정

- ▷ 4일 전
- 무대장치의 점검과 정돈
- 소품 배치
- 조명과 음향 메모리 작업 참석

- ▷ 3일 전
- 장면 전환 연습
- 테크니컬 리허설 진행

- ▷ 2일 전
 - 테크니컬 리허설 진행
 - 연출가의 수정사항 미팅 참석

- ▷ 1일 전
 - 최종 드레스 리허설 진행
 - 연출가의 수정사항 미팅 참석

무대디자인과 제작

- ▷ 7일 전
 - 일정에 따른 장치 설치 및 작화

- ▷ 6일 전
 - 일정에 따른 장치 설치 및 작화 진행
 - 장치와 소품 제작 마감

- ▷ 5일 전
 - 일정에 따른 장치 설치와 작화, 마감 작업

- ▷ 4일 전
 - 조명 메모리 작업에 참가
 - 무대장치의 점검과 정돈

- ▷ 3일 전
 - 테크니컬 리허설 참석

- ▷ 2일 전
 - 프레스 리허설, 포토콜 참석
 - 드레스 리허설 참석

- ▷ 1일 전

- 필요한 경우 추가 및 수정 작업
- 최종 드레스 리허설 참석

의상디자인과 제작

- ▷ 7일 전
 - 의상 점검
 - 가발 확인

- ▷ 6일 전
 - 의상 반입
 - 각 분장실로 의상 배치

- ▷ 5일 전
 - 런 스루 참석

- ▷ 4일 전
 - 런 스루 참석
 - 분장 점검

- ▷ 3일 전
 - 테크니컬 리허설 참석
 - 조명 아래에서 분장 점검

조명

- ▷ 7일 전
 - 조명디자인 확정
 - 조명기 매달기
 - 대여 장비 도착

- ▷ 6일 전

- 조명기 매달기

▷ 5일 전

- 초점 맞추기(Focusing of Lighting)

▷ 4일 전

- 조명 메모리 작업

▷ 3일 전

- 테크니컬 리허설

▷ 2일 전

- 드레스 리허설

- 연출가의 수정사항 미팅 참석

- 수정 작업

▷ 1일 전

- 최종 드레스 리허설

- 수정 작업

음향

▷ 7일 전

- 대여 장비 도착

- 오케스트라와의 음향 기술 연습

▷ 6일 전

- 음향장비 설치

▷ 5일 전

- 런 스루 참석

▷ 4일 전

- 음향 소스 확인 및 수정, 음향 메모리

▷ 3일 전

- 테크니컬 리허설

- 음향 소스 확인 및 수정

▷ 2일 전

- 드레스 리허설

- 음향 소스 확인 및 수정

- 연출가의 수정사항 미팅 참석

▷ 1일 전

- 최종 드레스 리허설

- 연출가의 수정사항 미팅 참석

음악

▷ 4일 전

- 출연진과 오케스트라와의 연습

▷ 3일 전

- 테크니컬 리허설, 피아노 반주만

▷ 2일 전

- 오케스트라와 함께 드레스 리허설

안무

▷ 7~1일 전

- 필요한 경우 안무가가 연습에 참여

공연(The Run)

기획, 제작

- 연출가에게 공연 보고서 전달
- 객석 스태프 점검
- 티켓 판매 상황 모니터
- 무대감독과 긴밀한 연락
- 언론, 평론가 등 특별 게스트 관람 관리

연출

- 공연의 러닝 타임 체크
- 출연진들에게 연출 메모 전달
- 공연 전에 배우들에게 주의사항 전하거나 사기 복돋우기
- 문제점들에 대해서 무대감독과 긴밀한 협의

제작감독/기술감독

- 기획, 제작진과 회계 결산

무대감독

- 무대감독 대본과 각종 공연용 목록에 의한 공연 진행
- 세트, 소품, 장치소품 점검
- 대기역(Understudy) 연습에 대한 관리 감독
- 공연보고서 작성

무대디자인과 제작

- 필요시 보수 작업

조명

- 조명 스태프의 출결 확인
- 공연 전 장비 점검
- 공연 진행

음향

- 음향 스태프의 출결 확인
- 공연 전 장비 점검
- 공연 진행

의상

- 필요시 보수 작업

공연 후(Post Production)

기획, 제작

- 무대감독 대본과 프로덕션의 문서들 정리
- 대본 회수
- 급료 결산
- 공연 정산
-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보고

연출

- 연출대본과 문서의 정리
- 프로덕션에 대한 리포트와 문서 자료들 취합
- 출연진과 각 파트 별 연락처 정리

제작감독/기술감독

- 장비 반출과 인력, 운송 방법 마련
- 장비 반출과 보관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 대여 장비 반납 관리
- 기획, 제작진과 마지막 결산

무대감독

- 소품, 의상, 장치소품 철수
- 대여 장비의 반납 책임

- 무대감독 대본과, 각종 목록, 도면 등을 취합하여 기획, 제작진과 정리

무대디자인과 제작

- 제작감독과 보관/폐기할 것을 분류

조명

- 조명장비의 철수/보관
- 대여장비의 반납
- 조명 도면과 각종 문서 자료의 정리

음향

- 음향장비의 철수/보관
- CD/MD/DVD 등 공연 음향소스의 분류, 보관
- 대여 장비 반납

의상

- 의상 세탁/보관
- 의상 제작 서류 정리

TIP 기본 제작 일정 요약표

기능	공연 기획 단계	공연	공연 후
기획/제작	공연대본 또는 악보검토와 선정 시장세분화, 타깃시장 선택, 포지셔닝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작품에 맞는 공연장 선정(공연장 정보 수집이 전제) 공연가격 책정(대상별 할인율 포함) 저작권료 협상 연출가, 디자이너와 사전 제작회의 면허, 허가가 필요한사항 점검(화약, 총기류) 프로그램 자료 수집 마케팅, 홍보 실행 계획 수립 오디션 공고 예산 확정	연출가에게 공연보고서 전달 객석스태프 점검 티켓판매상황 모니터 무대감독과 긴밀한 연락 언론, 평론가 등 특별 게스트 관람 관리	무대감독대본과 프로덕션 문서 정리 대본 회수 급료 결산 공연 정산 결과 보고서 및 보고

연출	사전 제작회의 오디션 진행(제작감독, 안무가, 음악 감독과 함께) 배역 발표 연습일정 공고	공연의 러닝타임체크 출연진들에게 연출메모 전달 공연 전, 배우들에게 주의사항 전달 문제점들에 대해서 무대 감독과 긴밀한 협의	연출대본과 문서정리 프로덕션에 대한 리포트와 문서자료를 취합 출연진과 각 파트별 연락처 정리
제작감독/ 기술감독	기획제작자와 예산회의 연출가, 디자이너, 무대감독과 함께 디자인미팅 무대감독과 기술 스태프 구성	기획, 제작진과 회계 결산	장비반출과 인력, 운송방법 마련 장비반출과 보관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대여 장비 반납 관리 기획, 제작진과 마지막 결산
무대감독	디자인미팅 참석 오디션 진행 연습장소 마련 무대감독대본, 임시목록 작성 디자이너와 자료조사 연습용 소품과 장치 준비	무대감독대본과 각종 공연용 목록에 의한 공연 진행 세트, 소품, 장치소품점검 대여연습에 대한 관리감독 공연보고서 작성	소품, 의상, 장치소품 철수 대여 장비 반납 무대감독대본과 각종 목록, 도면 등을 취합하여 기획, 제작진과 정리
무대디자인/ 제작	사전 제작회의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모형 제작 소품 및 무대도면 준비 연출가의 승인 제작인력과 작업계획 마련	필요시 보수 작업	제작감독과 보관/폐기할 것을 분류
조명	사전 제작회의 대본 분석 무대의상, 세트에 대해 자료조사, 계획	조명스태프의 출결 확인 공연 전 장비점검 공연 진행	조명장비의 철수/보관 대여 장비의 반납 조명도면과 각종 문서자료의 정리
음향	사전 제작회의 대본 분석 임시로 사용할 음원 선별 준비 연출가의 승인	음향스태프의 출결 확인 공연 전 장비점검 공연 진행	음향장비의 철수/보관 CD/MD/DVD 등 공연음향 소스 분류 및 보관 대여 장비의 반납
음악	악보 준비 연출가와 함께 연습일정 협의 연습피아니스트 섭외 가수 오디션 오케스트라 준비		
안무	연습장소 점검 연출가와 함께 연습일정 협의 연습피아니스트 섭외 댄서 오디션		
의상 디자인/ 제작	사전 제작회의 의상 자료 조사, 스케치 가발, 모자, 신발 등 실질적인 스케치 건본 천 준비 가격 선정과 계획	필요시 보수 작업	의상세탁/보관 의상제작서류정리

2. 구성과 작업

1) 단일 공연의 경우

공기제 씨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제작을 앞두고 다양한 역할의 기술 스태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되는지 궁금하면서도, 감을 잡을 수 없어 막막하다. 물론 구성이야 제작감독님과 워분들이 잘 해주시겠지만, 앞으로 제작 진행에 참여할 공기제 씨로서는 기술 스태프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명확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전문 용어들로 인해 세부적인 작업 내용을 파악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다. 여러 다른 뮤지컬 프로그램 북을 쌓아두고 참고도 해보았지만, 명칭도 조금씩 틀리고 구성도 다양했다. 그래서 일단은 겹치지 않는 명칭을 가지치기 하듯 보면서 필수적으로 중복되는 기술 스태프의 구성안을 그려보기로 했다. 그리고 가지치기된 스태프의 명칭들은 옆에 나열하여 그 뜻을 알아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진정 기술 스태프의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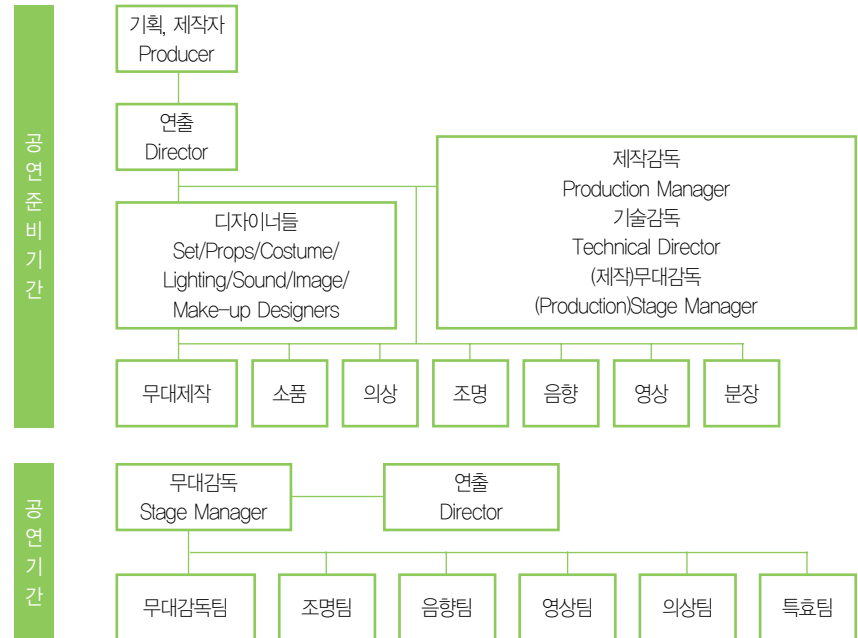
해당공연에 알맞은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명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장 작업에 투입되기 전, 공기제 씨가 쏟은 노력은 마치 영단어를 알기위해 사전을 한 장씩 씹어 먹던 그 옛날의 입시생들을 생각나게 한다. 기본적으로 무대, 조명, 음향을 구성하는 기술 스태프는, 공연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무대 위에 구현되기 시작하면서, 현재 기술 스태프들의 역할이나 구성만큼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기술 스태프들은 작업을 하면서 서로 얼굴한번 못 마주칠 정도로 분업화되어 있기까지 하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대거 투입될 때에는 무엇보다 기술 스태프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 효율적인 조직 구성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해준다. 분업화된 현장은 공연의 콘셉트를 제대로 구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목표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기제 씨처럼 예습을 통해 현장 작업을 하게 되면 기술 스태프의 역할들이 또렷이 보일 것이고, 기술 스태프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기술 스태프의 구성

일반적인 기술 스태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작품을 정하고 공연 날짜와 공연장이 정해지기까지는, 아직 연출가가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다. 그가 우선적으로 꾸려야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디자이너를 섭외하는 일이다. 연출가들에게는 함께 손발을 맞춰왔던 디자이너들이 있다. 작품에 맞는 디자이너를 끌어들이는 일은 연출가의 권한이자 능력이다. 물론 기획자나 제작자가 든든한 배경이 되어야 한다. 연출가와 디자이너는 이미지를 창조하고 프로덕션이 가질 스타일을 정한다. 디자이너들은 아이디어를 모형 세트와 의상 및 소품 스케치의 형태로 제안할 것이다.

제작감독이 있다면 기획팀에게서 프로덕션 예산을 할당받는다. 만일 기술감독이 없다면 제작감독은 유능한 기술감독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개 이 기술감독에게는 한 팀처럼 움직이는 무대감독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제작스태프가 꾸러지면 기획자, 제작감독, 연출가, 디자이너, 기술감독, (제작)무대감독이 참여하는 디자인 회의를 열 수 있다. 이제 프로덕션의 진행 사항이 생겨난다. 연출가와 디자이너는 그들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제작감독은 가능한 인력과 시간, 예산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디자이너는 각자 파트의 디자인을 제작하는데 드는 돈과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 견적을 낸다. 그 결과 디자이너가 너무 비싸거나 프로덕션의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면, 연출가와 디자이너는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디자인 회의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프로덕션의 예산에 맞춰 모든 것들은 재조정된다. 예산에 줄이기 위해 끼워 맞추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은 부문에서 덜어 더 필요한 데에 더해주는 식이 바람직하다.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디자이너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고 실질적인 밑그림과 도면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제작감독은 연출가와 일정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면 프로덕션을 위한 제작팀과 기술 스태프들이 구성되기 시작하여 보다 구체적인 일정이 생겨날 것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대제작팀을 정하는 권한은 무대디자이너에게 있다. 어떤 곳은 작화를 잘하고, 어떤 곳은 목공작업을 잘하며, 어디가 대형 장치를 제작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어서, 작품에 맞는 곳을 선정하게 된다. 제작된 장치의 운송과 설치, 철수까지는 무대제작팀의 몫이며, 보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품디자이너나 의상디자이너는 대부분 직접 소품과 의상을 만드는 각자의 팀을 꾸리고 있다. 마찬가지로 분장디자이너도 함께 일하는 분장팀을 거느리고 있다. 이들 분야는 디자이너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팀이 꾸려지는 셈이다.

그런데 소품디자이너가 무대디자이너와 구분되어 있는 프로덕션은 그리 많지 않다. 무대디자이너가 소품의 디자인까지 아우르는 게 보통이다. 한편 공연진행을 위한 의상관리자(Wardrobe)나 의상전환수(Dresser)를 기획팀이나 무대감독팀에서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조명팀은 조명디자이너가 조명감독을 섭외하면서부터 구성된다. 작업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결정될 것이고, 이들 역시 오랜 작업을 통해 팀워크를 쌓아왔을 것이다. 세트업 시간과 작업의 양에 따라 조명감독은 필요한 인력을 끌어들이고, 공연 때는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남긴다. 철수 때도 작업량에 따라 인력이 고용될 것이다.

음향의 경우 장비의 수급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장비를 대여해야 할 경우, 설치 및 운영 등 많은 부분이 렌탈업체 소속의 엔지니어와 스태프들에게 돌아간다. 공연장에서 보유한 장비만으로도 충분할 때는, 공연장 소속 기술 스태프의 도움을 받고, 세트업과 공연을 진행할 인력만 꾸리면 될 것이다. 이러한 결정들이 공연의 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음향감독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음향감독과 음향디자이너(Sound Designer)의 관계는 다른 팀의 경우와는 조금 상이하다. 작곡가와 음악감독, 음향디자이너의 역할은 분명히 서로 다르고, 아직 음향디자이너의 역할이 널리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음향감독에게 음향디자인의 책임이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물론 그들에게는 충분히 이를 소화할만한 능력이 있다. 하지만 음향디자이너와 음향감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영상 역시 장비 수급과 관련이 있다. 디자이너가 시스템의 디자인과 공연 진행 전반까지 맡는 게 일반적이고, 렌탈회사가 장비의 설치와 유지를 담당한다. 영상과 관련한 장비가 다양해지는 요즘의 추세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솔루션을 가진 업체가 참여하기도 한다.

한편, 라이선스 공연의 경우 원작의 디자인까지 라이선스에 포함되면 수퍼바이저라는 역할이 각 분야의 제작 진행을 책임지게 된다. 공연 뿐 아니라 각 분야의 디자인까지도 저작권의 개념이 적용된 결과인데, 심지어 무대감독의 큐까지도 포함되기도 한다. 뮤지컬 ‘헛’에서는 의상의 소재까지 지정되어 있어, 반드시 호주산 어떤 품종의 양털만을 사용해야 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주문이 아니더라도, 디자인과 제작에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디자이너들이 주로 수퍼바이저로 참여하게 된다.

기술팀별 업무의 흐름

장치제작팀의 워크플로우

- 작품 분석
- 작품 콘셉트(Conception)
- 무대디자인 초안 완성
- 도면 작성: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요즘은 주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 모형 제작(미니어처)
- 초안 협의: 연출가, 각 디자이너, 안무가, 제작감독, 기술감독, 무대감독 등과 함께
- 시방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재료 분류와 품목 작성

- 재료, 도구 구입
- 장치제작소 전달: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제작도면 등
- 장치제작감독 계획
- 도면 분석
- 제작 방법 결정
- 보관 장치 재사용 계획
- 제작일정 계획
- 재료 조달 계획
- 조달
- 재사용 보관 장치 조달
- 신규 재료 조달
- 제작
- 목공일
- 화공일
- 철공일
- 가공
- 부품 부착
- 작화
- 방염 처리: 방염소재로 제작하지 않았다면, 전문업체를 통해 사후 방염처리를 거쳐야 한다.
- 시험 조립
- 반입
- 설치
- 전환연습
- 기술연습
- 공연
- 철수
- 반출
- 분해
- 분류
- 보관

의상팀의 워크플로우

- 작품 분석: 시대, 양식 파악, 고증
- 주제 파악
- 전체적인 색감, 천의 질감 등을 선택
- 인물분석: 등장인물 수, 성별, 나이, 신체조건, 교육, 직업, 가정 배경, 사회적 조건
- 스케치
- 시장조사
- 시방서 작성
- 본(本) 제작
- 재단
- 가봉
- 재봉
- 총연습
- 공연
- 정리
- 세탁

조명팀의 워크플로우

- 작품 분석
- 자료조사
- 디자인회의
- 기술 자료조사: 극장 평면도, 극장 단면도, 조명회로도, 조명장비 파악
- 조명 예산 계획
- 제작회의
- 조명 개념 확정
- 장면별 조명 이미지 구상
- 극장 답사
- 극장 조명장비 재고 실제 조사
- 연습 참관
- 런 스루 참관
- 조명계획도(Light Plot)
- 조명 관련 서류작업: 장비 목록, 컬러 목록, 그룹 목록, 큐시트 등

- 조명장비 대여
- 극장 반입
- 조명 설치
- 회로 연결
- 빛 맞추기(Focusing): 빛의 위치, 크기, 모양, 조명기 고정
- 가(假) 메모리 작업
- 기술연습
- 수정작업
- 총연습
- 공연
- 철수
- 조명장비 반납

음향팀의 워크플로우

- 제작회의 참여
- 콘셉트
- 음향 효과 자료 점검 및 구매
- 음향 장비 대여(필요한 경우)
- 특수 음향 효과 녹음
- 음향 편집
- 공연장 자료 조사 및 답사
- 음향 시스템 디자인
- 공연용 음향 장비 대여(악기 포함)
- 장비 반입
- 장비 설치 및 조정(스피커, 앰프, 콘솔, 주변기기)
- 악기 설치
- 기술연습, 수정
- 총연습
- 수정 확정
- 최종 연습
- 무대 위 기술점검
- 진행 스태프 점검

- 악기, 장비 최종 점검
- 공연진행
- 장비 철수
- 기기 이상 유무 점검

무대감독팀의 워크플로우

- 일정 계획
- 제작회의 참석
- 작품 분석
- 오디션 및 연습실 준비
- 연습의 진행: 연습 일정 진행, 연습일지, 무대동작선(Blocking) 정리, 장면배치도, 소품 목록, 전환목록 등
- 무대감독 대본: 연습과정에서 수정 내용 기록하여, 이후 프롬프트 북 완성
- 큐시트(Cue Sheet) 작성
- 런 스루(Run-Through)
- 소품 최종 점검
- 페이퍼 테크(Paper Tech): 각 분야 책임자와의 큐시트 최종 점검
- 마스터 큐시트(Master Cue Sheet)
- 세트업 일정 진행: 무대설치, 조명, 음향, 영상 등 각 부문 일정 진행
- 전환 연습
- 무대 정리: 마킹, 동선 확보, 소품 테이블 등 공연을 위한 무대 뒤 정리
- 테크니컬 리허설
- 드레스 리허설
- 공연
- 철수 진행
- 프롬프트 스크립트
- 결과 보고서

2) 공연예술축제의 경우

제작 파트에서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2편, 중극장 창작뮤지컬 1편을 경험을 한 공기제 씨는 문화사업팀으로 파견되어 00지역에서 주최하는 야외공연 위주의 공연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다. 제작부에서 세 편의 공연 진행을 경험했기에 약간의 자신감이 붙은 공기제 씨는 00지역 공연 페스티벌의 기본 계획안을 기본 좋게 훑어보았다.

헉! 공기제 씨는 그만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공연은 극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내 야외 공연장, 소규모의 수상무대, 그리고 길거리 공연 등 총 3곳의 야외무대와 2곳의 실내공연장에서 벌어질 계획이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단체의 공연들이 함께 올라갈 텐데, 기술팀들도 공연단체만큼 구성해야 하는 것인가? 보다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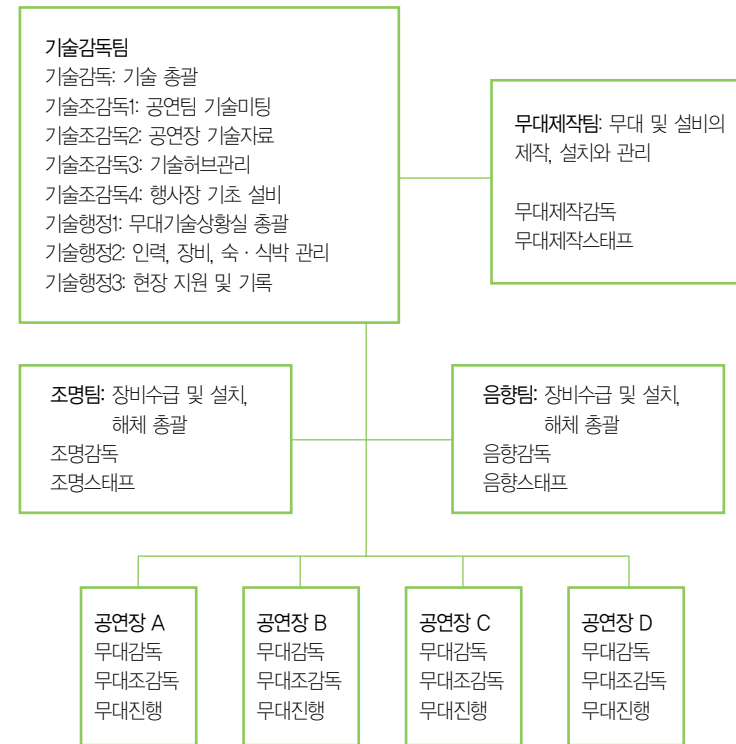
!!

이미 세 편의 공연 제작에 참여한 공기제 씨는 기술 스태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혔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조건과 환경을 갖는 공연예술 분야는 무엇이든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 공기제 씨는 파견 당시 제작PD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여러 편의 공연이 동시에 진행되고, 특히 정규 시설의 공연장이 아닌 야외무대까지 운영하는 공연 페스티벌의 경우에는, 돌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에 대비한 조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기제 씨는 그 말씀을 두루 떠올리며 축제가 이루어지는 공원과 수상무대, 길거리를 둘러본다. 그리고는 앞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처하는 스태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 시작했다.

축제 기술 스태프의 구성

다음은 공연예술축제의 일반적인 기술팀 구성이다.



공연예술축제(Performing Arts Festival)는 일정 기간 안에 몇몇 공연장에서 이미 완성된 여러 공연을 소화하게 된다. 하루나 이틀 정도의 세트업 기간에 이삼일간의 서로 다른 공연들이 같은 날 여러 곳의 공연장에서 동시에 올라가기도 하는 등 톱니처럼 엮갈려 돌아가는 일정을 만난다. 야외 공연의 경우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장비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게다가 노출된 공간과 주변 소음, 날씨의 변화, 심지어 조명을 향해 모여드는 곤충 등 예측할 수 없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기술 스태프들에게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집약시켜 일정을 지켜나가되, 각각의 공연에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협의에 따른 조율에 대단히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축제의 기술 스태프들은 공연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공연이건 배정된 공연장에서 성공적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축제 기술팀별 역할

공연예술축제의 기술팀은 일반적으로 기술감독팀과 무대제작팀, 조명팀, 음향팀, 무대감독팀으로 이뤄진다. 하나의 공연을 제작할 경우 막을 올리기까지 최소 몇 달의 연습과 제작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축제에서도 관객들을 만나기까지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을 필요로 한다. 이 기간 동안 기술감독팀은 각 공연팀과 배정된 공연장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 무대기술적 사항들을 조율하게 된다. 또한 무대제작팀과 조명, 음향팀, 무대감독팀이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인력과 장비를 수급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책임을 진다.

기술감독팀

공연예술축제의 무대기술 부문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공연일정을 바탕으로 제작일정을 정리하고 진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작품의 테크니컬 라이더를 검토하여 축제의 무대기술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든다. 각 공연장의 기술정보를 정리하고 참가 공연팀과의 기술미팅을 통해 장비와 인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 장비와 인력, 소모품 등을 운영하는 기술허브를 운영하고, 무대기술상황실을 총괄하여 일정의 진행을 관리한다. 기술감독과 몇 명의 기술조감독, 다수의 기술행정스태프로 짜인다.

무대제작팀

무대제작팀은 축제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역할이 다르다. 공연에 사용할 장치나 소품을 만드는 일만을 하기도 하고, 축제의 기본 무대 설비를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업무만을 맡기도 한다. 해외팀이 참가하는 축제의 경우, 운송의 문제로 장치를 제작해야 하는 작품들이 있기 마련이다. 한편, 야외공연 위주의 축제는 무대를 만들고 공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두루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제작팀이 필요하다. 무대제작감독이 따로 있고 무대제작소에 의뢰하기도 하고, 무대제작소가 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조명팀

조명감독은 기술감독과 함께 공연장의 조명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각 공연팀과 기술미팅을 수행한다. 축제 전체의 조명 진행을 위해 해당 공연장별, 작품별 장비와 인력의 수급, 관리를 책임진다. 조명감독과 설치와 철수 진행을 위한 조명스태프 등으로 짜인다.

음향팀

음향팀의 구성도 경우마다 다른데, 음향감독과 음향장비렌탈업체의 조합이 일반적이다. 음향감독은 기술감독과 함께 공연팀과 기술미팅을 통해 작품별 음향기술정보를 정리하여 전체적인 장비 및 인

력 계획을 만든다. 이를 통해 음향장비렌탈업체는 장비와 엔지니어 인력을 제공하여 공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무대감독팀

공연예술축제의 무대감독은 공연의 진행보다는 각 작품이 해당 공연장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책임을 맡는다. 보통 공연장별로 혹은 작품별로 무대감독팀이 배치되는데, 기술감독팀을 통해 사전에 정리된 기술정보에 의거해서 맡은 공연의 기술미팅과 공연장과의 미팅을 주도하고, 일정에 따른 진행을 위한 매니지먼트를 수행한다. 무대감독과 한둘의 무대조감독, 다수의 무대진행인력으로 이뤄진다.

TIP 공연예술축제의 일반적인 작업과정

기획	기술
기초조사 운영원리 파악, 분석 예산 비용 규모 파악 비용 확보방안 모색 목적, 목표 설정 공연단체 조직 및 작품 분석 예산 수립 재원 확보 공연장 조사(지명도, 규모, 공연실행 적합성) 공연제안서 발송 공연장 계약조건 협의 공연장 계약 숙소 조사 숙소 결정 및 계약 자막 제작 항공 예약 입국서류 준비 보험 계약 현지 식사 계획 참가자 정보 수합 참가자 사전 브리핑 진행 운송계획 수립 및 운송서비스 계약 언론 홍보 진행 일별 관객 및 티켓 현황 파악 프로모터 접촉 공연 초대 티켓 판매금 정산 및 수령 결산 및 평가회의 결과보고서 작성	작품의 기술자료 분석(테크니컬라이더 검토, 영상자료) 공연팀과 기술 협의 공연장 기술자료 검토 공연장 답사 공연장 무대의 크기 파악 공연장 객석 크기 파악 공연장 제작도면 작성 각 파트별 도면 체크 시간선 체크 기술부문 예산 산출 공연팀과 기술미팅 장치 및 기타 제작 발주 무대 및 객석 발주 제작 일정 협의 및 확정 전기 수급 계획 작품별 기술협의서 구매품 목록 필요 장비 목록 음향 및 조명 대여 장비 발주 연습실과 분장실 등 편의시설 계획 필요 장비 및 소모품 구매 인력 배치 무대 및 객석 설치 전기 시설(발전차) 조명 및 음향 설치 세트업 공연 철수 결과보고서 작성

3. 테크니컬 라이더

공기제 씨가 한창 수상무대를 둘러보고 있을 때였다. 빠리락! 빠리리리락! 빠리락!
“참, 깜빡했는데 공연장 답사하면서 OO지역 공연예술제 준비위원회에 들어서 해외초청팀
테크니컬 라이더를 받아 기술팀에 넘겨줘.” 뽁! 그대로 기획실장님의 전화가 끊어졌다.

뭐라고? 라이더? 킥서비스와 관련된 공연인가? ‘테크니컬 라이더’, 잊어버리기 전에
수첩에다 적어 놓는다. 이름은 멋있는데, 뭐하는 놀일까?

!!

공기제 씨는 OO지역 공연예술제 준비위원회에 들어서 ‘테크니컬 라이더’라는 것을 받아두고
기술감독님에게 전달한다. 영어로 이것, 저것 표기된 문서다. “감독님, 이게 대체 무슨 서류예요?” 공기
제 씨의 질문에 기술감독님은 씩 웃으시며, “이거? 아주 신비한 마법 같은 서류지”라며, 문서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공연장에서 실제 공연하는 모습이 영상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말씀을 덧붙이신
다. “네? 설마..., 저 서류 하나로 공연이 떠오른다고요?” 의아해하는 공기제 씨에게 기술감독님은 “공
기제 씨도 나중에 이거 하나 있으면, 공연을 보지 않고도 어떤 공연이 무대에 오를지 꼭 알 수 있을 거
야.”라는 말씀을 남기고 급하게 사무실을 나가신다.

테크니컬 라이더란?

‘OISTAT’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cenographers, Theater Architects and
Technicians)라는 이름의 ‘무대미술가와 극장건축가 및 무대기술인들의 국제기구’에서 펴낸 “NEW
THEATRE WORDS”를 보면, 테크니컬 라이더(Technical Rider)는 ‘(추가)기술 조항’으로 번역되어
있다. 부연하자면 작품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정리한 문서라 할 수 있다. 보통 계약서에 달려, 공연을
하기 위한 조건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게 된다. 이런 성격의 문서를 통칭하여 라이더(Rider)라고 하는
데, 크게 기술적 조항들이 정리된 테크니컬 라이더와 접대와 관련된 사항이 담긴 호스피탈리티 라이더
(Hospitality Rider)로 구별한다.

내용

테크니컬 라이더는 공연을 촬영한 영상 외에 하나의 완성된 공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배우나 무용수가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담겨 있다.

지난 2008년 한국투어를 가졌던 <알레그리아>(Alegria, Cirque de Soleil)는 컨테이너 65대 분량의
설비가 옮겨졌는데, 전화번호부 크기의 파일로 십여 권에 달하는 라이더에는 어디에 어떤 모양과 크기
의 나사못을 써야한다고 정리될 만큼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 무대: 무대의 형태, 크기에 대한 요구 사항
- 무대 세트: 무대 세트의 위치와 크기에 대한 설명. 도면과 스케치, 이미지 등이 첨부
- 소품: 소품 관련 요구 사항
- 조명: 조명 콘솔과 디머, 조명기 및 필터 관련 요구 사항. 조명 도면 첨부
- 음향: 음향 콘솔과 PA시스템, 마이크 등 요구 사항. 채널 및 장비 리스트, 블록 다이어그램 첨부
- 영상: 영상장비의 목록 및 배치
- 의상: 의상 관리에 필요한 요구 사항과 인력
- 기타: 공연 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요구 사항과 인력

쓰임새

국내 투어 공연에서도 환경의 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부지기수
이다. 하물며 해외 공연은 의사소통의 문제뿐 아니라 무대의 환경이나 작업 방식 등이 낯설 수밖에 없
다. 낯선 환경에서 제한된 시간에 안전하고 완벽하게 공연을 올리려면 사전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
야 한다. 잘 정리된 테크니컬 라이더는 이러한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마치 장난감을 조립하는데
꼭 필요한 설명서와 같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한 설명서라 할 수 있다.

가. 테크니컬 라이더가 검토되어야 할 시점

계약서에 따라오는 문서라는 것은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뜻이다. 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라이더의 내용을 살펴보고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제작감독이나 기술감독을
통해 그 내용을 분석하면, 구체적인 작업 일정과 비용의 추산이 가능하다.

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협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무대의 세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대의 크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혹은 무대
의 형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고,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운송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지, 그렇다면 완성된 세트를 운송해 오는 것이 좋을지 현지에서 제작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수
있다. 비슷한 예산이라면 운송비로 쓰여 공연계 바깥으로 지출되는 것보다는 제작을 하는 것이

공연계에 더 좋을 것이다. 장비의 경우 대부분 대여를 통해서라도 갖출 수 있겠지만, 만일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분명하게 알리고 그에 따른 예산의 변화에 대해 협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 협의의 근거

협의의 결과에 따라 테크니컬 라이더에는 버전(Version)이나 날짜가 표시된다. 이러한 협의는 주로 기술 스태프들에 의해 진행되겠지만, 매번의 진행 결과에 대해서 기획제작 스태프들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책임의 소지를 가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협의를 위해 주고 받은 모든 이메일과 테크니컬 라이더는 저장해 두어야 한다.

라. 행간 읽기

기술 스태프에게 테크니컬 라이더는 세팅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대상이다. 구입해야 할 물품이나 소모품 등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조명이나 음향장비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비슷한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장비의 운용을 둘러싼 환경의 차이, 예를 들면 전압이나 그에 따른 전기 관련 규격의 차이, 영상에서 NTSC와 PAL 규격의 차이 등이 오히려 문제 발생의 소지가 크다.

사실 이런 부분은 테크니컬 라이더를 통해 미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들이 불거져 나온다면 서로 책임을 가려야만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테크니컬 라이더 작성법

General Description (일반정보)

공연의 전반적인 개요, 포괄적인 요구사항, 공연의 특이사항, 연락처, 공연일정, 작업시간 등을 명기한다.

- 공연명
- 공연시간: 전반 00분, 휴식 00분, 후반 00분 / 총 0시간 00분
- 단체명

- 연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투어매니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술감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출연자: 주역 00명, 조역 00명 / 총 00명
- 제작 스태프: 각 분야 스태프 이름, 주소, 이메일 등
- 무대설치, 리허설 필요시간(일정)

Stage(무대 관련 요구사항)

- 무대형태 (ex. 프로시니엄 무대, 블랙박스 무대)
- 무대 사이즈 관련: 무대의 최소 크기, 최소 프로시니엄 오프닝 등
- 극장 리깅 시스템(Rigging System) 관련
- 극장막(Drapery) 및 장치막(Drop) 관련: 색상, 개수, 주름(Fullness) 여부 등
- 무대바닥 관련 사항: 재질, 색상, 청소 등
- 출연자의 출입에 관한 사항: 뒷무대 통로 유무, 통로 바닥의 상태
- 기타 무대 관련 요구: 댄스 플로어(Dance Floor) 색상, 사양 등
- 편의시설: 공연장의 온도, 온수, 샤워시설 등
- 특별 관리가 필요한 요구사항: 물, 불, 특수 화학물질 등의 국가별 취급 허가 사항

Scenery(무대 세트 관련 요구사항)

- 무대 세트의 위치, 크기, 재질 등
- Line Set Schedule(상부기계 사용 계획)

Line set No. (상부기계 번호)	Fly piece (세트)	Distance from (부터의 거리)	Trims (공연 중 작동여부)	비고

- 무대 도면 및 이미지 첨부

Props(무대 소품 관련 요구 사항)

- 필요소품, 소품 개수 등

Lighting(조명 관련 요구사항)

- General(일반 사항): 필요한 전원의 용량, 전압, 플러그 형태, 정상 작동 가능한 케이블, 어댑터, 플러그 등의 요구 사항을 기재
- Lighting Console(조명 콘솔 관련 사항): 모델명, 사양, 개수, 위치 등
- Dimming and Distribution(디머 관련 사항)
- Units: 개수, 조명기 사양, 액세서리 등
- Colors(필터 관련 사항): 종류, 색상, 개수 등
- Gobo(고보): 패턴 종류, 개수 등
- Special Effect(특수 효과): Smoke Machine, Diffusion Fog, Haze Machine, Dry Ice 등
- Miscellaneous(기타 사항): 케이블, 컬러 스크롤러 등
- Lighting Plot(조명도면)

Audio(음향)

- General(일반 사항)
- Console(콘솔 관련 사항)
- Processor(프로세서)
- Play Back(재생기 관련 사항)
- Amplifiers(앰프 관련 사항)
- Speakers(스피커 관련 사항)
- Microphones(마이크 관련 사항)
- Misc Cable and Adaptors(케이블과 어댑터)
- Miscellaneous(기타 사항)

Communications(커뮤니케이션) - Intercom System(인터콤 관련 사항)

- 인터콤: 종류, 수량, 위치, 유선, 무선, 헤드셋, 핸드프리, 스피커 타입 등
- 큐라이트: 수량, 위치 등
- 무전기
- 분장실, SM Desk, ORC Pit, 무대 위 등의 비디오 및 오디오 모니터, CCTV 사항

Video System(영상 관련 사항)

- General(일반 사항)
- Input and Preview
- 영상관련 장비의 목록 및 타입(NTSC, PAL)
- 스크린이나 모니터의 종류 위치
- Control and Monitor(모니터 관련)
- Distribution(분배 관련)
- Projection(프로젝터 관련)
- Miscellaneous(기타 사항)

Wardrobe(의상 관련 사항)

- General(일반 사항)
- 의상실 개수, 보유 물품 항목 등
- 의상 스케치 혹은 이미지
- 의상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 및 의상 도우미의 필요 유무

분장실, 사무실(Dress Room, Production Office)

- 최소 분장실의 크기별 개수
- 분장실의 냉 온수, 샤워실(온수), 전기, 수건, 비누, 라커룸, 귀중품보관 등
- 스태프를 위한 분장실, 인터넷, 팩스 등
- 프로덕션 사무실, 국제전화, 인터넷, 팩스, 복사, 회의탁자 등

스태프 요구사항

- Theatre Crew

필요 분야	Load In 장비 반입	Set Up 세트업	Show Call 공연 중	Strike 철수	Load Out 장비 반출

- 무대 상하부 조작인원, 조명, 무대, 의상, 가발, 분장실 도우미, 세탁, 안내인, 보디가드 등
- 성실한 인력 필요, 전문가, 검은 옷, 출퇴근시간, 해고권한 등 필요한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내용

기타

안전보장(Security)

- 장비의 분실 도난의 책임
- 출연자 및 스태프의 안전보장
- 안전한 주차 공간의 확보

Hospitality(케이터링 관련)

- 공연 전후 필요한 야식 및 간식, 분장실의 음료수 및 커피, 차 등

Photography/Recording(사진 촬영/녹화 관련 사항)

- 공연의 사진촬영 및 리허설 촬영 및 상업성 촬영에 관한 규정

Wardrobe/Hair(의상, 헤어 관련)

- 세탁기, 건조기, 다리미, 드라이클리닝 등에 관한 요구사항

Required Documents(필요 서류)

- 주최 측 명단
- 공연장 스태프 명단
- 공연장 정보(도면 및 장비 목록)
- 공연장 주변 및 숙소의 정보, 안마사, 병원, 물리치료사, 슈퍼마켓, 옷가게, 전기 재료상, 건축자재, 약국, 주유소 등

TIP 호스피탈리티 라이더(Hospitality Rider)

보통 테크니컬 라이더에 아티스트의 접대와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되는데, 보다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테크니컬 라이더와 별도의 문서로 정리된 것을 호스피탈리티 라이더(Hospitality Rider)라고 한다. 여기에는 주로 공연 때 아티스트에게 기운을 북돋아 위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 아티스트의 기호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은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상업적이고 규모가 큰 공연일 경우, 숙박이나 차량, 분장실의 데코레이션(Decoration)까지 지정하는데, 매우 부담스러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일반적인 호스피탈리티 라이더의 요청사항이다.

- 특정 먹을거리, 간식
- 특정한 차와 음료(술 포함)
- 수건
- 교통수단과 숙박
- (쇼핑이나 관광을 위한) 안내인
- 무료초대권
- 보안시설과 잠금장치에 대한 요구
- 열음

IV. 극장의 이해

1. 극장의 기본 구조

좋은 극장

극장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

극장 기술 정보

2. 극장의 장비들

무대시설의 구분

상부설비

하부설비

조명 장비

음향 장비

영상 장비

기타 장비

3. 안전

무대에서의 안전

관련 법규

무대예술전문인제도

1. 극장의 기본 구조

OO지역 공연예술제에 선정된 공연은 총 20편이다. 연극, 밴드 공연, 음악공연, 거리극 등 다양한 공연들이 선정되었다. 기획실장님께서 2곳의 실내공연장에 들어갈 공연을 배정하고, 다른 공연들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할 야외무대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씀하신다. 우선 공연장 특성에 맞게 공연단체를 분류할 수 있도록 극장답사를 하여 모레 오전까지 분석결과를 보고하라고 하신다. 실장님께서 공기계 씨의 능력을 과대평가 하시는 건 아닌지, 김 팀장님도 출장 중이신데... 공연장의 종류와 그에 맞는 공연들을 과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아! 다시 한 번, 기술감독님께 도움을 요청해보자. 기술감독님은 우선 공연장 도면을 받아오라고 하신다. 공연장 직원은 공기계 씨에게 어느 팀에서 왔는지 묻고는 친절하게 도면을 건네주었다. 공기계 씨, 회사로 돌아와 받은 도면을 드렸더니, 기술감독님은 약간 당황해하며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본다. “이게 도면이야?” 공기계 씨 왈, “객석과 무대 다 그려져 있는데, 도면 아닌가요?” 그에게 돌아오는 말, “기술팀에게 좌석 등급 구분해달라고 할거야? 다시 돌아가 진짜 도면 갖고 와!” 공기계 씨는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만다. ‘아, 도면 맞는데... 진짜 도면이라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

공기계 씨가 앞에서 접했던 테크니컬 라이더는 공연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자료다. 마찬가지로 공연장에 대한 정보 역시 공연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거기에는 기획/홍보/기술 파트 즉, 무대, 조명, 음향, 기계, 하우스 등의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공연을 제작할 때, 극장의 환경과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공연의 질적인 조건을 담보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대관정보를 비롯하여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 정보, 공연장의 입면도 및 평면도, 무대 평면도, 조명도면, 음향도면, 연습실 및 분장실 이용 규정, 매표소 및 로비 이용 규정 등 공연의 제작부터 진행과 관련된 것들이다. 기술감독님은 “기술 뿐 아니라 기획, 홍보, 진행 등 모든 분야에서 작품이 ‘디자인’ 되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연장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획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느덧 공기계 씨는 공연장을 구성하는 공간들에 눈길이 가기 시작한다.

좋은 극장

극장(劇場, theatre)은 연극·음악·무용을 공연하거나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다. 영화관이라는 의미의 겹침을 피하기 위해 공연장이라는 말이 쓰이는 듯하다. 극장의 본래 의미는 무대예술을 공연하는 건물이나 시설, 관객 앞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을 뜻한다. 영어의 ‘theatre’는 ‘구경하는 곳’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theatron’에서 유래했다. 배우의 몸짓과 대사를 직접 보기 위한 장소로서 무대와 객석이 분리된 극장의 형태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발달한 것이다. 무대예술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고, 관객으로서 보는 행위의 의미와 무대에서의 행위가 관객에게 전달되는 의미도 함께 변화했다. 따라서 극장의 형태도 변신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대의 극장 역시 공연 양식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어지고 있는데, 잘 보여주고 잘 보려는 근본적인 의미는 달라짐이 없다. 결국 좋은 극장이란 이러한 극장의 본질을 잘 구현한 공간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극장을 꿈꾼다. 누군가는 제대로 된 극장을 만들려면 월드컵 축구 경기장을 10개 이상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만큼 극장은 기술과 장비가 집약되어 있으면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상정해야 한다. 관객이 프로시니엄을 통해 바라보는 무대 공간은, 위와 아래, 양 옆과 뒤에 그만큼의 보이지 않는 공간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드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하는 공간이 극장이다.

충분한 무대 공간을 갖추고 제한이 적은 극장을 좋은 극장이라 할 수 있겠다.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러온 관객들에게도 만족을 주어야 한다. 당대의 최고 기술을 적용해 최신 장비들을 갖춘다고 해도 반드시 좋은 공연장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좋은 공연장의 조건이 시설의 충족에서 오지 않는 까닭이다. 부족한 부분은 사람이 채우고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어떤 극장에 어떤 부분이 모자라다는 인식은 참고로 삼아야 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무대예술은 어떻게든 빈 공간에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결국 좋은 극장은 좋은 작품을 많이 올리는 곳이며, 예술가들과 스태프들이 만드는 셈이다.

극장의 발달사

- 원형극장(Theatre in the Round): 최초의 극장. 종교행위나 주술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둘러싸고 모여서 형성된 형태
- 그리스 디오니소스 극장(Dionysus Architectural Theatre): 원형의 무대(Orchestra), 무대 뒤편의 단(Logeion), 그 뒤 늘어선 기둥(Skene), 그리고 무대 앞쪽에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싼 객석을 갖췄다. 바퀴달린 수레(Eccyclema)나 오늘날 크레인 장치와 같은 무대기구(Mechane)들이 사용

된 본격적인 극장이다.

- 로마의 극장: 도심에 다른 건물들과 함께 만들어졌고, 무대는 반원형이 되어, 객석 또한 마주보는 반원형이 되었다. 하늘을 가리는 천막시설도 갖춘 곳이 있었다.
- 야외극장: 중세 유럽에서는 성경의 내용을 구현한 종교연극이 도심 광장에서 펼쳐졌다. 무대공간이 객석을 둘러싼 구조였다고 한다.
- 이탈리아의 전망극장(Vista Theatre): 1580년에서 1584년에 만들어진 테아트로 올림피코(Teatro Olimpico)는 무대 뒷벽에 3개의 문 모양 구멍이 있는 전망무대(Vista Stage)가 있었고, 무대 배경은 투시도법을 사용하며 불박이로 설치되었다. 반원형의 객석이 갖춰졌다. 1619년 세워진 테아트로 파르네제(Teatro Farnese)는 최초의 프로시니엄(Proscenium)으로 볼 수 있는 개구부가 무대와 객석 사이에 마련되었다. 고정된 무대장식이 없는 빈 무대에 반원형 객석이 말굽형 태로 자리 잡았다.



테아트로 파르네제 프로시니엄의 원형이 되는 극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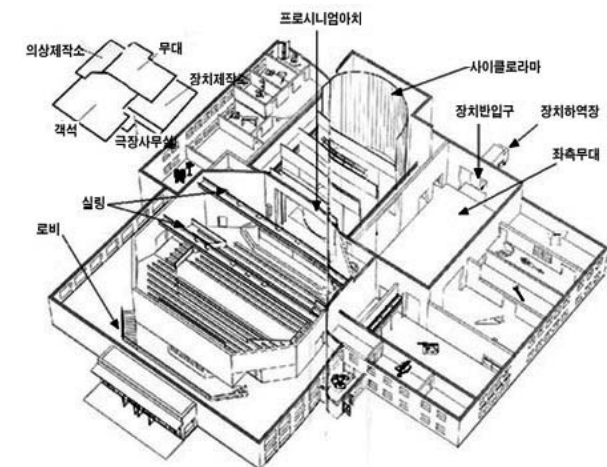
- 테니스코트 극장: 17세기 프랑스에서 순회극단이 왕족이나 귀족을 위해 그들 소유의 테니스코트 한쪽을 높여 무대를 만들어 공연을 펼쳤다.
-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장: 셰익스피어풍 극장으로 불리는 이 시대의 극장은 구(球)형극장(Globe Theatre)이다. 원형의 건물 안쪽으로 원의 절반을 갈라 높인 반원의 무대가 있고 그 뒤로 몇 층이나 올라간 건물의 구조 자체가 배경처럼 감싸고 있었다. 무대를 마주보고 나머지 반원형의 건물을 따라 객석이 놓였다.
- 프로시니엄 극장(Proscenium Theatre): 르네상스 시대의 전망극장에서는 그림이 그려진 구조물로 만들어진 개구부를 통해 원근감 있는 배경을 관객에게 노출하였다. 이러한 구조물에서부터 프

로시니엄은 생겨나게 되었다. 프로시니엄은 개방된 제4의 벽으로서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액자형의 틀을 말한다. 19세기까지도 배경의 원근감을 위해 경사진 무대(Raked Stage)가 채택되었다.

극장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

기획자가 극장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은 사실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공연의 성격에 맞는 극장을 찾아내고 관객들을 잘 끌어들이는 일이 그들의 몫인데, 이러한 판단과 선택에는 셀 수 없는 항목들이 영향을 미친다. 오로지 작품을 보는 눈과 축적된 경험만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도 기본적인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다.

- 객석 수
- 분장실의 수와 크기
- 극장 외부 진입로 상황
- 극장 로비의 상황
- 장치반입구까지의 경로와 운영시스템
- 극장 대관 관련 사항(공연장 작업 시간)
- 출입로(출연자 출입로)
- 비상구
- 극장 주변 시설(철물점, 숙소, 음식점, 대형마트, 약국, 병원)
- 극장의 구조(무대, 객석, 각 조정실 및 부속 공간)



무대공간

- 무대(Stage)
- 무대 좌측(Stage Left)
- 무대 우측(Stage Right)
- 무대 뒤쪽(Upstage)
- 무대 앞쪽(Downstage)

〈참고〉

무대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구분은 객석을 향해 선 배우를 기준으로 한다. 무대 뒤쪽과 무대 앞쪽을 뜻하는 Upstage와 Downstage라는 표현은 초기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원근법을 강조하기 위해 무대바닥을 경사지게 하여 뒤쪽을 높였던 데서 유래한다. 한편 무대의 좌우를 나누는 선을 중심선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일본식 표현인 상수(上手)와 하수(下手)이다. 상수는 객석에서 볼 때 무대의 오른쪽, 하수는 왼쪽이다. 이 표현은 거꾸로 무대 위에서 객석을 볼 때도 좌우가 바뀌지 않게 만들어진 표현이다. 일본식 표현이지만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는 상수에 가까운 쪽을 상수 쪽, 하수에 가까운 쪽을 하수 쪽이라고 부른다.

- 뒷무대(Rear Stage): 하늘막 뒤의 무대 공간
- 앞무대(Apron): 면막선 앞으로 돌출된 무대
- 오케스트라 피트(Orchestra Pit): 무대와 객석 사이, 앞무대 앞쪽 아래쪽에 관현악 연주를 위해 있는 공간
- 중심선(Center Line): 프로시니엄을 이등분한 점으로부터 무대 앞선 혹은 영점선에 직각인 선을 연장한 것
- 영점선(Zero Line): 프로시니엄 아치의 뒷무대쪽 좌우 꼭짓점의 연결선. 본무대선(PL, Plaster Line)과 동일
- 영점면(Zero Plane): 영점선에서의 수평면. 평무대에서는 무대바닥. 높이의 기준면
- 장치반입구>Loading Dock): 극장 외부로부터 장치를 반출입하는 입구. 반입구의 크기와 반입 방법(화물 엘리베이터, 리프트 등)이 중요하다.
- 장치 보관실(Scenery Storage): 각종 장치를 보관하는 공간.
- 무대용품 창고(Property Storage): 공연에 쓰인 대소도구 및 장치들을 보관하는 공간. 보관시설은 항온 항습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무대로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악기보관실(Musical Instrument Storage): 공연에 사용되는 악기를 보관하는 공간. 항온항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피아노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 피아노실(Piano Room): 공연에 사용되는 건반악기류(피아노, 챔벌로)를 보관하는 공간. 항온항습설비가 필요하다.
- 기술구역(Technical Areas): 기술자와 허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구역. 조명브리지, 제어실, 갤러리, 그리드 등을 포함한다.

객석공간

- 객석(FOH, Front of House)
- 전실(Anteroom): 로비와 객석을 잇는 두 겹 문 사이의 공간. 공연 중 관객이 출입하더라도 소음과 빛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통로(Gangway): 좌석에서 출구까지 막힘없이 개방되어 있는 객석 사이의 통로. 객석에서의 최소 통로 폭은 좌석 수에 따라 소방법에 의해 규정된다.
- 좌석 통로(Seatway): 앞뒤 좌석열 사이의 통과 폭. 한쪽 열에 앉은 관객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에, 좌석 수에 따라 크기가 결정된다.
- 피트석(Pit Seat): 오케스트라 승강무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오케스트라 피트에 가변으로 설치하는 좌석.
- 발코니석(Balcony Seat): 2층 이상의 공연장 공간에 객석 측면 등에 위치하여 별도의 출입통로가 마련된 객석. 사이드 발코니.
- 레스터(Rester): 발코니석 앞쪽에 사람들이 기댈 수 있도록 패드 등을 댄 받침. 난간의 맨 윗단을 말함.
- 메자닌(Mezzanine): 미국의 용어로 2층 정면 객석
- 박스석(Box Seat): 객석 공간에 별도로 설치하는 작고 독립된 객석 공간. 일반적으로 프로시니엄 근처에 위치, 객석 또는 별도의 출입구로 들어간다.
- 가족석(Family Room): 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함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된 방.

조정실 공간

- 무대제어실(Stage Machinery Control Room): 각종 무대장치 및 무대기계를 조정하기 위한 공간. 무대기계조정실.
- 무대조명 조정실(Lighting Control Room): 공연 중 조명장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된 공간. 모든 조정실에는 공연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창문이 설치 되어있으며 객석의 일반 관객들과는 분리 되어야 한다.
- 디머실(Dimmer Rack Room): 조명장치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방. 디머들이 설치되어 있다.

- 실링(Ceiling): 주로 객석의 전장부의 조명 작업용 공간. 대극장의 경우 팔로우 스포트의 조정을 겸하는 장소로도 사용된다.
- 조명 기자재실(Lighting Equipment Storage): 조명기구나 장비 등 조명분야 기자재를 보관하는 공간
- 무대음향 조정실(Sound Control Room): 공연 중 음향 조정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
- 음향 기자재실(Sound Equipment Storage): 음향기기와 장비 등을 보관하는 공간
- 영상실(Projection Room): 영사기나 프로젝터를 설치하여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주로 객석 뒤 중앙에 위치한다.
- 전기실(Electric Power Room): 극장 건물로 유입되는 전기 전환과 비상 발전 전력을 공급하는 공간. 외부전압을 극장용 전압으로 바꿔주는 변전기와 비상발전기 등의 전기설비가 있다.
- 공조실(Ventilation Room): 공연장 건물 전체의 공기조화 설비를 갖추고 이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가 가능한 공간

극장기술정보

극장기술정보란 극장의 도면과 기술자료를 말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005년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서울시 소재 극장의 기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여기에는 각 공연장의 기술정보와 실사도면 CAD파일, 실사도면 PDF파일, 약도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구축된 극장기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극장 도면

- 무대평면도
- 무대단면도
- 기타 도면
- 주요 치수표

기술자료

- 일반정보: 도시, 극장명
- 주소: 우편번호, 상세주소
- 인사: 극장장, 기술감독, 무대감독, 장치감독, 전기감독, 인원 등
- 전화: 각 구역 내선번호
- 인터넷: 기술감독 및 회사의 이메일, 회사 홈페이지 등

- 좌석: 총 좌석 수
- 작업시간: 작업 시작, 종료 시간, 식사시간, 구내식당 개방시간 등
- 극장형식: 프로시니엄/상자형/가변형/돌출형/원형 등 구분
- 설비: 분장실 등
- 반입장: 위치, 트럭 크기, 반입단, 통로 등 상세 항목
- 치수: 프로시니엄, 조리개 등
- 영점 개념: 영점선의 개념, 비고
- 깊이: 영점선으로부터 뒷벽선, 무대턱, 피트선 등
- 너비: 중심선으로부터 옆벽선, 갤러리 등
- 높이: 무대 바닥으로부터 그리드 하면, 갤러리 통과 높이 등
- 바닥 마감: 재질, 허용하중 등
- 장치봉: 장치봉 용량, 길이, 직경, 상한고 등
- 보조전원: 용량, 거리 등 도표화
- 조명콘솔: 기종, 이동 여부, 외부인력 조작 여부 등
- 디머: 수량, 외부콘솔 연결 여부 등
- 조명기: 기종, 용량, 수량, 각도 등 도표화
- 음향: 독립전원 여부 등
- 믹서: 기종, 이동 여부, 입출력 단자 수 등
- FOH설치: 기종, 출력 등
- 기타 장비: 앰프, 스피커, 효과기, 재생장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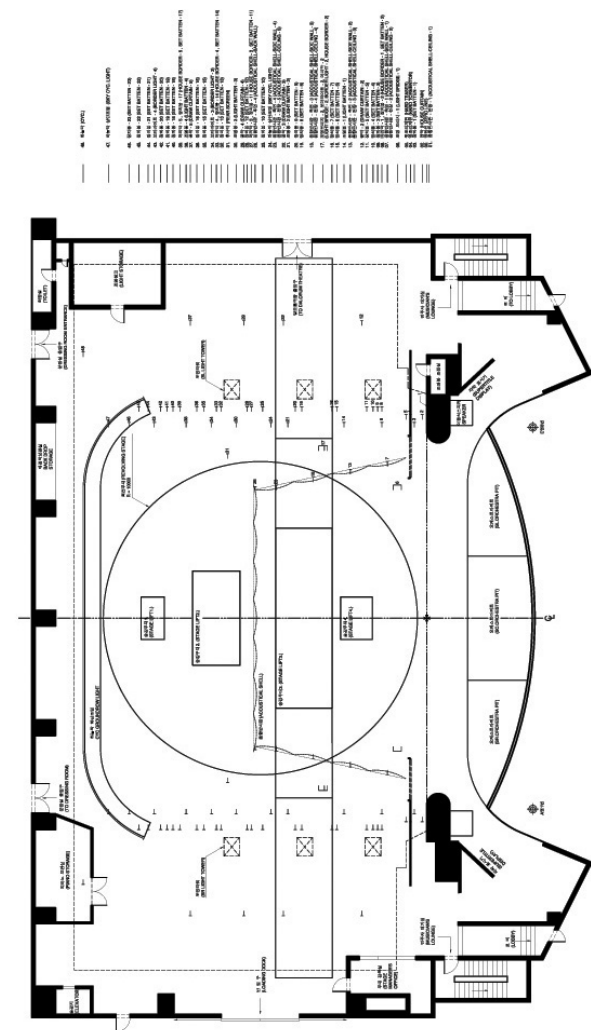
이 정보를 이용하려면 먼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나 Arts@Net(www.sfac.or.kr/artsnet)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는 화면 오른쪽 메뉴의 Arts@Net을 클릭하여 이동한다. Arts@Net에서는 상단메뉴의 문화예술공간>Theater Library로 들어가거나 오른쪽 메뉴의 Theater Library를 클릭하면 극장기술정보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극장, 예를 들어 국립극장 하늘극장을 클릭하면 약도와 첨부파일이 나타난다. 첨부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의 자료들, '국립극장 하늘극장 극장실사.pdf' 라는 파일은 극장기술정보 양식에 따른 국립극장 하늘극장의 모든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나머지 영문명의 파일들은 도면정보들로 캐드(CAD) 파일과 PDF로 변환된 파일들이다.

TIP 극장기술정보의 예: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1. 일반 정보 General Information

			비고 Remarks
이름 Name	관명 Name of Theatre	국립극장	
	극장명 Name of Auditorium	해오름극장	
주소 Address	주소 Address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산14-67	
	우편번호 Zip Code	100-851	
	시 City	서울시	
	도/주 Province/State		
일반 General	국가 Country	대한민국	
	개관일 Opened on	1973년	
	설계자 Designed by		
	증개축 Renovation	2004년 11월	
	운영 주체 Governing Body	국립극장	
	상주공연단 Residence Company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극장형식 Type of Auditorium	☒ 프로시니엄 Proscenium ☐ 상자형 Black Box ☐ 돌출형 Thrust ☐ 원형 In-the-round ☐ 가변형 Variable ☐ 기타 Another Type	
	객석규모 Capacity	1,563	
전화 Telephone	객석형태 Type of Seating	부채꼴	
	국가번호 Country Code	82	
	지역번호 Prefix/Area Code	02	
	대표전화 General Phone	2280-4114	
인터넷 Internet	홈페이지 Homepage	http://www.ntok.go.kr	
	이메일 Email	Webmaster@ntok.go.kr	
비고 Remarks			



무대평면도-국립극장 해오름극장

2. 극장의 장비들

극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공연장 홈페이지와 관련서적을 뒤적이던 공기제씨는 뜻밖에도 외계어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대강의 짐작도 가지 않는 용어들이 한자와 영어를 가리지 않고 때로 출현했기 때문이다. ‘상수’와 ‘하수’의 뜻은 짐작과 달랐고, 극장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각종 리스트의 장비 명칭은 반의반도 짐작하기조차 힘들었다.

‘이 나이에 외계어까지 다시 공부해야한단 말인가?’ 공기제씨는 생각한다. 앞으로 제작 예산을 조율할 때나, 기술팀과 제작 관련 협의를 할 때에도 저 외계어를 구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아, 산 넘어 산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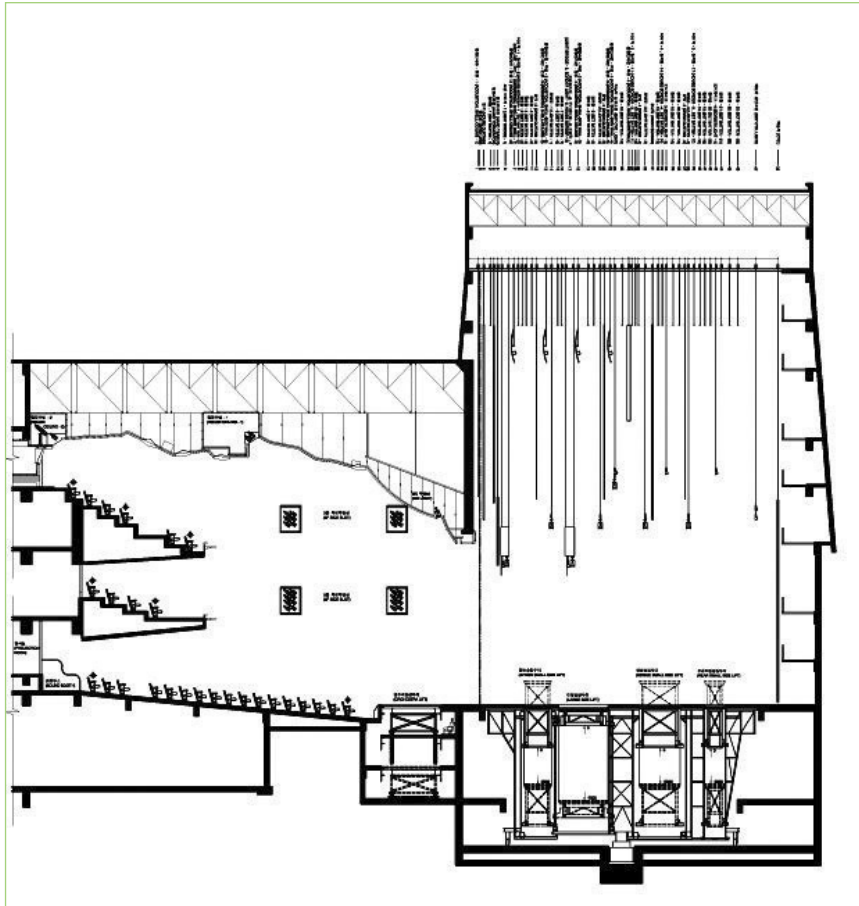
!!

물론 공기제씨가 넘어야 할 산은 앞으로도 많다. 하지만 큰 산을 넘을 때의 경험은 자신감과 추진력을 심어주어 오늘 해야 할 일에 힘을 실어준다. 제작기획부는 투입되는 작업과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예측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 입수, 분석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 중 분석을 위해서는 ‘외계어’라고 불리는 언어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외국인들과의 공동제작과정을 상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 다양한 직군과 소통해야 하는 제작기획부는 웹, 인쇄, 연기, 연출, 더 나아가 관객들의 유행어까지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 자, 공기제씨, 극장의 장비용어부터 시작해 볼까요?

무대시설의 구분

무대시설에 대한 용어는 한국산업규격 KS A 6103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따르면 무대시설은 무대바닥을 기준으로 바닥보다 위에 설치되는 무대시설을 상부설비(Fly Facility),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는 무대시설을 하부설비(Stage Facility)라 한다.

상부설비는 매달기기구(Flying System), 막기구(Curtains), 조명기구(Lightings), 음향기구(Acoustic System), 프로시니엄 개구부(Proscenium Openings), 건축설비(Architectural Facility)로 분류하며, 하부설비는 승강무대(Stage Facility), 연주승강무대(Orchestra Lift), 경사무대(Tilting



무대단면도-국립극장 해오름극장

Stage), 수평이동무대(Stage Wagon), 회전무대(Revolving Stage), 건축설비(Architectural Facility)로 분류한다.

상부설비	하부설비
매달기기구(Flying System)	승강무대(Stage Facility)
막기구(Curtains)	연주승강무대(Orchestra Lift)
조명기구(Lightings)	경사무대(Tilting Stage)
음향기구(Acoustic System)	수평이동무대(Stage Wagon)
프로시니엄 개구부(Proscenium Openings)	회전무대(Revolving Stage)
건축설비(Architectural Facility)	건축설비(Architectural Facility)

상부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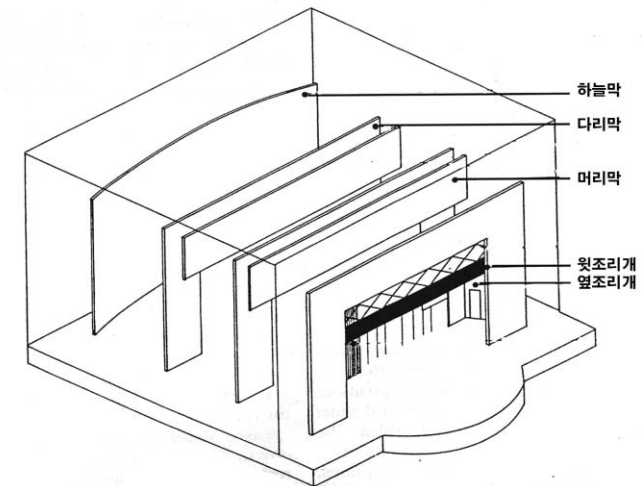
매달기기구(Flying System)

- 장치봉(Set Batten): 배경이나 장치 등을 매다는 긴 봉이나 구조물. 배경막이나 무대장치를 매달기 위해 그리드로부터 내려오는 기계장비이다. 장치봉의 간격은 20~30cm가 적당하며, 각 봉의 적정하중은 500/750/1000/1500kg로 장치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 포인트호이스트(Point Hoist): 스트링와이어로 장치를 매달아 올릴 수 있는 원리로 제작된 무대기계
- 체인호이스트(Chain Hoist): 하나의 체인에 장치를 매달고 모터와 연결된 스프로킷(Sprocket)의 회전에 의해 체인을 감아올리거나 풀어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기계. 와이어 대신 체인으로 장치를 매달아 올리는 호이스트

막기구(Curtains)

- 극장막(Drapery): 무대에서 쓰이는 막
- 장치막/작화막(Drop Curtain): 극장설비로서의 막이 아닌, 어떤 공연의 무대장치로 제작된 막
- 면막(House Curtain): 무대와 객석을 분리하는 극장막
- 모양막(Contour Curtain): 들막의 일종으로, 줄의 길이를 달리하며 여러 모양의 장식적인 주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막
- 끌막(Draw Curtain): 중앙으로부터 양 옆으로 열리는 막. 다리막과 접하기도 함
- 머리막(House Border): 본무대 천정에 가로로 길게 걸려 수직시각선을 가려 주는 막. 주로 검정색이다.
- 다리막(House Leg): 본무대 양 옆에 세로로 높게 걸려 수평시각선을 가려주는 막. 주로 검정색이다.

- 현수막(Placard): 현수막을 달 수 있는 현수막 배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극장이 많다. 공연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영사막(Screen): 영상을 투사하는 막
- 후사막(Rear Screen): 뒤쪽에서 투사하는 영상이 잘 나타나도록 제조된 영사막
- 하늘막(Cyclorama): 무대 둘레와 무대 상측으로 이어지는 막. 공연에 사용되는 무대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감싸며 하늘이나 빈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주무대의 가장 뒤쪽에 설치된다. 따라서 하늘막으로 뒷무대와 공간적인 구분이 된다.
- 흑막(House black): 하늘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흑색막
- 망사막(Scrim): 막 앞의 조명에 의해서는 불투명하게 보이나 막 뒤의 조명에 의해 투명하게 변하는 막



조명기구(Lightings)

- 조명봉(Light Batten/Electric Bar): 조명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봉. 전원 회로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 조명 브리지(Light Bridge): 조명봉과 함께 캐워크(Carwalk)가 있어 조명기를 무대에서 바로 신고 올라가 설치할 수 있고, 공연 중에도 조명 작업을 가능케 한 상부 시설
- 보더라이트(Border Light): 무대 전체와 하늘막을 비추기 위해 일렬로 설치된 조명기
- 앞무대 조명(Apron Light): 프로시니엄 앞쪽의 천정에 설치되어 앞무대를 비추는 조명봉

- 천장 조명(Ceiling Light): 프로시니엄 아치를 기준으로 객석 쪽으로 설치된 조명 시설의 총칭
- 조명 타워(Lighting Tower): 무대 측면에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독립된 구조물
- 트러스(Truss): 합금막대와 삼각형의 교차 브레이스로 이루어진 틀. 트러스를 이용하면 구조가 튼튼해지며, 특히 조명을 매다는 데 유용하다.

음향기구(Acoustic System)

- 음향반사판(Acoustical Shell): 프로시니엄 극장의 경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클래식 공연 시 천장부 및 좌우측 무대에 설치하는 극장 구조물. 설치 위치에 따라 천장음향반사판(Acoustical Shell-Ceiling), 측면음향반사판(Acoustical Shell-Side wall), 후면음향반사판(Acoustical Shell-Back wall)으로 구분된다.
- 차음막(Sound Curtain): 장면 전환 소음이 관객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무대 앞쪽에 설치하는 막. 방음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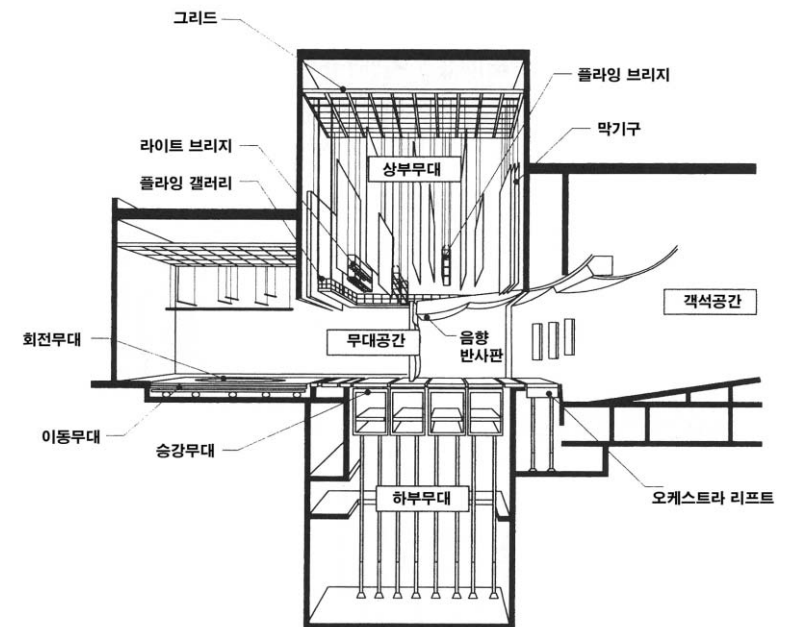
프로시니엄 개구부(Proscenium Openings)

- 프로시니엄(Proscenium):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건축적 경계지점. 관객은 프로시니엄을 통해 무대를 들여다본다. 프로시니엄 아치(Proscenium Arch)
- 포탈(Portal): 프로시니엄의 폭과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물의 총칭
- 윗조리개막(Teaser Curtain): 프로시니엄 뒤의 첫 번째 머리막. 수직 시각선과 개구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 옆조리개막(Tormentor Curtain): 프로시니엄 뒤의 첫 번째 다리막. 수평 시각선과 개구부의 폭을 조절할 수 있다.
- 윗조리개판(Hard Teaser): 틀 구조의 윗조리개
- 옆조리개판(Hard Tormentor): 틀 구조의 옆조리개
- 프로시니엄 브리지(Proscenium Bridge): 프로시니엄 바로 뒤에 위치한 조명 브리지. 윗조리개로 사용 가능하다.
- 프로시니엄 타워(Proscenium Tower): 프로시니엄 바로 뒤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직 구조물. 옆조리개로 사용 가능하다.

건축설비(Architectural Facility)

- 그리드(Grid): 무대탑 상부에 설치되어 무대 기계 설비의 상부 지지대를 의미하며, 기계 설비의 지지 역할을 하는 철골로 된 극장 고정 구조물. 배튼 상부 이동의 최대점 위에 설치된 것으로 무대 기계장치의 하중을 지탱하며, 특수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 상부갤러리(Fly Gallery): 장치를 매달거나 조명작업 또는 기타 무대 장치물들의 작업을 위한 무대 옆의 천장 벽 공간
- 조정갤러리(Operating Gallery): 상부 갤러리들 중에서 상부전환수가 상부무대시설의 막 시설이나 매달기 시설을 수동으로 전환하는 공간.
- 하중갤러리>Loading Gallery): 상부갤러리 중에서 평형추를 적재하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특정 층의 갤러리
- 갠트리(Gantry): 어떤 구역을 사이에 두고 그 양쪽의 기초 위에 설치하여 사람이 왕래할 수 있도록 조립된 다리 모양의 구조물.
- 방화막(Fire Curtain): 무대 위의 화재로부터 객석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시니엄 바로 뒤에 떨어지는 막



하부설비

승강무대(Stage Lift)

- 승강무대(Stage Lift): 공연 중 장면 전환이나 연출 효과를 위해 무대 바닥의 일부만이 수직으로

승강할 수 있도록 만든 무대

- 이중승강무대(Double-deck Lift): 무대의 바닥을 2개 층의 면 구조로 만든 승강무대.
- 침하무대(Sinking Stage): 보상무대라고도 하는데, 수평 이동무대가 이동하면서 원래 자리에 생긴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주행거리가 짧은 승강무대. 측무대나 후무대가 주무대로 들어오면 그 자리가 비게 되는데, 이때 측무대나 후무대 밑에 있던 침하무대가 위로 올라와 바닥의 높이를 맞추어 준다.
- 트랩(Trap): 무대지하실로 배우나 장치, 소품 등의 등퇴장이 가능하도록 무대바닥 일부를 제거한 부분

연주승강무대(Orchestra Lift)

- 오케스트라 피트(Orchestra Pit): 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앞무대와 객석 사이의 무대 공간. 오케스트라 승강기(Orchestra Lift)가 설치되어 무대로 쓰일 수도 있고 의자를 설치하여 객석으로 쓰일 수도 있다.

경사무대(Tilting Stage)

- 경사무대(Tilting Stage): 무대바닥의 일부나 무대 전체를 필요에 따라 또는 영구적으로 경사지게 만들어 놓은 무대

수평이동무대(Stage Wagon)

- (수평)이동무대(Stage Wagon): 공연 중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장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든 무대. 무대 바닥의 일부 혹은 전체를 수평으로 이동시켜 장면 전환 시 사용하는 무대설비이다.

회전무대(Revolving Stage)

- 회전무대(Revolving Stage): 원형의 바닥 면이 회전하면서 장면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무대. 크기는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으나 프로시니엄 폭의 0.8배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시니엄 폭보다 넓은 경우에는 관객의 시야를 벗어난 공간에서 회전무대를 통한 장면 전환이 가능하다. 특별히 회전무대의 두께를 얇게 해서 이동무대 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을 턴테이블(Turn Table)이라고 한다.
- 환형무대(Ring Stage): 겹 회전 무대의 바깥쪽 회전무대

건축설비(Architectural Facility)

- 이동객석
- 화물용 승강기

조명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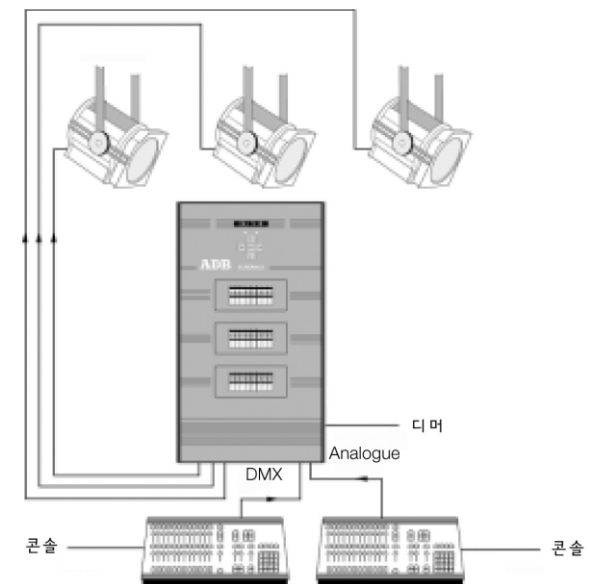
조명은 크게 네 가지 요소가 시스템을 구성한다. 조명기와 이를 연결하는 회로, 디머와 콘솔이 그것이다.

디머(Dimmer)

조명기의 조명 강도를 조절하는 장치. 조광기로 번역한다. 콘솔에 의해 주어진 신호에 따라 조명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여 빛의 밝기 효과(Dimming)를 얻을 수 있다. 기계식 디머와 전자식 디머로 구별하는데, 대부분 전자식 디머를 사용한다. 무대 위의 모든 회로는 디머에 연결되고 콘솔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이 디머를 거쳐 회로에 연결된 조명기를 조정하게 된다.

조명 콘솔(Lighting Console/Board)

디머를 제어하고 조작할 수 있는 입력 시스템. 대개 프리셋 콘솔(Preset Console)과 메모리 프리셋 콘솔(Memory Preset Console), 컴퓨터 콘솔(Computer Console)로 구분한다. 프리셋 콘솔은 콘솔의 채널이 디머의 회로와 1대 1로 연결된 식이지만, 메모리 프리셋 콘솔은 디머를 특정한 채널에 할당할 수 있는 소프트패치(Softpatch) 기능이 있고, 조명큐를 저장할 수 있다. 컴퓨터 콘솔은 소프트패치, 큐, 시간, 효과 등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큐의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조명기들

- 엘립소이달 리플렉터 스포트라이트(Ellipsoidal Reflector Spotlight, ERS): 타원반사경 스포트 조명기.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 조명기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셔터를 가지고 빛 모양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투사된 빛의 원은 밝기가 고르고, 테두리를 강하게 하거나 혹은 부드럽게 할 수 있다. ERS는 렌즈의 특성에 따라 각각 좁거나 넓은 폭의 빛을 만들어 내며 먼 거리를 투사할 수 있다. 리코(Leko)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 ERS를 처음 만든 제조회사의 이름이다. 국내에서는 엘립(Ellip)이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ERS는 빛이 퍼지는 각도에 따라 12°, 19°, 26°, 36°, 50° 등으로 표시한다.



대표적인 엘립소이달 리플렉터 스포트라이트인 ETC의 Source Four

- 퍼넬 스포트라이트(Fresnel Spotlight): 퍼넬 렌즈가 장착되어 있는 조명기. 주로 텅스텐 할로겐 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한다. 특성은 원의 중앙은 밝고 테두리는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 내며, 치수는 렌즈의 직경에 따라 3", 6", 8", 10", 12" 등으로 표기한다.



ADB의 F 51 18° - 65° Fresnel

- 플라노 컨벡스 스포트라이트(Plano Convex Spotlight, PC): PC렌즈가 장착되어 있으며, 원의 중앙은 매우 밝고, 테두리는 퍼넬에 비해 뚜렷한 경향이 있다. 치수는 퍼넬과 마찬가지로 렌즈 직

경으로 표기한다. 램프 역시 퍼넬과 마찬가지로 텅스텐 할로겐램프를 주로 사용한다. 통상 6" 렌즈의 경우 500W, 750W 램프가 장착되어 있으며, 8"의 경우 1KW, 2KW 램프를 장착한다.

ADB의 C51
9°-60° Prism
Convex

- 파 라이트(PAR Can Light): 실내 극장에서 강한 광선을 만들어 Wash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넓은 지역의 투사가 필요 할 때와 좁은 지역을 투사할 때 램프 종류를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고 램프의 유리 표면과 필라멘트의 특성으로 타원형의 빛이 나온다. 가격 면이나 다루기가 용이하여 야외 공연용이나 혹은 콘서트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치수는 램프의 크기에 따라 16, 38, 46, 56, 64 등으로 분리된다. 흔히 '대파'라 불리는 PAR 64와 '소파'라 불리는 PAR 46이 많이 쓰인다. PAR은 Parabolic Aluminized Reflector의 약자다.



Par64

- 스트립라이트(Striplight): 6피트, 8피트, 또는 10피트의 긴 상자 모양의 조명기에 같은 종류의 램프가 한 칸에 나란히 들어 있으며, 사이클로라마(Cyclorama)나 배경막과 같은 무대장치나 무대 위의 넓은 부분을 비출 때 주로 사용하는 조명기이다.



스트립라이트 ETC의 MultiPAR 4

- 하늘막 조명기(Cyc Light, Horizont Light): 하늘막(Cyclorama, Cyc)을 비춰주는 조명기로 예전에는 하늘막의 아래, 위에서 보더라이트로 비췄으나, 요즘은 하늘막 조명기를 사용한다. 조명봉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하늘막 상단 조명기(Upper/Sky Cyc)라 하고, 무대바닥에 놓고 배경막을 비추는 것을 하늘막 하단 조명기(Lower/Ground Cyc)라 한다. Upper와 Lower Cyc 조명기는 빛의 퍼짐을 일정하고 균형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램프 역시 동일한 회사 제품과 출력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립라이트처럼 3회로 또는 4회로로 연결되어 세 가지 색 또는 네 가지 색의 조합으로 하늘막 또는 장치막에 색의 변화를 줄 수 있다.



- 팔로우 스포트라이트 (Follow Spotlight): 핀(Pin Spot)이라고도 부르며, 작은 각의 매우 강한 빛으로 25M 이상의 장거리에서 조명할 수 있다. 사용되는 전구로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CID (Compact Iodide Daylight), HMI(Hydrargyrum Medium-arc Iodide), Xenon 등을 사용하며, 높은 색온도 때문에 거의 백색에 가까운 빛을 만들어 무대 위 중요한 인물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Strand의 팔로우 스포트라이트

- 무빙라이트(Moving Light): 전자동조명기(Automated Luminaries) 또는 인텔리전트 라이트(Intelligent Light)라고도 불린다. 빛의 움직임, 크기, 밝기, 포커스 및 다양한 색, 고보, 줌, 아이리스, 디퓨전 필터 등을 컴퓨터로 조절할 수 있는 조명기이다. 무빙요크(Moving Yoke)와 무빙미러(Moving Mirror)로 구분된다. 무빙라이트만을 조정할 수 있는 콘솔이 별도로 있지만, 대부분의 DMX512 콘솔은 무빙라이트를 함께 조정할 수 있다.



VARILITE의 VL3000 Wash

- LED(Light Emitting Diode) 조명기: LED 조명기는 DMX 컨트롤이 가능하고, 절전형으로 전력 소비가 매우 적거나 열이 거의 없으며,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컬러 혼합도 청색, 녹색, 적색 3가지 색이나, 앰버(Amber)를 더한 4가지로 1,600만 개 이상의 색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금세기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LED 소재의 조명기들은 기존의 조명기들을 조금씩 대체하고 있다.

효과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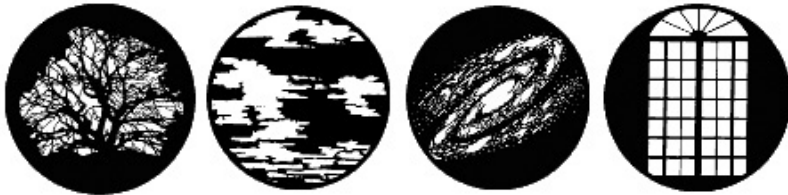
- 스모그 머신(Smoke Machine): 포그 머신(Fog Machine)이라고도 하며 무대 위에서 연기를 만들어 내는 기구. 글리세린 계열의 오일을 CO₂나 공기압축 펌프로 뜨거운 노즐에 주입하면 오일이 기화되면서 연기가 발생하는 원리로 되어있다. 오일에 따라서 연기가 달라지는데 현재는 두 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나는 연기가 미세한 입자로 된 뿌연 연기를 계속해서 뿜으며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종류로서 디퓨전 포그(Diffusion Fog) 또는 헤이즈 머신(Haze Machine)이라고 한다. 이러한 종류는 특히 가수들의 라이브 콘서트시에 조명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빛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 또 다른 종류는 제탈 포그(Zetal Fog)라고 하는 종류로서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오고 연기가 사라지는 시간이 짧은 종류인데, 어느 특정한 극적인 순간에만 사용될 수 있다.

- 드라이아이스 머신(Dry Ice Machine): 탄소 산화물인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체로 변환이 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드라이아이스를 뜨거운 물에 넣어 순간적으로 많은 양

의 연기를 만들어내는 기구가 바로 드라이아이스 머신이다. 이 연기는 무대바닥에 낮게 깔리기 때문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어 주로 무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작성 유의할 점은 히터의 용량에 맞는 차단기가 설치된 전원을 사용해야하며, 맨손으로 드라이아이스를 만져서는 안 되고 보관도 냉동상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드라이아이스를 잘게 쪼갤수록 표면적이 늘어나 많은 양의 연기를 발생시키게 된다.

- 스트로브(Strobe Light):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플래시와 같은 빛을 주기적으로 켜다 껐다 함으로써 연속동작이 불연속동작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는 조명기. 국내에서는 사이키(Psychy)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조명 액세서리



- 고보(Gobo): 열에 강하고 특수 처리된 철재, 알루미늄, 금속성 재질에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을 새겨거나 파내어 틀에 끼워 ERS 조명기에 삽입하면, 이것을 통과하는 빛이 특정한 문양을 만들고 렌즈에 의해 확대되어 투사된다. 고보의 종류는 제조회사에 따라 다양한 모양의 패턴을 제작하여 판매한다.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실험의 방법, 부식 방법, 실크 스크린 방법, 필름의 방법 등을 이용하거나, 고보 제조기를 이용하여 만드는 방법도 있다.
- 반도어(Barn Door): 퍼넬이나 대파(PAR)와 같은 조명기에 붙여 빛의 방향을 통제하는 빛 가리개이다. 빛을 가리는 판은 2, 4, 6개 등 다양하며, 주로 4개의 판을 가지고 있다.
- 컬러 휠(Color Wheel): 조명기 앞에 부착하여 수동 또는 전동으로 여러 가지 컬러필터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장치이다. 엘립이나 대파, PC 등에 사용되어 하나의 조명기에서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컬러필터(Color Filter): 무대 조명에서 디자이너가 원하는 색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조명기 앞부분에 컬러필터를 끼우는 방법을 사용한다. 컬러필터는 제조업체에 따라 백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색을 제공하는데, 제조업체 이름과 번호로 구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Lee Filter와 Rosco의 필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음향 장비

극장의 음향설비는 크게 공연을 위한 무대음향설비와 공연 진행 상황을 알려주거나 양방향 통신을 하는 무대통신설비, 그리고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일반 화재설비로 구분한다.

무대음향설비는 관객에게 소리를 정확하게 들려준다는 의미에서 PA시스템(Public Address System)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소리를 보강한다는 의미가 더해져 SR시스템(Sound Reinforcement System)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아무튼 극장의 음향 장비는 입력과 믹싱, 출력기능을 하는 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입력기능을 가진 대표적인 장비로는 마이크와 CD플레이어와 같은 재생기기 등이다. 믹싱 장비는 콘솔과 각종 음향신호제어기들을 가리킨다. 출력 장비는 스피커와 앰프 등이 해당된다.

입력 장비

- 마이크로폰(Microphone): 음향적(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기. 여러 가지 종류의 마이크로폰이 있으나 현재는 콘덴서 마이크(Condenser Mic)와 다이내믹 마이크(Dynamic Mic)가 주류를 이룬다.

다이내믹 마이크는 온도, 습기, 충격, 높은 음압에 강하지만 콘덴서 마이크에 비해 특성이 다양하지 못하다. 노래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마이크가 다이내믹 마이크의 한 종류이다.

콘덴서 마이크는 소형화가 가능하고 특성이 다양하지만 온도, 습기, 충격에 약하고, 팬텀파워(Phantom Power)라 부르는 48V의 직류전압을 공급받아야 한다.

한편,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향 특성(Polar Pattern)을 알아야 하는데, 무지향성(Omnidirectional) 마이크와 양지향성(Bidirectional) 마이크, 단일지향성(Cardiod) 마이크, 가변지향성(Multidirectional) 마이크로 나뉜다.



다이내믹 마이크의 대표적인 모델인 SHURE의 SM58, 단일지향성 마이크이다.

- 재생기기(Player): CDP, MD, DAT, MP3,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Cassette Tape Player) 등을 말한다.

- 녹음기(Recorder):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카세트 레코더를 비롯해 멀티트랙 레코더(Multi Track Recorder), 하드디스크 레코딩 시스템(Hard Disk Recording System) 등이 있다.

믹싱 장비

- 믹싱콘솔(Mixing Console): 줄여서 믹서(Mixer)라고도 한다. 모든 음향장비의 음향 신호를 연결하여 통제하는 장비이다. 음향 신호를 받아들여 크기와 음색, 파노라마, 밸런스 등을 맞추고 믹싱하여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용도에 따라 주(Main) 콘솔, 보조(Sub) 콘솔, 모니터(Monitor) 콘솔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음향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아날로그(Analog) 믹서와 디지털(Digital) 믹서로 구분한다. 양쪽의 장단점이 있으나, 현재는 아날로그 믹서에서 디지털 믹서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LG아트센터에 설치된
CADAC의 F-Type 믹싱콘솔.
아날로그 콘솔이다.

- 음향신호제어기(Effector, Outboard)들

- 이퀄라이저(EQ, Equalizer): 이퀄라이저는 가정용 오디오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효과기로 음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가청 주파수 내에서 많은 주파수들이 세분화 되어 있어서 귀로 들으며 적절한 위치에서 특정 주파수를 컷(Cut)하거나 부스트(Boost)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 컴프레서(Compressor): 소리의 음폭을 압축하는 장치. 입력된 소리의 크기가 미리 설정한 기준치보다 크면, 그 출력을 조정 감쇠시킨다. 예를 들면, 마이크나 다른 기기들을 통해 믹싱 콘솔로 과도한 신호가 들어올 경우 컴프레서를 사용한다.

• 리버브(Reverb): 쉽게 말하면 목욕탕에서의 에코(Echo) 현상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의 잔향감을 효과로 내는 장치이다.

• 하모나이저(Harmonizer): EVENTIDE사에서 나온 Pitch Shifter(음정변환기)의 모델명인데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원음의 피치를 조절하거나 그 변환된 소리를 원음에 더하거나 해서 남성의 목소리를 여성의 소리처럼 만들거나 음정이 떨어지는 것을 보정한다거나 코러스 효과를 내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이다.

출력 장비

- 컨트롤러(Controller): 여러 개의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서로서 앰프와 스피커 사이에 필요한 모든 시그널을 제어할 수 있는 장비이고 수많은 아웃보드들을 통합한 시스템이다. 쉽게 말하면 스피커의 고음, 중음, 저음을 각각 컨트롤하는 장비이다.

- 앰프(Amplifier): PA 시스템에서 앰프는 파워(Power Amp)를 말한다. 오디오 라인 신호의 파워를 증가시켜 스피커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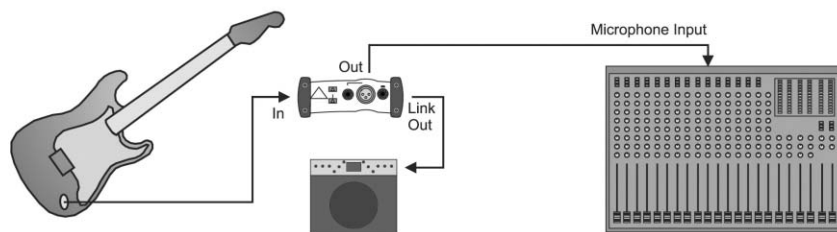
- 스피커(Speaker): 극장에서 최종적으로 소리를 청중에게 전달해주는 장비로, 전기 음향 신호를 물리적인 음향으로 바꾸어주는 일종의 변환기기이다. 극장에서 사용하는 스피커는 사용 목적에 따라 메인 스피커, 보조 스피커, 효과용 스피커, 무대 모니터링 스피커, 컨트롤룸 모니터 스피커 등으로 나뉜다.

- 메인 스피커(Main Speaker): 청중과 관객을 위한 스피커들. 일반적으로 프로시니엄을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위치에 따라 센터 스피커, 상단좌우 스피커, 하단좌우 스피커, 우퍼(Woofer) 스피커로 나뉜다.
- 보조 스피커(Sub Speaker): 보조 스피커는 메인 스피커로 커버하지 못하는 음향적 사각지역을 위한 스피커이다. 용도에 따라 무대 중앙부 앞쪽 객석 지역을 향하는 프론트 필 스피커(Front Fill Speaker)와 2층이나 3층 객석이 있는 공연장의 발코니 아래 객석의 뒷부분을 위한 언더 발코니 스피커(Under Balcony Speaker) 등이 있다.
- 효과용 스피커(Effect Speaker):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등에서 음향효과를 위한 스피커로 객석 측면과 후면을 구역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무대 모니터 스피커(Stage Monitor Speaker): 출연자가 무대에서 모니터하기 위한 스피커. 메인 스피커는 관객을 위한 용도이나, 이는 연주자가 자신의 연주 혹은 다른 이의 연주를 듣거나, 무용수나 배우가 음악을 듣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 컨트롤룸 모니터 스피커(Controlroom Monitor Speaker): 음향조정실에서 녹음과 편집을 포함한 공연 진행에 관련된 모든 음향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스피커이다.

기타

- 다이렉트 박스(DI-box): 악기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불평형(Unbalance)하고 높은 임피던스(Impedance)의 신호인데, 이런 신호를 평형화(Balance)시켜 믹싱콘솔에 들어가기 적절하게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무대통신설비

- 인터콤(Intercom): 리허설과 공연 시 무대감독과 각 기술스태프 또는 조정실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한 동시통화식 통신설비이다.
- 큐 사인 램프(Cue Sign Lamp): 표시등의 점등 및 소등으로 무대진행 큐를 줄 수 있는 장치. 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장면이나 음성 전달이 어려울 때 유용하다.

영상 장비

- 프로젝터(Projector): 영상 신호를 받아서 일치하는 이미지를 렌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스크린 위에 영상하는 기기를 말한다. CRT(Cathode-Ray Tube) 프로젝터와 LCD(Liquid Crystal Display) 프로젝터, DLP(Digital Light Processing) 프로젝터로 나뉘지는데, 무엇보다 안시 루

멘(ANSI Lumen)과 해상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시 루멘은 프로젝터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000 안시 루멘은 보통 홈시어터용으로 사용하고, 3,000 안시 루멘은 강당이나 대회 의장, 그리고 5,000 안시 루멘 급의 장비라야 극장에서 사용할 만하다. 야외 공연에서는 대개 7,000 안시 루멘 이상의 프로젝터가 필요하다.

한편, 프로젝터의 해상도는 가로 픽셀(Pixel) X 세로 픽셀로 표시하며, SVGA(Super Video Graphics Array) 급이 800 X 600, XGA(Extended Graphics Array) 급이 1024 X 768, SXGA(Super Extended Graphics Array) 급이 1280 X 1024, UXGA(Ultra Extended Graphics Array) 급이 1600 X 1200의 해상도를 표현한다.

- 영상재생기기: 대표적으로 VTR(Video Tape Recorder)이 있으며, 현재는 DVD(Digital Versatile Disc) 플레이어나 6mm DV(Digital Video) 카세트테이프를 사용하는 DV 플레이어를 주로 사용한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로 PC(Personal Computer)나 노트북(Notebook) 컴퓨터, 맥(Mac)을 이용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고, 미디어 서버(Media Server)와 같은 소프트웨어 + 콘솔(하드웨어)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대형 공연에서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기타 장비

- 유압사다리: 작업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유압식 사다리 장비를 말한다. 조명작업에서 초점 맞추기(Focusing) 때 주로 사용하며, 대표적인 제조사의 이름 그대로 지니(Genie)라고도 불린다. 안전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거나 감지장치를 조작하여 생기는 안전사고 사례가 많다.
- 댄스플로어(Dance Floor, Dance Mat): 발레나 무용 공연을 위해 무대 바닥에 설치하는 무용 전용 고무 매트. 무용수의 신체 보호용으로 여러 종류가 있으며, 보통 양면(회색과 검정색)을 다 사용한다. 설치시 무대바닥 틈새를 보완 마감한 후에 설치해야 하고, 조명으로 적절한 온도를 가한 후 댄스플로어 전용 테이프를 마감한다. 대개의 극장에서는 댄스플로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 시 사용비와 설치비, 테이프 등의 소모품비가 추가된다.

TIP 무대기술 관련 표준들

DMX(Digital Multiplexer) 512

DMX 512는 컨트롤러, 조명장비 그리고 조명부속장치 사이에서 디지털 데이터 전송의 방법을 기술하는 표준이다. 즉, 무대 조명 컨트롤 데스크에서 조명장비(컬러 스크롤러, 무빙 라이트, 스모그머신 등 디지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과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콜로, 서로 다른 제조업체에 의해 만들어진 상이한 조명 컨트롤러를 통신 및 기계적인 측면에서 상호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Receiver Unit(수신장치)에 한 개의 Data Controlling Source(데이터 송신기/콘솔)를 연결할 수 있다.

1986년 USITT(United State Institute of Theatre Technical, 미국무대기술협회) 공학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감회의에서 USITT DMX 512(디머와 제어장치를 위한 디지털 데이터 전송 표준)를 발표하였다. 이후 1990년에 개정되었고, 이 버전은 USITT DMX 512/1990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에 USITT는 ESTA(Entertainment Service Technology Association)에 DMX 512의 유지보수를 양도하였고, 2004년 11월에 ESTA의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 규격 협회)는 공인된 기술 표준 프로그램으로 승인하였다.

DMX 512는 독립적인 512개 채널로 된 디지털 멀티플렉서 신호를 의미한다. 즉 Data Controlling Source(데이터 송신기)는 512개의 채널들을 반복적으로 송신하고, Receiver Unit(수신장치)는 512개의 채널 중 하나의 채널을 수신하여 동작하게 된다. 그러나 512개의 채널 모두가 데이터를 담을 필요는 없다. 사실상 512개의 Receiver Unit는 불가능한 셈이다.

NTSC와 PAL, 그리고 SECAM

컬러텔레비전의 표준방식들이다. NTSC는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의 약자로 TV 방송 송, 수신용 표준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의 기관이다.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당초 3원색을 차례로 보내는 CBS방식을 채택했으나, 그 후 후백 TV에서도 사용가능한 NTSC 방식을 채택했다. 한편 독일은 NTSC 방식의 개량형인 PAL(Phase Alternation Line) 방식을 제안하였고, 프랑스는 SECAM(Squentiel Couleur Mmoire) 방식을 제안하였다. 국제회의에서 이들 방식을 놓고 컬러텔레비전 표준방식의 국제적 통일을 계획했으나,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따라서 나라별로 각기 다른 방식들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유럽의 공연팀이 공연에 사용할 영상을 가져왔을 때 우리나라의 장비로는 볼 수 없다는 데 있다. 사전에 영상을 변환하거나 이를 재생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NTSC 방식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하며, PAL 방식은 유럽, 호주, 중국, 북한 등에서, SECAM은 프랑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에서 표준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슈코플러그(Schukoplug)/슈코 시스템(Schuko System)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가지고 간 휴대용 전기제품을 꽂으려 할 때 플러그의 모양이 맞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는가? 전기의 규격이 나라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특히 공연에서 낭패를 불러 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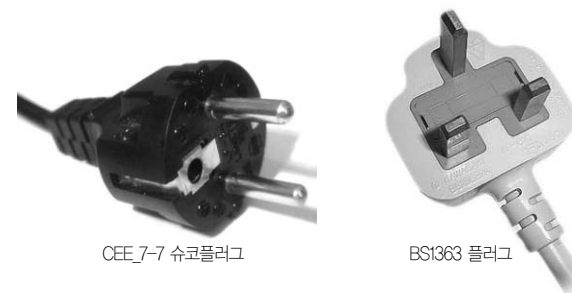
슈코 플러그란 우리가 흔히 쓰는 접지가 붙어있는 플러그를 말한다. 좀 더 정확히 슈코는 “CEE 7/4(북유럽 표준)나 보통 “TYPE F”라고 부르는 사무실과 가정용 AC전원 플러그와 소켓 시스템을 말한다. 슈코플러그는 라임브와 뉴트럴 두개의 핀이 있고 (길이 19mm, 지름 4.8mm, 간격 19mm) 감전을 방지하는 접지용 접지핀이 위아래

에 붙어있다. 슈코소켓은 플러그를 꽂을 수 있도록 구멍이 나있다. 슈코플러그와 소켓은 대칭을 이루는 ac전원이다. 이는 돌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전원선과 뉴트럴선이 각각의 핀을 통해 전기기기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유럽식 소켓과 마찬가지로 슈코소켓 역시 유럽식 플러그를 꽂을 수 있다. 슈코플러그는 슈코소켓과 사용될 경우 매우 안전하게 설계되었지만 다른 소켓과 연결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슈코 시스템은 1926년 바이에른의 전기역세서리 제조업자 Albert Buttner가 독일에서 받은 특허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 슈코 시스템은 동유럽과 유럽대륙의 40개국이 넘는 곳에서 쓰인다. 프랑스, 벨기에,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에서는 모양과 크기가 같지만 양쪽에 홈이 없고 클립형 접지 대신 접지핀이 달린 CEE7/5 플러그를 쓴다. 대부분의 현대식 슈코 플러그는 접지핀이 달린 프랑스 소켓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멍이 나있다.(CEE 7/7) EU국가와 유럽전기표준회의(CENELEC)의 표준을 따르는 여러 나라에서는 사실상 CEE 7/7이 표준 시스템이다. 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덴마크(DS Afsnit 107-2-D1 2008년부터 CEE7/5사용), 아일랜드(BS1363), 이탈리아(CEI23-16/II), 몰타(BS1363), 사이프러스(BS1363) 그리고 영국뿐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일랜드 역시 슈코플러그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나 영국(영국과 오래전부터 교류 협정이 있었다)과의 호환성의 이유, 그리고 북아일랜드와 소켓타입을 맞추기 위해 BS1363을 표준으로 하는 시스템을 채택했다. BS1363 표준화는 영국이 낡은 BS546 플러그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같이 이루어졌다. 기존의 슈코플러그는 접지되지 않는 옛 BS546 소켓과도 연결이 가능했지만 BS1363 표준을 채택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

영국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2핀 플러그와 BS 3핀 플러그의 혼용은 호환과 접지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새로운 BS1363 표준의 채택은 현존하는 어떤 시스템과도 호환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되어 접지와 다른 안전규제를 통과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1960년대에만 해도 여행이나 전자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어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통용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한 가지 문제는 아일랜드에서는 독일 같은 유럽식 배전방식이 남아있어서 영국과 달리 16A나 20A로 공급되고 30mA 누전차단기로 보호된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퓨즈와 다른 설치 부속들도 영국 표준보다는 보통 독일공업규격(DIN)을 따르고 있다. 아일랜드에서 슈코는 점차 사라지고 있어 앞으로 호텔이나 사업장과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일반 가정집과 회사에서 쓰는 표준은 BS1363이다. 하지만 일부 호텔에서는 유럽에서 온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BS1363 옆에 슈코 소켓을 설치하고 있다. BS1363 소켓에는 유럽식 플러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CEE 7-7 슈코플러그

BS1363 플러그

3. 안전

공연과 관련한 사전 협의가 극장과 있었다. 극장 측 기술감독이 참석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했다. “방염은 필수다. 먼지 또는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재료는 사전 협의가 되어야 한다. 철야작업은 할 수 없다. 셋업 일정을 충분히 잡아야 한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았다. 공기제 씨는 처음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극장 측이 ‘갑’으로서 통제하려고만 하는 느낌을 받는다. 공기제 씨, 또다시 생각한다. ‘아니, 저렇게 규제가 많은데 어떻게 상상력과 창의력이 만발한 공연을 만들란 말인가. 실제 이런 규제가 소용이나 있을까?’

!!

‘안전제일’ 언제 어디서나 강조되어야 하는 말이다. 화기사용, 분진에 의한 기계장치 오작동, 철야작업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극장의 규정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극장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은 실질적인 예측을 통해 안전사고에 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장치나 복잡한 작업이 진행될 때에는 극장의 기술 스태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률적인 자문까지 검토 받아야 한다. 안전이 확실히 담보된 공연은 질적으로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프로덕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극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살펴보자.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안전사고시 대응 방법에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

무대에서의 안전

무대에서는 고도의 연출을 위해 다양하고도 복잡한 기구들을 필요로 하고 그 기구들의 기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능숙하게 조작하여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갈수록 작업내용이 대형화, 복잡화 하고, 성격상 한정된 공간에서 복수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까닭에 극장 안에서의 작업

은 많은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미세한 실수가 안전사고로 직결된다. 따라서 기술 스태프들 특히 공연장을 관리하는 스태프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운다. 작품의 기술 스태프들 역시 공연의 완성도만큼이나 안전을 중시하도록 배워왔다. 실제로 기술 스태프들은 안전에 대해 완고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염려가 되는 부분은 짚어야 하고 거듭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극장이 무대의 연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충돌의 여지가 있어왔다. 예술가들도 예술적 완성도가 안전한 실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이뤄지리라 생각하진 않는다. 충돌은 접근하는 경로의 차이로 발생한다. 성취의 가능성을 우선하는 생각과 사고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생각은 서로 다른 접근이다. 하지만 결국은 같은 봉우리에 오르려는 셈이다. 책임의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프로덕션의 진행과정에서 얼마든지 안전한 예술적 성취는 설득력 있게 이뤄질 수 있다.

안전관리의 요점

- 각 현장의 안전수칙 작성
 - 각 현장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규칙, 법령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 조직의 신뢰성 확립과 안전작업의 의무감
 - 안전에 대한 의무감을 작업 관계자에게 심어주어 신뢰를 얻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와 축진을 위해 노력하고, 무대기술의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확립시킨다.
- 작업의 실시 준비, 회의장에서 회의(스태프회의)
 - 작업의 실시에 있어서 실시 당사자가 작업내용의 확인, 일정에 대한 검토 및 준비를 충분히 행할 것. 실시 현장의 관계자와의 회의를 철저히 할 것. 작업관계자는 주의사항 전달을 철저히 할 것.
- 정신적 주의사항
 - 안전사고는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다. 특히 하나의 조그만 실수가 다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각 작업 및 작업현장에 임할 때의 주의력, 집중력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 사고 원인의 규명과 재발 방지
 - 사고의 대소를 불문하고 사고 후에 바로 원인을 규명, 조치하여 그 원인을 배제함으로써 같은 성격의 사고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안전한 작업의 요령

- 작업 현장의 의무에 관하여

책임의 소재와 안전 작업에서의 의무를 명확히 한 후에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의무를 다하는 마음을 갖는다. 책임 순서를 판별하여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 감각을 키운다.

- 작업에서 무리는 금물이며 작업환경의 정비는 안전관리의 제1조건이다.
- 작업 중에는 오르내리거나, 뛰어 내리거나 달리거나 또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움직이거나 평탄치 않은 곳에서 움직이는 등 통상적이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작업복, 작업화는 가볍게 한다. 작업화는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하고, 맨발은 금지사항이다. 모자, 장갑의 휴대는 바람직하다.
- 무대는 어둠속의 작업이 많으므로 무대 전체의 상태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작업장을 떠날 때는 미완성 부분 및 설치장소의 안전을 확인할 것. 특히 객석 내에 설치하는 기기는 넘어지거나 낙하방지에 주의하고 미완성인 채로 방치하지 말 것.
-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는 복수로 작업하고, 서로 안전 확인을 하며,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 무심경한 작업을 배제한다. 고립된 작업장, 천정 속, 전기실, 무대지층 등의 작업에는 총체적 책임과는 별도로 개별적인 책임자를 두고 지시, 연락 등을 취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 무대철거를 장치와 함께하는 경우에는 장치에 걸린 조명, 음향기기를 먼저 철거하는 양보의 정신이 철거작업의 조기 완료의 기본이며 안전에도 유리하다.
- 기기관리와 취급에 관해서는 사용기기의 관리에 노력할 것. 불량기기의 사용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설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외적으로 불신의 원인을 만든다.
- 현장에서 케이블, 코드 등은 눈에 보이게 깨끗이 배선할 것. 그 장소의 안전,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에 대처하고 신속한 작업의 뒤처리로 이어갈 것.
- 객석 내에 배선하는 케이블, 코드는 관객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카펫이나 고무 매트 등으로 덮고 고정시킬 것.
- 작업환경의 정리 정돈은 안전관리에 연결되며, 정해진 공간을 유효하게 사용하도록 신경을 쓸 것.
- 객석 내에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객의 손에 닿지 않도록 가림대를 설치.
- 객석에는 비상구 대피로가 지정되어 있으니, 관리자의 지시를 받아 기기를 설치 및 관리한다.
- 무대 위에 조명을 놓는 경우, 무대의 포켓은 출입이 많으므로 최소한으로 고려할 것. 또한 짧은 코드를 사용한 스탠드 공간에서 경사를 이르는 상태는 넘어지고 사고가 있으므로 수직이 되도록 적절한 길이의 코드를 사용한다.
- 높은 스탠드의 이동은 양손으로 한다.

- 시설물의 파손 등에 관해서

- 반입, 반출 때에 조명기구들의 접촉, 파손에 주의. 케이블, 코드배선 때에 파손되거나, 더러워

짐에 주의한다. 물건을 이동할 때는 주위에 신경을 써서 안전을 확인하며 이동한다. 한 사람이 무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자를 구한다.

- 접착테이프의 사용에 주의한다. 바탕이 벗겨지는 물건도 있다. 철거시는 테이프의 흔적도 없도록 한다.
- 만일 과실이 일어난 경우, 관계자에게 성심껏 사죄하고 어떻게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 있는지 상담한다. 사후처리를 극장, 사내에서 모두 완결하여야 한다.

- 높은 곳에서의 작업에 관하여

-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자신의 몸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행동할 것을 지도한다. 무리하게 시키지 않고, 하지 않는다. 작업자는 안전작업을 할 의무가 있다. 작업자가 휴대하는 공구는 최소한도로 하여 낙하를 방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벨트, 헬멧의 착용을 한다. 누가 보아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며, 특히 철골을 떼어 내는 곳은 밧줄을 사용할 것. 이동은 발판, 손잡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작업 하도록 지도한다.
- 브리지, 트러스, 천정 등의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필요 공구만을 휴대하고, 완료시에는 공구 등 남기는 물건이 없도록 한다.
- 공연 중 높은 곳에서 조명기 조작의 경우, 낙하방지책을 쓴다.
- 책임자는 작업 중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지시할 것.
- 높은 곳의 작업은 작업자 당일의 조건에 좌우된다는 것을 주의할 것.
- 트러스 배튼, 조명용 브리지에 타는 경우는 극장 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갖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감시자를 둔다.
- 움직이는 타워의 사용하는 발판 확보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항상 엄수할 것.
- 움직이는 타워의 사용은 타워의 구조가 정해진 안전기준에 맞는가를 점검하고 작업을 한다. 발판위에 작업자를 놓아둔 채 움직이는 타워를 이동해서는 안 된다.
- 6자(약180cm) 이상의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는 발판의 안전을 피하고, 인원을 확보하여,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것은 사용하지 말 것. 의자, 책상은 사다리가 아님을 명심 하자.
- 움직이는 타워, 사다리 등을 탈 때, 쓰러지는 방향을 아는 것도 사고 방지책의 하나다. 언제나 밸런스를 생각한다.
- 원칙적으로 움직이는 타워, 사다리 등에 탔을 때 이동은 금지.

- 낙하사고 방지

- 무대기계(리프트, 슬라이딩, 원형무대)의 사용에 대해서 극장 관리측과 사전 및 당일 회의를 충분히 하고 반드시 출연자와 함께 운전을 하고 관계자에게 철저히 안전을 확인을 한다.

- 무대기계의 운전 중에 틈이 생기거나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고 서로 주의를 환기시켜 전락방지에 노력한다.
- 천정, 트러스, 갤러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극장 관리자와 협의하여 열려진 부분의 유무 및 작업 확인을 한다.

- 화재예방에 관해서

- 전기 회로의 설계, 장치 등의 설계는 시행 장소에 적합하게 하고 준수 사항을 지킨다.
- 극장의 방화 시설(소화기, 소화전, 비상구 등)의 정확한 위치와 소재를 확인하고 주지시킨다.
- 연출 상에서 필요한 위험물, 화기류 사용에 대해서는 미리 극장 관리자와 회의, 관찰관청(소방서)에 금지행위 해제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승인 요건을 준수한다.
- 무대에서 화재 등 긴급사태가 발생시, 발견자는 침착히 확인을 하고 극장 관리자에게 통보, 주위의 작업자에게도 알린다.
- 초기 소화는 조명을 밝히고 소화 작업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한다.
- 장치 등에 사용하는 막류, 깔개 천, 합판 등에 방염가공이 필요하다.
- 무대 지정된 범위 내 금연이며 화기 및 위험물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 특히 흡연 또는 불을 사용한 연출의 경우에는 화재 책임자를 정해 관리하며, 사용 후는 안전 확인을 한다.
- 막, 장식품류 등에 조명기 등의 접촉 및 장시간 집광되지 않는지, 특히 작업과 연습 때에 주의할 것. (피아노, 덧마루 등에 긴 시간 집광된 광속에 의해 발연, 또는 종이눈 등이 조명기 안에 들어가 발연, 발화된 사례가 있다.)
- 작업, 연습, 공연시의 장치 등의 전환 때 조명기구와의 접촉이 없는지 관계자 서로가 주의한다. 망사막, 장치물의 사용에는 충분한 주의를 요한다.
- 무대에서 사용하는 기구 코드, 연장 코드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정격품)
- 사용기구 용량과 사용 코드와의 허용전류의 확인.
- 긴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용량에 맞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 무대 콘센트에서 전원으로 사용하는 보면대등, 장식전구등 용량이 적지 않은 부하에는 적합한 용량의 과전류 차단기를 전원의 근처에 설치한다.
- 장식전구에 대해서는 열이 있음을 인식, 취급에 주의한다.
- 사용 중의 커넥터, 연결부분의 발열 및 코드의 발열에 주의한다.
-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 접촉저항을 충분히 낮추고 확실히 잡아매서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여 누전을 방지한다. 더욱이 연결부분의 열에 의해 절연 테이프가 녹는 일이 있다.
- 분기코드 사용은 절대로 피하고 분기 기구를 사용한다.

- 수리를 요하는 코드, 기구 등은 반드시 기록하고 빠르게 수리한다.

- 낙하물에 의한 사고 방지

- 조명기 행거의 잠금 나사 확인
- 주물행거는 부서질 우려가 있어 나사를 확실히 조이고, 조정을 위해 두드리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 조명기를 매달 때는 낙하 방지용 와이어, 사슬 등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효과기의 기기와 렌즈도 낙하 방지책을 쓸 것. 렌즈를 받쳐주는 테두리의 조명기 용접은 확실치 않다. 또한 다른 물건과의 접촉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렌즈의 핀트가 결정되면 불연성 테이프 프로 고정하면 좋다.
- 조명기의 색지틀, 빔가리개 및 기구를 낙하방지용 묶는 선(바인더) 등으로 고정.
- 전구, 렌즈 등의 유리파편의 낙하방지는 파손 렌즈, 변형전구의 사전교환, 기구에는 금속망 등의 사용을 고려한다.
- 객석 내에 매달린 조명기에 대해서는 그 작업자를 지명하여 로프를 거는 방법의 지시, 가능하다면 자신이 확인한다.
- 프러نت 조명실, 천정 조명실, 중앙 조명실에서의 색지의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공연 중의 색지 사용에는 낙하방지책을 쓴다.

- 장치봉, 조명봉, 트러스에 대해서

- 장치봉, 조명봉, 트러스 등에 물건을 다는 작업의 경우 관리자와 중량제한 수칙을 확인한다.
- 승강설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웨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사용 전과 사용 후의 확인을 기록하고 그 공연이 끝남과 동시에 복원한다.
- 어쩔 수 없이 생긴 불균형으로 생긴 느슨해진 밧줄에 대해 작업자 전원에게 주지시키고 로프를 꼬아서 스토퍼(잠금장치)를 잠그고 끈 등으로 2개소 이상 묶는다.
- 승강 때에는 배튼, 트러스의 안전 확인을 하는 감시자와 조작반과의 연락이 완전하도록 한다.
- 출연자, 관객 등이 있는 장소에서의 승강 작업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반드시 감시자를 둔다.
- 배튼은 내려진 상태에서 균형을 잡더라도 작업 중에 조명기의 유부착의 상태에서 불균형이 일어난다. 스토퍼(잠금장치)는 그것을 생각해서 반드시 잠가야 한다.
- 감시자는 승강 작업 중 자리를 떠서는 안 되며 떠날 경우에는 대리자를 세워야 한다.
- 로프, 끈, 와이어를 안전하게 묶는 것을 배워야 한다.
- 전동승강배튼의 작업 중에는 급제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둔다.
- 전동승강방식은 '미끄럼' 이 생길수도 있다. 조작은 반드시 극장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주의 사

항을 엄수한다.

- 무단조작은 절대로 금하며, 미경험자에게 배튼 조작은 시키지 않는다.

무대기계 설비의 안전운전 대책

무대에서는 점검만이 최선의 안전사고 예방책이다. 특히, 무대사고는 기계설비 오동작 및 점검 마비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물론 사고라는 것이 사전에 감지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기계 설비에서는 이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 기계 발생음이 불규칙적이고 고음으로 불량음을 발생시킨다.(청각적 점검방법)
- 동작 시 부하 축의 균형이 맞지 않고 다른 조물설비에 간섭을 받는다.(시각적 점검방법)
- 설비의 절연 상태 불량으로 인한 사고 시에는 냄새를 발생시킨다.(후각적 점검방법)
- 구동설비에 전기적인 사항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1회 이상의 오동작 상태를 발생시킨다.(육감적 점검방법)

위와 같이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감각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 운영 시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많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 사항은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확인하는 방법이지 근본적인 예방 대책일 수는 없다.

그 예방대책으로는,

- 기계설비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한다. (조작자의 기술적 사항 숙지 능력 향상)
- 기계설비의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1일 1회 정도 직접 육안을 확인하도록 한다.(부품의 교체 시기, 교체사유 및 기공자 등을 상세히 명기하도록 한다.)
- 돌발사고 시 운영자 및 조작자의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키운다.(대처방안의 게시 및 교육)
- 조작자의 잦은 교체는 안전과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다.(숙련된 조작자에 대한 인사발령 및 이직으로 미숙련자가 운영함으로써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정기적인 점검과 사용 연한을 초과한 노후 설비에 대한 교체, 그리고 운영자의 성실한 자세와 지속적인 관심만이 무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무대에서의 관리 점검

- 조물배튼의 와이어 및 와이어 클립의 고정은 확실한가. 와이어로프의 장력은 균등한가, 소선에 이상이 없는가 등을 확인한다.
- 전동조물 및 그 밖의 초과 동작되어 정지하지는 않는가 등을 확인한다.
- 조물배튼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 a. 조물 레벨은 수평으로 되어 있을 것.
 - b. 파이프에 균열, 상처가 없을 것.
 - c. 승·하강은 정확하게 정지되도록 할 것.
- 무대표면에 대한 점검은 아래의 사항에 주의하고, 기자재의 낙하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불량한 곳은 보수한다.
 - a. 부푸러기 등의 상처가 없는가.
 - b. 못 등은 남아 있거나 튀어나와 있지 않은가.
 - c. 리프트 등의 사이는 적당히 벌어졌는가.
 - d. 무대의 방화 셔터 라인은 항시 확보되어 있는가.
- 막류의 점검
 - 막의 파손이나 매달린 상태가 다른 조물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가에 주의한다.

- 갤러리 점검로(로프대)에서 하는 관리 점검

- 웨이트 박스 점검
 - a. 파손, 비틀어짐은 없는가.
 - b. 웨이트의 적재는 올바른가.
 - c. 잠금장치는 확실히 고정되고 작동은 확실한가.
 - d. 조물 볼트 등의 부착은 확실한가.
 - e. 가이드슈 부분의 마모도는 정상인가.
- 웨이트 레일의 점검
 - a. 균열이나 비틀어짐은 없는가.
 - b. 레일 면은 부드러운가.
 - c. 취급부에 이상은 없는가.
 - d. 급유상태는 정상인가.
 - e. 잠금 볼트, 앵커볼트에 이상은 없는가.
- 마닐라로프(Manila Rope)의 점검

- a. 소선에 금이 생기지 않았는가.
- b.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았는가.
- c. 로프가 벗겨지지 않았는가.
- d. 결속단부는 확실한가.
- e. 줄이 너무 늘어지지 않았는가 또는 탄력이 있는가.
- f. 마모피로가 생기지 않았는가.

- 트러스에서의 점검

• 웨이트 박스의 점검

- a. 낙하물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트러스에 물건 등을 놓지 말 것.
- b. 조물베튼 등의 와이어 활차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 c. 활차의 마모상태는 정상인가.
- d. 고정 볼트류는 확실하게 되어 있는가.

관련 법규

공연예술 분야 관련법

- 공연법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을 하는 법이다. 공연예술에 관한 기본 정의부터 공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다루고 있는 기본법이다. 공연과 공연장의 설치, 운영,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 공연장 등에 관한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 관련 주요 규정〉

- a. 재해예방조치: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공연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은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예상되는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연법 제11조 제1항)

- b. 무대시설안전진단: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 설치공사의 착수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공연장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기·수시 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당해 공연장운영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연법 제12조) 안전진단은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조치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주요 내용은 국어의 발전 및 보급,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등에 대한 규정이다.

특히 극장의 안전과 직접 관련한 조항은 없으나, 문화예술공간의 설치에 대한 내용은 알아두면 좋겠다.

〈참고〉

- a. 공연, 전시 및 문화 보급,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문화시설이라 말하며,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은 '공연시설'에 속한다. 시, 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을 종합공연장, 시, 군, 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을 일반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을 소공연장으로 구분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건설 분야 관련법

-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는 법으로, 건축에 관한 기본법이다. 건축물의 건축과 유지, 관리, 대지 및 도로, 구조 및 재료,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설비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법에서는 용도별로 건축물을 분류하는데, 공연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하고, 그 외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한다.(건축법시행령 제3조)

〈안전 관련 주요 규정〉

- a. 피난시설의 설치
 - 직통계단의 설치: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4조)

- 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5조)
-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3층 이상의 층에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이는 층은 직통계단 외에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6조)
- 관람석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문화 및 집회시설은 관람석으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38조)
- 옥외 광장의 설치: 5층 이상의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40조)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공동주택 등과 공연장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건축법 제39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
- 지하층의 구조: 공연장의 용도로 쓰이는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제39조)

b. 방화시설의 설치

- 방화구획의 설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각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해야 한다. 단,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39조)
- 배연설비의 설치: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87조)
- 건축물의 내화구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단,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않는다.(건축법 제40조)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의 내부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건축법 제43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 관리를 통해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을 증진시

키기 위한 법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조치, 시설물의 유지 관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로 나뉜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물의 2종 시설물로 분류하였다.

〈안전 관련 주요 규정〉

a.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리 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며, 그 계획을 공공 관리 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 관리 주체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b. 안전점검의 실시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소관 시설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3년에 1회 이상의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소방 분야 관련법

-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검사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용 기계, 기구의 형식 승인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이다.

극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로 관리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근린생활 시설에 속하고 그 외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속한다.

〈안전 관련 주요 규정〉

a. 공연장의 소방 설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제연설비 등의 소방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b.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에 대해 폐쇄, 훼손, 변경 등의 그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c. 소방 대상물의 방염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서 사용하는 실내 장식물과 그 밖에 유사한 물품은 방염 대상 물품으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염 대상 물품에는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 등이 포함된다.(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게 하기 위한 법률로, 공연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해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특수건물에 속한다.

〈안전 관련 주요 규정〉

a. 손해배상보험 가입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에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 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한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b. 안전점검

한국화재보험협회는 보험계약 체결 시 또는 보험 계약 갱신마다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기 분야 관련법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에 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로, 공연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하나로 분류 되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항목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안전 관련 주요 규정〉

a.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공사로부터 기준에 알맞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전기사업법 제66조)

보건복지 분야 관련법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공연법이 정하는 객석 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고, 실내 공기와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안전 관련 주요 규정〉

a.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실내 공기를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고, 오염허용기준 이상의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안전 관련 주요 규정〉

a. 소독조치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은 4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1번 이상, 그 외는 3개월에 1번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4)

기타 극장 관련 법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연장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법의 규정에 따라,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편의시설은 장애인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와 통행이 가능한 복도,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와 화장실, 그리고 전체 관람석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관람석 등이다.

- 주차장법

문화 및 집회시설 부설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가 평균 70력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 관리해야 한다.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a. 공연 간판의 정의

공연 간판이라 함은 공연, 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 그림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 건물의 벽면 또는 공연 건물의 부지에 지주 등을 세우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b. 공연 간판의 허가 또는 신고

공연 간판을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지역, 장소 및 물건에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표시의 경우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 표시의 경우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무대예술전문인제도

1999년 문화관광부에서 무대예술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서, 무대기계, 무대음향, 무대조명 세 분야의 국가자격인증제이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무대예술전문인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대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무대예술전문인의 자긍심을 높인다. 둘째로 기술 향상은 곧 공연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공연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현재는 국립중앙극장의 자격검정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1급에서 3급까지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 1년에 한 번 필기와 실기 시험을 실시한다. 공공공연장과 대통령령이 정한 공연장에는 무대예술 전문인들이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배치대상 공연장	등급	자격종류별 배치기준		
		무대기계 전문인	무대조명 전문인	무대음향 전문인
객석 1천석 이상	1급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객석 800석 이상 1천석 미만	2급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객석 500석 이상 800석 미만	3급 이상	1인	1인	1인

비고 1. 2개 이상의 공연장으로 구성된 복합 공연장의 경우에는 개별 공연장별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2. 상기 배치대상 공연장의 객석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그 수를 셀 수 없는 경우에는 객석이 되는 바닥 연면적을 기준으로 1석을 1제곱미터로 보아 적용한다.

TIP 방염의 현실

방염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규는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 다만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방염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사전적으로 방염(防炎/防炎, Flame Retardancy/Flame Resistance)은 불에 타지 않게 막는다는 뜻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는 표현하자면 외부의 불꽃을 제거하면 연소가 확대되지 않도록 약제 처리된 물질이나 물체의 표면 상태를 말한다. 혹은 목재나 플라스틱에서 착화를 어렵게 하고 연소속도를 늦추는 처리 또는 그 효과를 의미한다.

무대 세트에 방염 처리를 한다는 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그 표면에 악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방염필증이란 이런 처리와 상태를 갖추었다는 증명이다. 그렇다면 방염 처리는 어디서 하고 방염필증은 누가 발행을 하는가? 만일 방염성능을 검사한다면 누가 어떻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가부를 판단하는가? 공연장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방염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일단, 공연장을 특정 소방 대상으로 분류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그 근거가 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인 공연장에서, 블라인드를 포함하여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카펫이나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사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무대막, 영화 상영에 사용되는 스크린을 사용하려면,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된 것이 아니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방염처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방염업) 등록을 한 사람이나 업체만 가능하다.

만일 방염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위에 나열한 물품들을 재료로 사용한 무대 세트나 장치가 공연장에 반입되었을 경우, 법률 제12조의 두 번째 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 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몇 시간 뒤 공연을 앞둔 세트라도 위 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관리 감독 기관에서 철거를 지시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통과하기 전까지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방염성능검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담당하며, 합판·목재류의 경우처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했을 때의 방염성능검사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수행하는 검사에서는 '방염성능 기준(KOFEIS 1001)'이라는 검정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은 방염물품의 종류와 방염성능의 기준, 측정 방법 등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무대 세트와 막류의 방염에 오랜 경험을 가진 업체의 관계자는 방염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규가 외국에 비해서도 아주 잘 갖춰져 있는 편이라고 한다. 다만,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방염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은 해당 소방서이다. 그렇지만 어느 소방서에서도 공연 때마다 들고나는 무대 세트와 막류를 공연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지 않는다. 방염 처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공연장의 소방책임자를 대신하여 스태프들이 방염 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뿐이다. 공연의 기술감독이나 무대감독 역시 세트의 제작 과정을 체크하며 방염 처리와 증명을 요구한다. 나쁜 해석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간혹 실제 방염 처리 여부나 그 확인보다, 서류상의 증거인 방염필증의 유무에만 신경을 쓰기도 한다.

해당 세트나 막류를 제작한 무대제작소나 업체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방염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게다가 어떤 공연장이 방염에 철저하고 어디가 덜 철저한지도 알고 있다. 그렇다고 공연장을 가려서 방염 처리 여부를 달리하지는 않는다. 법규의 준수를 떠나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말해 돈이다. 대부분의 무대제작업체가 영세한 한국의 상황에서 방염 처리에 대한 비용은 무대 제작비용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염 처리된 재료들은 일반 재료들에 비해 비싸다. 또 일반 재료들이 낼 수 있는 효과들을 아직 방염 처리된 재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다. 쉬운 예를 들자면 방염 염료의 색깔 수는 일반 염료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작화 표면에 방염처리를 하면 원래의 색이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간혹 편법이 쓰인다. 작화된 합판의 뒷면에만 방염처리를 한다든지 막류의 방염처리를 통째로 적시는 방식이 아니라 분무기로 방염액을 뿌리는 식이다. 방염 처리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후 방염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방염업체에 따라 부르는 게 값인 경우도 있다. 어떤 방염업체에서는 무색의 수성페인트를 얇게 바르고 방염 처리를 한 것처럼 눈속임하기도 했다. 그래서 심지어 방염필증이 위조되기도 한다. 과거에 받았던 방염필증이 재촬영되는 것이다. 무대제작업체의 의도만으로 이런 방식들이 통하지는 않는다. 공연의 기술감독이나 무대감독들도 공연장의 스태프들도 알면서 모른 채 할 뿐이다. 아주 극소수의 경우를 두고 한 이야기이니 확대 해석하지는 않길 바란다.

현재의 공연 제작 시스템에서는 무대제작업체가 이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냥 관례적으로 암묵적으로 무대제작업체가 책임질 뿐이다. 그렇다고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무대제작업체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현재의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연이 제작되는 시스템 안에 방염업체의 역할이 끼어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무대제작소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연기획자들이 방염 처리에 대한 예산 항목을 인식하고 추가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방염과 소방 안전 절차는 극장 기술자들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들도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의 실정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프로듀서들을 거론하여 주의를 시키는 대목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방염의 방법과 절차가 단지 기술적인 영역이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책임 지워지는 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공연장뿐만 아니라 공연제작소도 기획자도 준비해야 한다. 또 무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방염 소재들이 나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방염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는 태도이다. (월간 [The STAFF] 2008년 3월호 중에서)

V. 기술관련 예산항목

기술관련 예산항목

드디어 공기계 씨한테 팀장님이 차기 공연의 기본 디자인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주시고는 기술관련 기본 예산을 짜보라고 하신다. 이제 점차 자신의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가는 것 같아 약간 들뜬 마음에 이전 공연에서 여러 일로 친하게 된 기술감독님께 자문을 구했다. 참고하라면서 다양한 견적서 샘플을 보내주셨다. 또 다시 부딪히는 용어의 압박... 생각했던 것 이상의 항목들이 준비한 것을 보고 혹시 나한테 딱 마음이 있으신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까지 한다. 하지만 내용을 알아야 할 말도 하지 않겠는가.

기술관련 예산 항목들은 어떻게 짜야하는지, 그리고 기준 금액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공기계 씨는 또다시 옥상에 올라가 줄담배만 피운다.

!!

공기계 씨는 다양한 견적서 샘플을 보면서 다음의 것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투입되는 작업의 규모와 인력, 그리고 작업 내용이 한 눈에 보인다는 것. 또한 예산규모가 커질수록 작업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구현할 수 있는 효과가 커진다는 것. 하지만 언제나 해당단체의 공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예산을 기본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 항목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자. 그러면 그 다음은 필수 항목부터 적절한 금액을 산출, 기본 예산에 반영하고 절감분으로 보조 항목을 채워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작업이 될 것이다. 기본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적절하게 배정하여 기본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까? 견적서 샘플을 들여다보자.

기술관련 예산항목

STAFFSEOUL

견적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87-132 유니빌 302호 TEL. 02-598-7920,7983 FAX.02-598-7921

제작사 이름

귀중

사업자등록번호	214-00-00000
상호 대표	
(주)스튜디오컴퍼니	최종집
업태 종목	
서비스	공연관련산업외

작품명 (공연기간 2010. 1. 9-1, 11)

감사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합니다

₩0 (V.A.T 포함)

견적내역		1 page			
항목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A 인건비					
기술감독 & 무대감독팀	설치&리허설&공연&철수			0	
무대제작	제작&설치&철수			0	
조명	설치&리허설&공연&철수			0	
음향	설치&리허설&공연&철수			0	
영상	설치&리허설&공연&철수			0	
B 무대제작비 & 장비					
무대제작				0	
음향장비				0	
조명장비				0	
영상장비				0	
C 무대소모품	플로어태일, 잡자재류			0	
식비				0	
D 일반관리비/예비비	(A+B+C)의 5%			0	
E 기업이윤	(A+B+C+D)의 15%			0	
합계	A+B+C+D+E			0	
F 절삭액	10,000 단위 이하			0	
G V.A.T	합계의 10%			0	

가상의 공연에 대한 견적서의 예이다. 살펴보면 크게 기술 스태프의 인건비와 무대제작비 및 장비 대여료 항목이 있고 그밖에 소모품과 식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의 항목이 있다. 이중 인건비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건비 항목

항목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기술감독		1인	0	0	
무대감독	설치&리허설&공연&철수	5일×1인	0	0	
무대조감독	설치&리허설&공연&철수	5일×1인	0	0	
무대진행	설치&리허설&공연&철수	5일×1인	0	0	
무대제작		5일×3인	0	0	
작화		2일×2인	0	0	
장치 설치		1일×3인	0	0	
장치 철수		1일×3인	0	0	
조명감독	설치&리허설&공연&철수	5일×1인	0	0	
조명오퍼레이터	설치&리허설&공연&철수	5일×1인	0	0	
조명 Crew	설치&리허설&공연&철수	5일×2인	0	0	
조명 Crew	설치&철수	2일×2인	0	0	
음향감독	설치&리허설&공연&철수	4일×1인	0	0	
음향 Crew	설치&리허설&공연&철수	4일×4인	0	0	
영상감독	설치&리허설&공연&철수	3일×1인	0	0	
영상 Crew	설치&리허설&공연&철수	3일×2인	0	0	
합계				0	

- 기술감독은 일반적으로 프로덕션과 준비기간에 따라 계약을 한다. 공연예술축제 역시 준비기간과 작품의 수에 따라 계약을 맺는다.
- 무대감독과 무대조감독, 무대진행의 일 단가는 대략 정해져 있으며, 공연의 장르(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에 따라 다르다. 또한 연습기간의 단가와 설치 및 공연 때의 단가가 구별되어 있기도 한다.
- 무대제작스태프의 인건비도 일정한 단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특수한 기능을 가진 스태프의 일 단가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훨씬 높을 수 있다. 또한 제작과 설치, 철수로 인력 사용 계획이 구분된다.
- 조명과 음향, 영상 역시 일정한 단가가 형성되어 있으며, 설치와 공연진행에 따라 인력 사용 계획이 달라진다.
- 무대예술전문인은 표준 노임단가가 책정되어 있다. 하루 8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무대예술전문인 1급: 180,039원

무대예술전문인 2급: 124,534원

무대예술전문인 3급: 73,198원

무대제작비 항목

항목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장치 A		3EA	0	0	
장치 B		2EA	0	0	
장치 C		1EA	0	0	
소품 a		5EA	0	0	
소품 b		2EA	0	0	
소품 c		2EA	0	0	
작화막	16m × 9m	1EA	0	0	
페인트 및 안료	못, 용접봉 등		0	0	
기타 소모재료			0	0	
운반비	2.5톤 트럭		0	0	
합계				0	

- 장치와 소품의 비용은 재료와 제작비를 합한 금액이다.
- 작화막과 같은 막 종류는 보통 재료와 재봉비 및 제작비를 합한 비용이다. 그리고 작화에 들어가는 안료나 페인트와 같은 재료들은 위와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잡는다.
- 운반비는 설치와 철수를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음향 & 조명 & 영상장비 대여 항목

항목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음향					
Console	YAMAHA PM5D	1EA	0	0	
	MIDAS Venice 160	1EA	0	0	
Monitor	Martin F-12	6EA	0	0	
CDP	Denon 4500CDP	1EA	0	0	
Reverb	Lexicon Pcm91	1EA	0	0	
	YAMAHA SPX2000	1EA	0	0	
COMP	Amek9098	4EA	0	0	
MIC	Sennheiser MKE-2 외	10EA	0	0	
Accessory	Mic Stand, Cable 등	다수	0	0	
AMP	Ampeg bass Amp	1EA	0	0	
	Marshall Guitar Amp	1EA	0	0	
합계				0	

항목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조명					
조명기	Source Four 36°	10EA×4일	0	0	
	Source Four 26°	10EA×4일	0	0	
합계				0	

항목	구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영상					
LCD Projector	PLC-XP46K 4,500 ANSI Lumen	1EA	0	0	
	RGB Distributor P/2 DA2	1EA	0	0	
합계				0	

- 음향장비 대여 항목은 극장의 장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가상의 공연에 대한 견적이다. 이 경우 당연히 사전에 음향시스템디자인에 따라 결정된 장비의 내역이다. 업체별로 보유한 장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장비의 선택에 따른 업체 선택의 폭이 좁은 편이다.
- 조명장비는 대부분 극장의 장비를 이용하지만, 모자라는 경우 대여를 통해 장비를 공급해야 한다. 조명기 대당 단가와 사용일수를 곱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이들 장비의 표준 단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략적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에 따른다.
- 견적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야외공연에서는 발전차나 트러스, 틀비계를 대여해야 할 때가 많다. 발전차의 전원은 음향과 조명이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위상의 차이로 특히 음향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명용과 음향용 발전차를 별도로 준비하며, 필요한 용량에 맞춰 해당 용량의 발전차를 구비하면 된다. 틀비계나 트러스도 사전에 계획된 수량에 따라 대여하게 되는데, 주로 조명부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조명감독을 통해서 대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비교적 가격이 낮으면서 안전하고 좋은 장비를 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무조건 저렴한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장비를 구해서 공연을 진행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없는 걸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기타 항목들

- 무대 소모품은 세트업 때 필요한 각종 테이프류와 못, 나사못, 케이블타이와 같은 소모성 재료들을 말한다.
- 일반관리비는 생산품의 제조, 판매 따위의 기업 전반에 걸친 관리 부분에 드는 비용이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일 때 발생하는 항목이다. 보통 주요 항목의 합계 중 5%로 산정한다.
- 기업이윤 역시 법인일 때 발생하는 항목이다. 주요 항목과 일반관리비의 합계 중 15%로 산정한다.

TIP 극장 부대시설 사용 항목의 예

대관료 외에 극장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할 때 유지 관리 비용의 명목으로 극장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극장마다 대개 이러한 규정이 있으며, 사용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음은 국립극장의 부대시설 사용료 규정이다.

1. 유선 마이크로폰 외국산 50대 1회 3,000 5개까지 무료
2. 모니터 스피커 외국산(UM-1P) 4대 1일 20,000
3. 무선 마이크로폰 독일산 Sennheiser(UHF) 30대 1회 20,000 건전지 무료
4. 장면 프로젝터 PANI HMI 4Kw 2대 1회 50,000 필름 부담
5. 장면 프로젝터 PANI HMI 1.2Kw 8대 1회 40,000 필름 부담
6. 장면 프로젝터 PANI 할로겐 5Kw 2대 1일 10,000 필름 부담
7. 빔 프로젝터 LCD 2,200ANSI 1대 1회 30,000 영상자료 부담
8. 빔 프로젝터 LCD 6,500ANSI 1대 1회 50,000 영상자료 부담
9. 빔 프로젝터 LCD 10,000ANSI 1대 1회 200,000 영상자료 부담
10. 빔 프로젝터 DLP 12,000ANSI 1대 1일 300,000 영상자료 부담
11. 자체공연 영상자료 복사 VHS(3시간기준) 1식 1회 30,000 VHS, DVD 무료
12. 공연실황녹음 및 자료복사 DAT, 카세트(3시간기준) 1식 1회 30,000 카세트, CD 무료
13. 포그머신 Viper 2.6 2대 1회 30,000 포그액 무료
14. 조명기 PAR46/250W 100대 1일 1,000
15. 조명기 PAR64/1Kw 80대 1회 2,000
16. 조명기 Source-4(575w/750w) 50대 1일 2,000
17. Moving Light HMI 1.2kw(Profile) 16대 1회 50,000
18. Moving Light HMI 1.2kw(Wash) 10대 1일 50,000
19. 연주용 피아노 영창 K-185 1대 1회 30,000 운반비 및 조율비 피대여자 부담
20. 연주용 피아노 영창 U-121FBX(오크) 1대 1일 20,000 운반비 및 조율비 피대여자 부담
21. 별막 18m×8m / 광섬유 1식 1회 150,000 운반비 및 조율비 피대여자 부담
22. 이동무대 193.4m²(58평) 1식 1편 3,000,000 트러스, 막류 별도
23. 강관조립식비계 30조 1일 1,000
24. 이동용 합창단석 100인용 1식 1편 52,000
25. 합창단석 및 연주단석 1단~2단 1식 1편 100,000 깔개천 무료
26. 합창단석 및 연주단석 3단 1식 1편 200,000 깔개천 무료
27. 합창단석 및 연주단석 4단~5단 1식 1편 300,000 깔개천 무료
28. 합창단석 및 연주단석 6단~8단 1식 1편 500,000 깔개천 무료

- ※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터, 무빙라이트는 10일초과시 11일부터 20일까지 20% 할인, 21일 이후 30% 할인
- ※ 대여료 기준은 연습은 무료로 하고, 공연은 품목에 따라 횟수(1회), 일수, 작품 당으로 한다.(단위 : 1대, 1조, 1식, 1m², 1편)
- ※ 덧마루, 이동용 합창단석, 합창단석 및 각종 디자인은 작품 당으로 한다.
- ※ 유선마이크로폰은 5개까지 무료지원.

- ※ 무선마이크 건전지와 포그머신액, 합창단석 깔개천은 극장에서 부담.
- ※ 자체공연 영상 및 녹음자료 복사, 대관공연 실황녹음에 소요되는 테이프 중, 카세트테이프, CD와 비디오테이프(VHS), DVD는 극장에서 부담. (그 외의 것은 피대여자가 직접 제출)
- ※ 이동무대는 바닥판 65장, 바닥판 지지대 21개, 6단 계단 4개, 운반대 5개 포함된 가격이고, 트러스 및 막류 사용료는 별도임(6일간 까지 1회로 계산)
- ※ 장면 프로젝터, 빔프로젝터에 소요되는 각종 필름 및 영상은 피대여자가 제작부담.
- ※ 공연해설전광판 피대여자의 입력자료 A4용지 1매 이상 또는 10장면 이상 요구 시 입력 및 조작자(PC에 능숙한 사람) 부담.
- ※ 별오름·하늘극장 피아노의 조율 및 운반은 전문조율사에게 의뢰하고 사용 후 피대여자가 원상태로 운반 및 조율을 하며 비용은 피대여자가 부담한다.
- ※ 작품 디자인 및 기술(조명, 음향, 무대장치, 소품, 장신구, 무대감독)은 우리극장 공연에서만 사용(저작권 1년 이내의 재공연일 경우: 무료
다수의 작품을 함께 공연할 경우 공연 1회에 공연되는 작품은 1작품으로 간주함.
- ※ 각 공연장의 피대여자들이 동일 장비대여를 요구할 경우 공연장비대여신청서 순서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한다.

VI. 극장용어 해설

가

가발수 Wig Dresser: 가발을 공연자에게 씌우고 손질하는 이
가수 Singer: 공연에 필요한 음악을 자신의 목소리로 연주하는 사람
가운데/무대중앙 Center Stage: 본무대 중앙
객석감독 House Manager: 로비공간과 객석 공간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감독하는 사람
객석안내원 Usher/Auditorium Attendant: 객석공간에서 좌석을 안내하고 인쇄물 등을 팔거나 나누어주는 사람. 안내원 중의 일부가 수표원과 물품 보관원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갤러리 Gallery/Fly Gallery: 장치를 매달거나 조명작업 또는 기타 무대장치물들의 작업을 위한 무대 옆의 천정 벽 공간
경비원 Stage Doorman: 공연자 출입구(Stage Door)를 지키며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 공연자에게 온 우편물과 용건 메모 등을 전달하는 일도 한다.
공연자 휴게실 Green Room: 출연자와 스태프들을 포함한 전체 공연자들의 휴식장소. 공연전이나 공연 시에 주로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며 전통적으로 벽면에 녹색 칠을 한 공간이었던 것에서 그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공연진행팀/무대 크루 Stage Crew: 공연기간 중 무대 뒤에서 일하는 작업자들. 무대감독이 총괄 진행한다. 부무대감독, 무대장치팀장, 무대장치팀(장치, 상부전환, 바담전환수, 극장조명기사, 극장막잡이, 극장무대기사, 소품팀장, 소품팀, 의상팀장, 의상팀, 조명팀장, 조명팀, 음향팀장, 음향팀, 특효팀장, 특효팀 등으로 구성된다.)
궤도/트랙 Track: 장치바닥에 장치의 동선대로 파낸 폭 1cm정도의 직선 혹은 곡선의 홈
그리드/그리드아이언 Grid/Gridiron: 무대탑 상부에 설치되어 무대 기계 설비의 상부 지지대를 의미하며, 기계 설비의 지지 역할을 하는 철골로 된 극장 고정 구조물. 배튼 상부 이동의 최대점 위에 설치된 것으로 무대 기계장치의 하중을 지탱하며, 특수 장치를 설치하기도 한다.
극단매니저/극단장 Company Manager: 스태프와 배우들의 급여 지급, 단체에 필요한 설비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후생복지를 담당하는 사람
극작가 Playwright: 희곡을 쓴 작가
극장 사무실 Theatre Management Office: 극장의 경영과 관리를 위한 사무공간이다. 대관, 운영, 홍보, 기획, 매표 등 극장의 모든 분야의 사무공간이다.
극장막 Curtain/Stage Drapery: 무대에서 쓰이는 막. 본막을 제외하고는 대개 검정색이며 무대장치로 작화된 장치막(drop)과 구분된다.
극장무대기사 Stage Machinery Operator: 극장 무대 기계의 조작을 맡은 극장직원
극장상부전환수 House Flyman: 극장에 소속된 상부전환수로서 매달기 시설을 관리하고 무대감독의

큐에 따라 오르내림을 담당하는 사람
극장조명기사 House Electrician: 극장에 소속된 조명기사로서 조명시설 관리 및 유지하는 사람
기술감독 Technical Director/Technical Manager/Master Carpenter: 공연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
기술조감독 Deputy Technical Director: 기술감독을 보조하는 사람
기준선 Plaster Line/PL/Base Line/Masonry Line: 프로시니엄 아치의 뒤쪽 모서리를 잇는 가상의 선. 무대 앞, 뒤 방향의 치수를 잴 때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끝막 Draw Curtain/Traveler Curtain/Traverse: 가운데로부터 양옆으로 열리는 막. 다리막과 겹하기도 한다.
끝막트랙/커튼레일 Curtain Track/Traveller Track: 끝막을 매단 캐리어(Carrier)를 지지하고 그 길이 되는 금속물

나

날개무대 Wing Stage/Wings/Bay Area: 본무대와 옆무대 사이에 다리막이 있는 부분의 무대 공간. 배우나 장치가 대기하는 곳으로 주로 쓰이며 좌우로 각각 4-5m정도가 필요하다. 프로시니엄 무대의 경우 좌·우측의 날개 공간(Left/Right Wing Stage)이 준비되어 있다
녹음기사 Recording Engineer: 공연용 음향을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사람

다

다리막 Wing Curtain/Leg Curtain/Side Curtain/Side Masking: 본무대 양 옆에 세로로 높게 걸려 수평시각선을 가려주는 막. 주로 검정색이다.
단역 Extra/Supernumerary: 매우 비중이 작은 연기 역할을 맡은 배우
달리 Dolly: 무대에서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바퀴가 달린 낮은 짐차를 말한다.
대본작가 Librettist/Book Writer: 원작이나 구성개념을 공연에 적합한 대본으로 만드는 사람. 원작이 다른 장르의 작품인 경우 각색자라고도 한다.
덧마루 Platform: 1)무대 장치의 하부 조직의 구조물 및 무대의 높낮이나 계단 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루이다. 극장에 따라 정사각형 또는 사각형 등의 다양한 규격을 가지고 있다.
 2)덧마루의 치수는 '자'와 단위를 사용하며 1자는 대략 30cm이다.
 3)계단형 덧마루: 접거나 분리할 수 있게 틀(Flat)에 경첩을 붙여 계단형태를 이룬 덧마루이다.

뒷무대 Rear Stage: 하늘막 뒤의 무대 공간. 본무대크기 이상이면 좋다.

드라마투르기 Dramaturge: 연출가와 함께 작품의 해석 및 각색 작업을 하며 공연단체의 문학적인 조연과 레퍼토리 선택에 관여하는 사람

디자이너 Designer: 디자이너들은 조화, 균형, 비율, 강조, 리듬을 이용하여 주제, 양식, 기분, 분위기, 장소, 시대, 사회, 경제적 배경 중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시각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각 디자인의 기본적인 목적은 극적 행동을 촉진하고 작품의 특수한 예술적 특성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

로비 Lobby: 극장 입구와 객석 사이의 공간으로 관객들이 공연 전후, 막간에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리거 Rigger: 무대에서 안전한 매달기 작업을 책임지는 스태프

마

막봉/막파이프 Bottom Batten/Pipe Batten: 장치막을 팽팽하게 펴기 위해 막 아랫단에 길게 끼워 넣는 지름 18mm 정도의 쇠파이프

막사슬/막체인 Curtain Chain: 극장막이나 주름막이 날리지 않도록 무게를 주기 위해 막 아랫단에 길게 끼워 넣는 쇠사슬

막잡이줄 Curtain Operating Line/Curtain Pull: 막, 사선막, 두루마리막 등을 조작하는 당김줄

매표소 Box Office: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좌석권을 교환하는 장소이며 주로 로비에 위치한다.

매표원 Box Office Assistant: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 및 교환해주는 사람

매표팀장 Box Office Manager: 매표소의 활동을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는 사람

머리막 Border Curtain/Border/Top Masking: 본무대 천정에 가로로 길게 걸려 수직시각선을 가려주는 막. 주로 검정색이다.

무대 Stage: 공연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공간

무대 뒤/백스테이지 Back Stage: 관객에게 보이지 않는 극장 안의 극 준비 공간. 무대의 뒷부분뿐만 아니라 옆무대, 분장실, 무대전장 등의 공연 준비 및 대기 공간과 기술적인 작업 공간을 모두 포함한다.

무대 밖 Off Stage: 관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대 공간

무대 안 On Stage: 관객의 눈에 보이는 무대 공간

무대 지하실 Trap Room/Under Stage: 무대 밑의 공간. 주로 트랩(제거 가능한 무대바닥 부분)과 연결되어 출연자의 등·퇴장이나 무대장치 설치에 이용된다.

무대감독 Stage Manager: 최종 연습 이후 연출에게 공연을 넘겨받아 무대에 올리는 책임자

무대전물 Stage House: 무대를 둘러싸고 있는 건물과 부속 공간

무대깊이 Depth of Stage: 본무대의 앞 뒤 길이

무대디자이너 Scenic Designer: 무대장치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디자인하는 사람

무대디자인보 Assistant Set Designer: 무대디자이너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자료수집, 모형제작, 제도, 제작 감리 등을 담당한다.

무대미술가 Scenographer: 공연의 시각적 환경 전체를 디자인하는 사람. 의상, 조명, 소품의 디자인 개념 도출에 관여하기도 한다.

무대바닥 Deck/Stage Floor: 무대의 바닥 표면, 높이의 기준면이 된다.

무대장치팀 Grips: 제작된 장치를 공연장에 설치, 전환, 수선, 철거하는 일을 하는 작업자들

무대장치팀장 Stage Carpenter: 제작된 장치를 공연장에 설치, 전환, 수선, 철거하는 활동과 인력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무대진행 Stagehands: 공연 중 무대 뒤(Backstage)에서 무대감독의 지시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주로 무대 전환을 맡는다. 무대에서 필요한 공구들을 언제나 휴대하고 무대감독이 알고 있는 위치에 대기한다.

무대탑 Fly Tower: 매달 수 있는 공간과 매달기 장비가 있는 무대 위 공간

무대턱/무대끝선 Lip of Stage: 무대와 객석의 경계선

무용감독 Dance Director: 안무가가 디자인한 무용동작을 실현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

무용수 Dancer: 안무가 디자인한 무용동작을 몸으로 표현하거나 전통무용의 무용동작을 수련 받은 사람

물품보관소 Cloak Room: 공연 중 관객들의 외투나 소지품을 맡아두는 장소이며 로비에 위치한다.

물품보관원 Cloak Room Attendant: 물품보관소에서 귀중품, 옷, 꽃다발, 짐 등을 공연시간 동안 보관해주는 사람

미용사 Hairdresser: 공연자의 머리를 공연에 맞게 손질하는 이

미화원 Housekeeper: 극장의 청소를 맡은 사람

바

바닥전환수 Floor Grip: 바닥 장치를 조작하거나 전환하는 작업자. 무대기계의 조작은 극장무대기사가 담당한다.

방화막 Fire Curtain/Safety Curtain/Iron Curtain: 화재로부터 객석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시니엄 바로 뒤에 떨어지는 막. 흔히 금속으로 만든다.

배역감독 Casting Director: 공연을 위한 배역선정 과정을 계획하고 그 배역을 위한 공연자를 구하는

사람

배우 Actor/Actress: 공연제작에 있어서 배역을 맡아 연기하는 사람

밸런스 Valance: 1)창문 위쪽에 가로로 다는 장식 커튼

2)무대의 늘림막(Border)이나 윗조리개(Teaser)

3)프로시니엄 아치의 높이를 조정하기 위한 막(Border)

버팀목/까치발 Stage Brace: 수직적 장치를 지탱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 방법인 버팀목은 적당한 길이의 목재나 철재로 만드는데, 한쪽 끝에는 훅(Hook)이 있어 장치에 부착된 고리(Brace Cleat)에 걸리게 되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풋 아이언(Foot Iron)이 있어 무대바닥에 나사로 고정시킬 수 있게 되어 있다. 장치를 지지하는 두 개의 단단한 나무막대는 서로 겹쳐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번역가 Translator: 외국어로 된 작품을 번역하는 사람

본막 Act Curtain/Grand Drapery/House Curtain/Main Curtain: 무대와 객석을 분리하는 극장막. 주로 막이나 장 사이에 쓰이며 장면막이라고도 한다. 극장마다 고유의 문양이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전환소음과 작업불빛이 새어 나가지 못하게 두껍고 무거운 재질로 만든다.

본막선 Curtain Line: 본막을 닫았을 때 무대바닥과 닿는 가로 선

본무대 Main Stage: 극장 본막과 사이클로라마 사이의 무대 공간

분장디자이너 Make-up Designer: 공연의 분장개념을 이끌어내고 디자인하는 사람

분장사 Make-up Artist/Make-up Man/Make-up Woman: 분장디자인에 따라 얼굴과 몸에 분장을 해주는 사람

분장실 Make-up Room/Dressing Room: 출연자의 분장을 위한 방이나 공간 내지는 필요시 의상을 갈아입는 배우만의 공간이다.

비즈니스 매니저 Business Manager: 극장이나 예술단체의 재정과 계약에 관계된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

사

상부전환수 Flyman: 매달리는 장치를 조작하거나 전환하는 작업자

소품디자이너 Prop Designer: 공연에서 소품의 디자인을 책임진 사람

소품수 Prop Man/Prop Woman/Props Man: 소품의 작업자들

소품제작원 Property Builder/Property Maker: 소품을 만드는 사람

소품팀 Property Crew: 공연의 소품을 다루고 배치하고 관리하는 작업자들

소품팀장 Prop Mistress/Properties Master/Property Master/Prop Master: 공연의 소품의 제작, 취급, 보관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수레무대/왜건무대 Wagon Stage/Slip Stage: 주무대폭만한 크기의 이동바닥에 장치를 싣고 전환할 수 있는 무대시스템. 주무대에 등장했을 때 무대 바닥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며 옆무대나 뒷무대에 전용대기공간이 주어진다.

수레장치/왜건 Wagon/Truck/Boat Truck/Sliding Platform: 공연 중 장치를 싣고 전환하는 바퀴달린 덩마루. 연기위치에 등장한 후에는 움직이지 않게 승강바퀴나 잠금바퀴 또는 승강버팀대를 이용하여 바닥에 고정시킨다.

수석무용수 Balletmaster/Balletmistress/Dance Captain: 무용수들의 리더

수표원 Ticket Taker: 객석 출입문에서 입장권을 확인하고 받는 사람

순회감독 Tour Manager: 지역 순회공연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괄하여 감독하는 사람

스턴트맨/대역 Stunt Man: 공연 중 필요에 의해 어떤 공연자의 위험한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

시각선 Sight Line: 객석의 공간 중 가장 끝의 좌우상하 좌석에서 보는 시각의 가상적 선

실링 Ceiling: 주로 객석의 전장부의 조명 작업용 공간. 대극장의 경우 팔로우 스포츠의 조정을 겸하는 장소로도 사용된다.

아

아래쪽무대 Down Stage: 본무대 중 객석에 가까운 쪽

아치막 Leg Drop: 작화 머리막과 작화 다리막이 합쳐져 아치처럼 생긴 막. 흔히 숲 장면에 많이 쓰인다.

악단/오케스트라 Orchestra: 악단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단원

악단장 Orchestra Leader: 악단의 인원과 활동을 감독하는 사람

안무가 Choreographer: 무용을 창작하고 구성하여 공연에 배치하는 사람

앞무대/에이프런 Forestage/Apron: 본막선 앞으로 돌출된 무대 공간

연기 공간 Acting Area: 연기가 이루어지는 공간. 무대뿐만이 아니라 객석, 복도 등의 다른 공간이 연출상의 의도

연기자 Performer: 대중 관객을 상대로 자신을 통해 창조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람

연습감독 Rehearsal Director: 공연자의 연습을 감독하는 사람

연습배우/대기역 Understudy: 공연 기간 중 공연자가 대체되어야 할 경우를 위해 그 배역을 연습하고 준비하는 사람

연습실 Rehearsal Room: 공연을 위해 출연자들이 대사, 동작, 춤, 노래 등의 연습에 사용되는 공간

연주자 Musician: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연출 Director: 작품해석에서부터 연기와 기술적 사항까지 공연제작의 예술 분야 전체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지는 사람

영사기사 Projectionist: 투사기기의 조작을 전문적으로 맡거나 담당하는 사람

옆무대 Side Stage: 본무대 옆에 있는 큰 무대 공간. 본무대 크기 이상이면 좋다. 수레 무대(Stage Wagon)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옆조리개 Tormentor: 프로시니엄아치 뒤의 다리막 형태의 설치물. 대개 영구적이며 이것을 좌우로 움직여 수평 시각선과 시각선상의 프로시니엄의 폭을 조절할 수 있다.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극단이나 극장에서 각 개별공연제작 또는 시즌 공연 전체의 예술적인 양식의 조화와 조정을 책임지는 사람

오른쪽 옆무대/우측무대 Right Side Stage/Opposite Prompt: 객석을 향해 선 배우의 오른쪽에 있는 옆무대. 하수

오른쪽무대 Stage Right: 객석을 향해 선 배우의 오른쪽. 객석에서 관람할 경우 관객의 왼쪽 무대

오케스트라피트 Orchestra Pit: 오케스트라가 들어가 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앞무대와 객석 사이의 무대 공간. 오케스트라 승강기(Orchestra Lift)가 설치되어 무대로 쓰일 수도 있고 의자를 설치하여 객석으로 쓰일 수도 있다.

왼쪽무대 Stage Left: 객석을 향해 선 배우의 왼쪽. 객석에서 관람할 경우 관객의 오른쪽 무대.

왼쪽 옆무대/좌측무대 Left Side Stage/Prompt Side: 객석을 향해 선 배우의 왼쪽에 있는 옆무대. 상수
위쪽무대 Up Stage: 본무대 중 객석에서 먼 쪽. 초기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원근법을 강조하기 위해 무대바닥을 경사지게 하여 뒤쪽을 높였던 데서 유래한다.

윗조리개 Teaser/Grand Valance: 프로시니엄 뒤의 첫 번째 머리막 혹은 머리판. 대개 영구적이며 이것을 상하로 움직여 수직 시각선과 개구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음악감독 Music Director/Musical Director: 공연에 필요한 음악적 요소 모드를 감독하고 책임지는 사람

음향감독 Sound Director: 디자인된 음향계획을 실현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음향기사 Sound Technician: 음향장비를 다루는 사람

음향디자이너 Sound Designer: 공연제작에서 소리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디자인하는 사람. 음향작업 전체의 실행,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

음향반사판 Shell Board/Sound Shell: 프로시니엄 극장의 경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클래식 공연 시 천장부 및 좌우측무대에 설치하는 극장장비. 극장에 따라 반사판 전부를 플라이 시켜 보관하기도 하며 좌우측의 반사판은 옆무대에 보관하기도 한다. 클래식 음악 전용공연장은 설계 시 음향반사판을 고려하기 때문에 극장 내부 전체가 음향반사판의 역할을 한다.

의상관리팀장 Head of Wardrobe: 공연이나 예술단체에서 의상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

의상담당자 Costumer: 보관의상 중에서 공연에 적합한 의상을 찾아내는 사람. 의상을 디자인 하지는 않는다.

의상디자이너 Costume Designer: 공연 제작에서 옷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디자인하는 사람. 의상의 제작, 보관, 수정 등에 관여하며 의상제작실 운영을 책임지기도 한다.

의상디자인보 Assistant Costume Designer: 의상디자이너의 보조자로 자료수집, 스케치, 제작 감리 등의 일을 담당한다.

의상제작소 Costume Shop: 무대 의상들을 제작하거나 수선하는 공간이다. 국내에서는 의상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의상제작실장 Costume Shop Manager: 의상제작실과 제작팀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

의상제작팀 Costume Construction Crew: 의상을 만드는 작업자들

의상팀 Costume Crew: 의상제작과 공연 기간 중 관리를 맡은 작업자. 공연자의 의상전환(Dresser)을 돕기도 한다.

의상팀장 Wardrobe Master/Wardrobe Mistress: 공연기간 중 의상의 운용을 관리하는 사람

자

작곡가 Composer: 공연에 필요한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

작사가 Lyricist: 뮤지컬, 오페라, 창극 등의 음악극에서 노랫말을 만드는 사람

작화팀 Paint Crew/Painting Crew: 장치물에 기본색을 칠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작업자들. 오려내기 장치의 외곽선 지정, 입체질감 작업, 작화막을 그리는 등의 작업을 한다.

작화팀장/작화 Master Painter/Scenic Artist: 작화팀의 인력과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 정교한 무대 배경을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

장치걸이 시스템(Rope) Rigging System: 무대 위에 설치된 장치걸이로 상하 움직임이 편하고 무대장치를 설치하여 공연 시에 상하로 조정함으로써 장치전환을 할 수 있다.

장치걸이봉/배튼 Batten: 무대탑 상부에 설치되어 무대 기계 설비의 상부 지지대를 의미하며, 기계장비로 배튼의 간격은 20-30cm가 적당하며 각 배튼의 적정하중은 500/750/1000/1500kg로 장치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장치막/작화막 Drop/Painted Drop/Drop Curtain: 극장 설비로서의 막이 아닌, 어떤 공연의 무대장치로 제작된 막

장치반입구 Loading Door: 극장외부에서 무대로 장치를 반입하는 입구

장치보관창고 Warehouse/Scene Dock: 무대 장치와 장비 등을 보관하는 장소. 차후 공연에 대비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장치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덧마루들을 보관한다.

장치본막/작화본막 Act Drop/Show Curtain: 극장 본막 대신 공연의 시작부, 막간, 종료부에 내려 무대를 가리는 작화막. 주로 대표적인 분위기나 공연 제목을 작화하거나 투사하며, 망사막인 경우 흔히

막 뒤의 무대가 밝아진 후 막이 투명하게 변하며 올려 없앤다.

장치선 Setting Line: 가장 앞쪽의 무대 장치(주로 실내 장치의 벽)의 좌우를 잇는 가상의 선

장치전환팀 Shift Crew: 장치전환 일을 맡은 작업자들

장치제작소 Scene Shop: 장치 제작과 작화 및 조립을 위한 공간. 목공, 철공, 소품 등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구비되어 있다.

장치제작팀/제작팀 Scenery Construction Crew/Building Crew: 장치 제작 일을 하는 작업자들

장치제작팀장 Building Carpenter/Construction Carpenter: 공연의 장치제작 인력과 업무 내용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장치팀원 Carpenter: 무대장치를 만들고 다루고 수선하는 사람. 주로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하는 목수

장치하역장 Loading Bay/Loading Dock: 공연에 사용되는 장치물들이 편리하게 반·출입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극장의 부속 공간

재단사 Cutter: 옷감을 의상디자인에 맞게 자르는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하는 사람

재봉사 Seamstress/Stitcher: 의상 바느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전실 Anteroom: 로비에서 객석을 잇는 두 겹의 문 사이의 공간이다. 공연 시작 후 관객의 출입 시 로비에서의 소음과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제도사 Draftsman: 무대디자이너의 시각적 계획을 도면으로 그리는 사람. 또는 장치제작소에서 제작팀장과 함께 디자이너의 작업도면을 분석하여 제작도면을 그리는 사람

제작보 Assistant Producer: 제작자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

제작 스태프 Production Staff: 공연제작에 참가하는 스태프들. 그 중에서도 제작회의에 참가하는 주요 스태프들을 지칭한다. 예술감독, 연출, 무대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제작무대감독, 안무, 음악 감독, 제작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제작자 Producer: 공연제작의 재정과 고용을 책임지는 사람

조명감독 Lighting Director: 디자인된 조명계획을 실현하는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조명걸이봉 Electric Bar(Batten, Pipe)/Light Bar(Batten, Pipe) 조명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봉. 전원 회로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조명기사 Lighting Technician: 조명기기를 조작하는 사람

조명디자인 Lighting Designer: 공연제작에서 빛의 개념을 이끌어내고 디자인하는 사람. 조명작업 전체의 실행,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

조명 브리지 Light bridge: 조명기기를 설치하고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조명통로 겹 조명걸이 봉이다.

조명오퍼레이터/콘솔오퍼레이터 Board Operator/Light Board Operator: 공연 중 조명 콘솔을 조작하는 사람

조명작업자 Electrician: 전기적인 장비와 조명에 관해 일하는 사람. 공연 중 무대바닥(Floor Electrician)에서 조명기 위치를 바꾼다거나 장치 전환에 따라 전선을 관리하거나 포그머신의 조작을 담당하기도 한다.

조명팀장 Chief Electrician/Head Electrician/Master Electrician/Juice: 극장에 소속되어 조명장비의 설치, 공연, 철거, 전기를 담당하는 사람

조연출 Assistant Director: 연출의 예술적 작업과정을 돕는 사람. 연습 일정과 연출 대본을 만들고 관리하며, 좋은 연습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한다.

조정실 Control Booth: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연자들의 공간이다. 현대의 다목적 극장에 있어서 조정실은 객석의 뒤쪽에 위치한다. 음향 조정실, 조명 조정실, 영상 조정실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조정실에는 공연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창문이 설치 되어있으며 객석의 일반관객들과는 분리되어야 한다.

주름막 Drapery: 극장에서 쓰이는 주름잡아 매다는 막

중앙선 Center Line/CL: 본무대 세로의 중앙선

지휘자 Conductor: 악단을 지휘하는 사람

진행팀 Running Crew: 연습 및 공연 진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작업자

차

천장작업통로/캣워크 Catwalk: 무대와 객석의 천정공간에서 조명 음향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작업통로

카

코러스 Chorus: 그리스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춤과 합창을 하던 공연자들. 현재는 공연자 뒤에서 노래, 춤을 담당하는 사람들

타

투명막 Transparent Drop/Scrim Drop: 막 앞의 조명에 의해서는 불투명하게 보이나 막 뒤의 조명에 의해 투명하게 변하는 막. 망사천으로 만들어지며 검정색과 흰색이 사용된다.

투사막/영사막/스크린 Screen/Projection Screen: 영상을 투사하는 막

트랩 Trap/Stage Trap: 무대지하실로 배우나 장치, 소품의 등·퇴장이 가능하도록 무대 바닥 일부를

제거한 부분이다.

특수효과오퍼레이터 Special Effects Operator: 공연 중 특수효과 기기를 조작하거나 컨트롤박스를 조정하는 사람

특수효과팀 Special Effects Crew: 특수효과를 공연 중 설치 및 실행하는 작업자들

특수효과팀장 Special Effects Technician: 각종 특수효과를 고안하고 공연 중 실행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

파

포인트호이스트 Point Hoist/Spot Winch: 와이어 줄로 장치물을 매달아 올릴 수 있는 원치로 제작된 무대기계

프로덕션 매니저 Production Manager: 공연제작의 모든 예산, 일정의 조정과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

프로시니엄 Proscenium/Proscenium Arch/Proscenium Opening: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건축적 경계지점. 관객은 프로시니엄을 통해 무대를 들여다본다.

프로시니엄 높이 Proscenium Height: 프로시니엄의 세로 길이

프로시니엄 브리지 Proscenium Light Bridge: 프로시니엄 아치 바로 뒤에 위치한 조명 브리지로 검은색의 윗조리개(Teaser)로도 사용한다.

프로시니엄 폭 Proscenium Width: 프로시니엄의 가로 길이

프롬프터 Prompter: 공연자가 공연 중 대사나 가사를 잊어버리면 즉시 알려주는 사람

핀조명수/핀잡이 Follow Spot Operator: 공연 중 팔로우 스포트 조명기로 공연자의 동선에 따라 비추는 사람

하

하늘막/사이클로라마 Cyclorama/Cyc/Sky Cyc: 뒷무대와외의 공간적인 구분을 규정하는 막. 공연 시 배경을 원활하게 표현하기 위한 극장막. 주로 회색 또는 흰색 막과 흑막으로 구성된다.

홍보 매니저 Press Manager/Officer/Pr Manager/Advertising Manager: 공연이나 공연자의 홍보와 선전, 광고를 관리하는 사람

회전무대 Revolve/Revolving Stage: 바닥이 회전하는 무대. 무대바닥에 영구적으로 설치되기도 하고 공연에 따라 일시적으로 제작하기도 한다. 두, 세 가지의 장치를 그 위에 세우고 회전시켜서 장치를 전환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회전 반대방향으로 걸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의 연기에도 이용된다. 대개 전동식이며, 무대장치로 제작된 경우 수동으로 회전하기도 한다. 원반의 지름은 대개 프로시니엄 폭의

80%정도이다.

횡단로 Crossover: 공연자들이 관객에게 보이지 않도록 무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지날 수 있는 무대 장치의 뒤나 아래의 무대 뒤 공간 통로

후사막/리어스크린 Rear Screen: 뒤쪽에서 투사하는 영상이 잘 나타나도록 제조된 투사막

후원 Backers: 공연제작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이나 기업. 미국에서는 천사(Angel)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스폰서(Sponsor)라고 한다.

참고문헌

- 『2007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관광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 『2008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09
- 『공연 · 행사장 안전매뉴얼』, 소방방재청, 2007
- 『교육인적자원부 시행 대학 특성화 사업-공연제작 매뉴얼 시리즈』, 중앙대학교 공연영상사업단,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7
- 『무대예술용어집』, 국립중앙극장, 2009
- 『무대예술전문인 직무분석』, 국립극장, 2006
- 『문예회관 운영 가이드』, 문화체육관광부 ·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2008
- 『NEW THEATRE WORDS』, OISTAT, 2001
- 고학선, 김창기, 이성호, 이종규, 천세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무대조명Ⅲ』, 교보문고, 2007
- 고학선,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무대조명』, 교보문고, 2000
- 구근희, 김상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무대기계Ⅲ』, 교보문고, 2007
- 김상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공연장 안전 및 관련법규』, 교보문고, 2005
- 김상현, 박동우, 박동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무대기계Ⅱ』, 교보문고, 2005
- 박동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무대기계』, 교보문고, 2007
- 박동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무대제도』, 교보문고, 2005
- 신일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무대기술』, 교보문고, 2005
- 양정현,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공연제작』, 교보문고, 2003
- 이돈웅,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무대음향』, 교보문고, 2000
- 이돈웅,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무대음향Ⅱ』, 교보문고, 2005
- 이성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표준교재 『무대조명Ⅱ』, 교보문고, 2005
- 이승연, 『극장경영과 공연제작』, 역사넷, 2001
- David Mayer, 『STAGE MANAGEMENT AND THEATRE ADMINISTRATION』, Phaidon, 1988
- Drew Campbell, 『Technical Theater for Nontechnical People』, Allworth Press, 2004
- Jay O. Glerum, 『STAGE RIGGING HANDBOOK』, Southern Illinois Univ Press, 2007
- John Kaluta, 『The Perfect Stage Crew』, Allworth Press, 2003
- Linda Essig, 김광섭 역, 『조명과 디자인 아이디어』, 연극과 인간, 2009
- Peter Maccoy, 『Essential of Stage Management』, Routledge, 2004
- Toshiro Ogawa, 유진홍, 김상현 역, 『극장공학과 무대기계』, 무대시설안전진단지원센터, 2005

기획 · 구성 · 집필

홍준석(스텝서울컴퍼니, 월간 [The STAFF] 편집장)

조형준(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팀장)

집필 및 편집 협력

오춘림(스텝서울컴퍼니, 월간 [The STAFF] 에디터)

기획 · 편집

남은정(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차장)

고주영(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2009년 공연기획 · 제작자를 위한 기술행정

발 행 일 2010년 2월 28일

발 행 인 박용재

발 행 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50 보생빌딩 2층
전화 (02)745-3045 팩스 (02)745-2071
www.gokams.or.kr

디 자 인 현대문화사 (02)2278-4482

인 쇄 현대문화사 (02)2278-4482

※책자의 판매, 전재, 복사를 금합니다.
